성무

제42호
2013. 7.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www.airbusan.com AIR BUSAN

OYSTER PERPETUAL GMT-MASTER II

ROLEX

전세계 29 개국의 군이 8,500 여 개의 프랫&휘트니 엔진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utc.com 참조.

Military Engines

Pratt & Whitney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대한민국이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130여개 국내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의 노력과 기술력의 융합으로
대한민국 첫 헬기 **수리온**이 탄생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산업통상자원부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MM
한국기계연구원
KAIST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ES
KOREAN AIR
SAMSUNG
HYUNDAI
WIA
Thalès
eurocopter
CASSIDIAN
DoDAAM
S&T Motiv
WITHUS
IBT
(주)아이비티
(주)상진테크윈
연합정밀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

SAAB AB

GRIPEN 전투기 개발경험을 활용하는 최상의 기술 개발 파트너

SAAB AB
사업분야

Aeronautics
Gripen 전투기, 무인기(UAV/UCAV), 민항기 부품제작

Dynamics
미사일(A/A, A/G, G/A, G/G), 대전차 미사일, 지원화기, 어뢰, 수중무인기

Electronic Defence Systems
지상 및 항공기 탑재 레이더,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ISTAR

Support and Service
MPA/MSA, MRO, 부품제작

Security and Defence Solution
C4ISR, CMS, AEW&C, 보안시스템, 훈련장비, ATM, AIS, TDL

ANTICIPATE TOMORROW

SAAB 75 YEARS OF DEFENCE AND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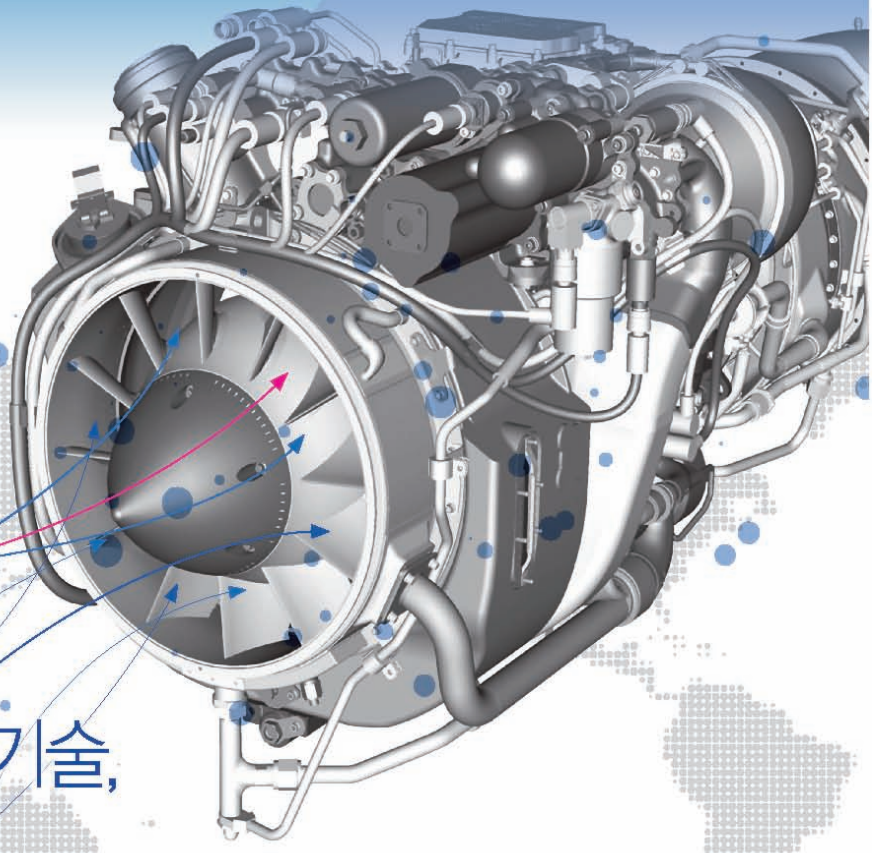
Saab International Technology Korea Co., Ltd.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3-133, 서울디자인웍스빌딩 6층, 우 140-892 전화: 02)539-1688 팩스 : 02)539-1689 www.saabgroup.com

1982년 최초의 국산 전투기 제공호 생산
1976년 국내최초 항공기 500MD 생산
1990년 UH-60 블랙호크 국내 생산
www.koreanair.com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비행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미래
대한항공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
차세대 무인항공기 개발
보잉社, 에어버스社 항공기 공동개발
군용기 및 민항기 첨단정비
인공위성 및 우주 발사체 개발
최고가 되는 것이다.

THE WORLD LEADER IN INTELLIGENT ENERGY SYSTEM

한국형 수리온 헬기의 힘,
삼성/GE 공동개발

T700-701K
TURBOSHAFT ENGINE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은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제조업체로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생산사업과
한국형 헬기엔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주국방과 첨단 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터보압축기, 발전기 등 에너지 장비분야에서
삼성테크윈만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50 Golden Eagle / F404 Engine

F- 15K Slam Eagle / F100/F110 Engine

KUH 수리온 헬기 / T700-701K Engine/STA-150-APU

Ship to Ship Missile / SS-760K

SAMSUNG 삼성테크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번지 삼성테크윈 판교R&D센터 파워시스템 사업부 | 대표전화 031-7147-7000
www.samsungtechwin.co.kr

F110 엔진:
사일런트 이글의 선택

F110-GE-129E

8백만 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통해 검증된 F110 엔진은 최고의 성능 및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주요 전장으로 전개 가능한 작전성을 제공합니다.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한민국 공군이 언제나 신뢰하며 비행할 수 있는 F110-GE-129E 엔진은 40% 절감된 계획정비 이점 또한 제공합니다. 월등한 성능, 최적의 준비태세 그리고 최저의 총 소유비용은 대한민국 공군의 높은 임무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해 F110이 사일런트 이글의 엔진으로 채택된 수많은 이유 중 일부입니다.

imagination at work

www.baesystems.com

세계 수준의 역량

BAE 시스템스는
기술 공유와 지역별로 특화된 파트너십을 통해
맞춤화된 방위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AE SYSTEMS

REAL INNOVATION. REAL ADVANTAGE.

TOTAL AIR POWER

www.eurofighter.com

최강의 전투력, 유로파이터 타이푼

6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세계 최강의 멀티롤, 스윙롤 전투기 타이푼은 비교 불가의 편대 운용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자식 AESA 레이더부터 최신의 헬멧 시현장치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써 향후 수십 년간 전세계 전투기 분야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Alenia Aermacchi
A Finmeccanica Company

BAE SYSTEMS

CASSIDIAN

Eurofighter Typhoon

nothing comes close

성무 [CONTENTS]

14 공군소식

18 모교소식

22 총동창회 소식

43 회원논단

44 북한의 핵위협과 대한민국의 핵전략 | 한성주

51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전략.. | 정철호

57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 고덕천

65 새로운 국방시대에 대한 제언 | 이선희

71 북한의 대규모 내부소요 발생시 유엔의.. | 박동형

79 회원기고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80 –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 이광학

84 – 11기 사관, 임관 50주년을 맞는 소회와 소망 | 서봉철

90 2012년도 탑건 소감문 | 이형재

93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 허 환

96 정부 3.0세대, 공공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 최영훈

99 서라벌에서 온 편지 3 | 이종학

106 아버지 김무영의 발자국을 찾아서 | 배기준

112 공사십훈에 대한 소고 | 김석천

116 NOTES FOR YOU | 박성국

119 남겨진 그들과 함께한 시간 | 고준기

125 버리는 자 거두는 자 | 이달호

129 인생 3막 | 김삼교
132 좀비생도의 후회 44년 | 변희룡
135 천 번을 듣고 천 번을 불러보자! | 이철희
138 3차원, 4차원 그리고 영원 | 이봉길
141 역사적 명연설이 주는 교훈 | 문태일
147 퇴역군인의 새로운 고향 | 이치훈
151 국방보훈클럽에서 진정한 봉사활동을 전개 | 장창연
154 세계 8대 불가사의, '라이스 테라스'를 다녀오다 | 유원봉
165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최광섭
171 등산을 통해 전우애를 다진다 | 임흥규
176 자랑스러운 빨간 마후라와 공군순직조종사 부인회 | 이명자
178 현충일 참배 | 이윤우

180 동문동정

189 총동창회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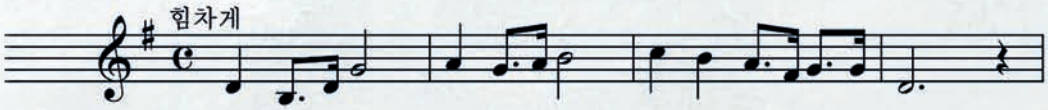
190 정기총회
194 회비 납부 안내
195 평생회비 납부 현황
198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199 공사재단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2 전역자 현황
206 주소 변경
208 각 기생회 임원 현황
209 편집후기/기고안내

발행일자 | 2013년 7월[42호] **발 행 인** | 공사총동창회장
발 행 처 | 공사총동창회 전화_02-823-1091 군_923-7570 **편집 · 디자인 · 인쇄** | 국군인쇄창(13065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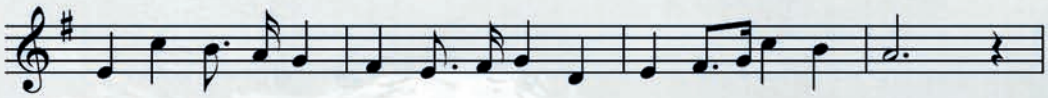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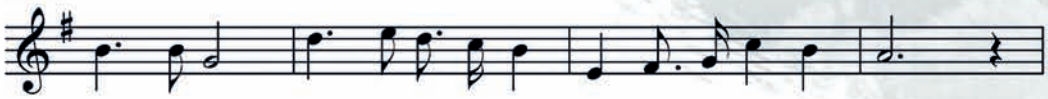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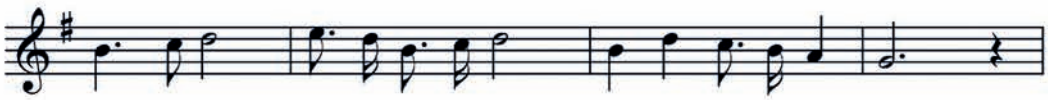
1.우 리__는 피 끓__는 배 달 의__아__ 들
2.우 리__는 하 늘__을 배 우 는__젊 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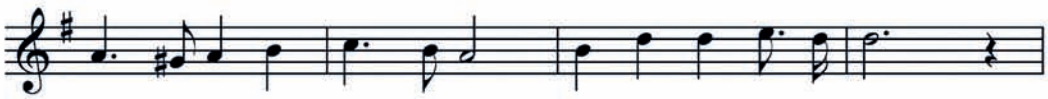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_이 룩 해



누 리 에 떨____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 를 지____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 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 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___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空士十訓

正白從遂貫私敢罰範備
端潔服完一無果必垂兼
儀廉心任義平着賞先威
容清誠責信公沈信率恩

2012 탑건(TOP GUN)에 이형재 소령

공군 최고의 조종사를 일컫는 '올해의 탑건(Top Gun)'에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소속 이형재 소령(공사 47기)이 선발됐다.

이 소령은 10가지 탑건 필수요소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39.1점으로 최고 득점을 얻어 탑건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소령은 평상시 끊임없는 정책발전 제언으로 공군 발전과 조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창의력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소령은 KF-16 전투기를 조종하다 2008년부터 F-15K로 기종을 전환해 현재 102전투비행대대 2편대장으로 근무 중이며, 주기종 F-15K 1,0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802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이다.

공대공, 공대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종 전환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교관조종사로서의 역할도 빈틈없이 수행하는 그의 좌우명은 '항상 겸손하게'이다. 비행경력과 노하우가 쌓여도 늘 처음 조종을 배울 때의 마음가짐으로 규정과 전술교범에 입각해 비행절차를 확인하는 습관만이 자신과 편대원들의 안전과 임무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령은 "공군 조종사라면 모두가 다 탑건"이라며 "다른 동료들의 희생과 지원으로 이런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임을 명심하고, 공군의 핵심전력 F-15K 편대장으로서 적의 도발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비행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소령은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를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인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탑건 선발 포상금 전액(200만원)을 기부하였다.

블랙이글, 공군본부 직할 전대로 다시 태어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소속 전투비행단에서 분리돼 독립전대로 승격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공군은 4월 1일(월), 블랙이글의 모기지인 원주기지에서 블랙이글 전대(제53특수비행전대)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블랙이글은 제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소속 제239특수비행대대에서 공군본부 직할 독립전대로 거듭나게 됐다. 1967년 F-5A 기종으로 블랙이글팀이 만들어진지 46년 만에, 2009년 대대로 창설된 지 약 4년 만에 독립부대로 승격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블랙이글의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지휘체계상으로도 '한솥밥 식구'가 됐다는 점. 지금까지 조종사들은 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예하의 239대대 소속이었고, 정비팀은 군수전대 항공기정비대대 예하의 239정비중대 소속이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팀워크를 이뤄왔지만 조직도상에서는 엄연히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53전대가 창설됨에 따라 비행대대와 정비대대가 한 전대로 합쳐지면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작전과와 홍보과가 편성돼 전대장을 보좌하며 특수비행 계획업무, 행정업무, 대외협조, 홍보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비행대대 내에서 처리해오던 비(非)비행 업무들을 별도의 부서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됐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블랙이글의 에어쇼 연출(내레이션, 배경음악, 지상 세레모니 등), 언론홍보, 공중 및 지상에서의 영상 촬영, 팬 커뮤니티 관리,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홍보 이벤트, 홈페이지 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등이 더욱 전문적으로 이뤄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블랙이글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이글팀은 2012년 7월,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 이어 RIAT에서 최우수 에어쇼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국산항공기 T-50과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재확인시킨 바 있다.

공군 패러디 영상 레밀리터리블 제작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에서 만든 패러디 영상 『레밀리터리블』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군 부대 제설작업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린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개봉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것으로 "제설! 제설! 삽을 들고서~." 눈을 치우는 장병들의 장중한 코러스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이병 장발장이 제설작업을 하는 중에 여자친구 코제트가 면회를 오고, 면회 종료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당직사관 자베르 중위와의 갈등... 그리고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라는 코러스로 막을 내린다.

영상은 공군 현역 장병들이 직접 기획, 연출, 촬영, 출연, 편집을 했다. 연출을 맡은 정다훈 중위가 영화 OST를 직접 편곡하고 개사했으며, 군악대 병사들이 노래와 연주를 맡았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초에 기획됐으며, 제작기간은 1개월 정도 걸렸다. 출연진도 70여 명에 이르고, 제작비도 지미집 임차, 간식비 등에 100여 만원이나 투입된 블록버스터(?)다.

2월 6일 오전에 공군 블로그 공감과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만 하루가 되기 전에 유튜브 조회수 30만을 상회했다. 또한 영화에서 자베르 역을 맡았던 배우 러셀 크로우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면서 해외에서의 관심이 급증했고, 영국 텔레그래프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넷 판에서 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기획한 김경신 중위는 "올 들어 유난히 눈이 많았고 장병들이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제설작업의 애환을 영화 레미제라블 패러디로 그려보자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의 연출자이자 음악, 편집, 미술 등을 책임졌던 정다훈 중위는 "이 영상의 흥행으로 장병들이 젊은 날 군 복무의 경험을 즐겁게 추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군,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2개 부문 수상

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군 미디어영상팀이 제작한 월간 공군이 외부유관단체 특별상인 PR협회장상을, 블랙이글 국제에어쇼 영상이 해외특별상인 뉴욕페스티벌 프라이즈(New York Festival Prize)를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한국기자협회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국내 1,200여 개 기관 및 법인, 단체, 출판 · 인쇄 업체의 커뮤니케이션 저작물을 대상으로 24개 부문에 대해 심사한다.

월간 「공군」은 400호 특집(2011년 10월)을 비롯해 '따뜻한 공군'(2011년 12월), '스마트한 공군'(2012년 2월), 'Rookies of 공군'(2012년 3월), '공군 그리고 가족'(2012년 5월) 등 군 내 기관지답지 않은 신선한 기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국제에어쇼」 영상은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간의 일정으로 참가한 영국 국제에어쇼(와딩턴(Waddington), 리아트(RIAT), 판보로(Fanbrough))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티저(Teaser), 하이라이트(Highlight), 다큐멘터리(Documentary) 3부작으로 제작되었다.

블랙이글의 첫 해외 데뷔 무대 전날 공개한 「티저」(3부작 중 1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블랙이글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다.

NYF(New York Festival Prize)는 그간 사기업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이 우위를 점해 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공군 미디어영상팀의 수상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디어영상팀장 김승표 중령은 "앞으로도 국민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와 SNS로 더욱 소셜(Social)해지는 공군이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61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

제61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2월 22일(금) 14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공사 교장을 비롯한 군내 · 외 주요 인사와 학부모 ·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61기 졸업생은 15명의 여생도와 태국 수탁생도 타왓차이 텅생께오 생도를 포함한 157명이다. 이들은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전원이 군사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공사에서 1년 수탁과정을 이수한 일본 방위대의 이와타 테츠야 생도는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수석졸업은 국제관계학과 박건태 생도가 차지했으며, 박 생도는 3월 8일(금) 계룡대에서 실시된 합동임관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규현 생도가 국무총리상을, 정찬우 생도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명이 교육우등상을 받았으며, 총동창회장상인 대표보라매상은 허환 생도가 수상하였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백병현 예비역 대령(공사 27기)의 아들 백승호 생도와 장화영 중령(공사 32기)의 아들 장준호 생도, 김신욱 중령(공사 34기)의 아들 김동훈 생도가 부친의 뒤를 이어 공사 졸업생이 됐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61기 졸업생들은 총장이 사관학교 교장 재임 시 입학하여 힘든 훈련과 학업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기에 감회가 새롭다.”며,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 무엇보다 명예로운 것임을 명심하고, 조국의 하늘을 지켜온 선배님들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 맡은 바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45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

제45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식(이임식 동시 진행)이 4월 29일(월)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성무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교장에 취임한 이영만(공사 27기) 중장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고, 자랑스러운 선진 정예공군을 이끌어 갈 세계 제일의 정예 인재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이영만 교장은 광주 출신으로 주기종은 F-5E(제공호) 전투기이며 2,55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이다. 이 교장은 남부전투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을 지내는 등 작전수행에 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2004년~2005년 공사 생도대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정예 사관생도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생도들에게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절제를 근간으로 창의적 발상을 통해 항공우주군을 선도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전하며, 자율적 생각을 통해 사고의 폭과 시각을 넓혀가는 열정적인 공사 생도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서울교대 학술교류 협약 체결

1월 22일(화) 공군사관학교에서 공사와 서울교대간의 학술교류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은 연구 ·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한 학술교류 활성화 및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생도, 학생의 교류 ▲공동 강좌, 연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술자료, 출판물, 도서관 자료 등을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환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게 된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공사 신임교수 연성교육 시 교육학, 교수법 강의 지원,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학생 공사 현장체험 및 탐방, 서울교대 학생 공사 병영체험 등 학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실질적 교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서울교대와의 학술교류협약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 · 외 총 29개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학술교류협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사관생도 동계방학 이용 민간대학 계절학기 강좌 수강을 시행하는 등 민 · 군 학술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증대를 통한 사관생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제35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우주과학 축제, '제35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2013' 본선대회가 5월 2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35회를 맞는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항공우주사상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1979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6만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 행사로 성장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고무동력기 · 물로켓 개시비행', '공군 군악 · 의장대 시범 공연', '낙하산 고공강하 시범'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축하비행' 순으로 화려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대회장 주변에는 열기구 탑승 체험과 포토존, 우주 테마 에어바운스, 항공우주 전시/체험관 등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청소년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항공우주과학 이벤트를 마련했다.

자유비행 부문 글라이더, 고무동력기 종목에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여 일간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1,328명의 초 · 중 · 고등학생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2008년부터 실시해 참가선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로켓 대회에는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450명의 선수가 본선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70m 떨어진 표적의 중앙에 최대한 가깝게 물로켓을 도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력비행 부문은 '무선조종 비행기', '무선조종 헬리콥터', '무선조종 글라이더', '유선조종', '정밀축소기' 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모형항공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한 자리에 모였으며, 올해 시범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는 '실내 무선조종 헬기' 종목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제20차년도 이사회

공사총동창회는 '12년 7월 25일 공군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전체 동문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총동창회'를 20차년도 운영목표로 하고,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통한 성과 확산, 동문 상호화합을 위한 활동 적극 전개, 전 회원 대상 정보전파 체계 강화 및 모교/공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주요 사업 방침으로 정하였다.

현역 임원 간담회

'12년 9월 6일 제20차 총동창회 임원들은 계룡대를 방문하여 현역에서 불철주야 영공방위 임무에 진력하고 있는 후배기수(29기~42기) 임원들을 초청하여 후배 격려와 함께 선·후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공본 인참부 전직정책과 요원들의 적극 협조로 다수의 현역 회원들이 참석하여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와 함께 현역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총동창회에서는 벨트를 선물로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자문위원 간담회

'12년 9월 12일 공군회관에서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역대 회장 및 사무총장 24분과 20차년도 운영 임원 6명이 참석하여 회장인사 및 임원 소개, 총동창회 현황보고, 질의 및 토의 그리고 오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질의 및 토의시간에는 자랑스러운 공사인 포상 개선 방안, 평생회비 확보 등 기금 적립 방안, 공사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의 예비역(민간인) 임명방안, 공사 최초 발상지(강서구)에 상징물 설립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선배기수 임원 간담회

'12년 9월 27일 성남 체력단련장에서 선배기수 이사(12~19기) 간담회를 가졌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모처럼 선 · 후배 회원간에 친목을 다지는 한편, 선배님들께서는 각 기생회 운영과 총동창회 발전에 관한 많은 고언과 격려를 20차년도 임원들에게 전수해 주셨다.

후배기수 임원 간담회

'12년 10월 4일 후배기수 이사(21~28기) 간담회를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선·후배 간에 따뜻한 정담을 나누는 한편 총동창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성무인 가을축제

'12년 10월 12일 공군사관학교에서 홈커밍 행사인 성무인 가을축제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1기부터 30기까지 15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 내용으로는 생도의식 및 공사 비보이, 응원단 공연을 관람한 후 생도식당에서 사관생도들과 식사를 함께하였고, 이어서 생도 내무반, 박물관 및 성무 음악회를 관람, 선·후배와 현역간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순조회 초청 오찬행사

'12년 12월 5일 공사총동창회에서는 공군전우회와 공동으로 순조회(순직 조종사 부인회) 초청 오찬행사를 가졌다. 공군전우회에서는 이광학 회장과 국장들이, 총동창회에서는 이기동 회장과 임원진들이, 순조회에서는 23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폭설이 내리는 날씨에도 참석한 많은 순조회 회원들은 순조회 창설이래 처음 갖는 초청행사에 기뻐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순조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 부대위문 행사

'12년 12월 20일 공군전우회(회장 이광학)와 공사총동창회(회장 이기동)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방의 최일선에서 영공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17전투비행단과 6전대, 29전대 및 일월산 레이더기지를 방문하여 부대현황과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청취하고, 일선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하였다.

이날 위문행사는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후원사인 (주)빙그레, (주)우림 및 (주)STCO INC.가 제공한 위문품을 방문부대에 각각 전달한 후 부대 주요시설, 장비 및 복지시설 등을 돌아보았다.

친선 바둑대회

'12년 11월 6일 공군회관에서 제10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우회 고문 윤자중(1기) 회원님을 비롯하여 30기까지 총 4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총동창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정지수(11기) 간사님의 기우회 약사 설명, 김성두 바둑추진위원장의 대회규정 및 진행요령 설명에 이어 A조(1~3급), B조(4급), C조(5~7급) 3개조로 나뉘어 개인전과 복식전이 이루어졌다.

김수장(9단) 지도사범님께서는 다면기 대국으로 대회를 빛내 주셨으며, 20기에서는 정식 선수가 아닌 예비로 여러 명 출전하여 김규식 회원과 홍민 회원이 개인전과 복식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울러 최병철 회원이 대회 현장에서 75만원을 특별 찬조해 주어 예년의 시상금보다 두 배로 올려 시상을 할 수 있었고, 김성두 바둑추진위원장이 기념타월 100장을 협찬해주는 등 많은 20기 진행 요원들의 수고로 바둑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바둑대회 우승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개인전

A조 : 최홍선(5기), B조 : 김규식(20기), C조 : 송중호(10기)

o 복식전

A조 : 최동철(16기), 김종식(18기)

B조 : 신동열(14기), 홍 민(20기)

C조 : 윤대봉(8기), 김수기(14기)

61기 졸업생 격려 방문

'13년 2월 14일 61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축하를 위하여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이 모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진행된 특강에는 전 육군참모총장 남재준 씨를 초빙하여 '장교의 길'이라는 주제로 임관후 장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해 제시해 주었다.

한편, 공사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소개를 한 후에 작은 정성이지만 졸업선물(가죽지갑)을 준비해 전 졸업생들에게 전달하여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해주었다.

총동창회 등산대회

'13년 4월 17일 벚꽃이 만발한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총동창회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행사에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는 1기 선배님부터 30기 후배들까지 2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모처럼 선 ·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금번 등산대회에서는 원로 기수(1~10기)에서 7기 선배님들이 14명 참석하여 단결력을 과시하였고, 11기 이하 기수에서는 13기생이 23명 참석하여 최다 참가상을 수상하였다.

총동창회 운영기수인 20기 및 메추리 기수인 23기 후배님들도 많이 참석하여 식사운반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공사총동창회 임관기념 행사

'13년 5월 3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총동창회 임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안보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역들의 행사참여가 어려워 11기 사관 50주년 기념 단독행사로 진행되었고, 어버이날 학부모 초청행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11기 사관 50주년을 맞아 기생회원 및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 계신 회원들과 유족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1부 행사는 사관학교 계획에 따라 성무의식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축하 곡예비행을 관람하고, 2부 행사는 11기생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하였다.

또한 11기 동기생회에서 1,000만원을 이광학, 허차동, 김용찬 회원이 각각 1,000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모교사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늘사랑 장학회 장학금 전달

2013년 6월 11일 이기동 회장은 순직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해 공군에서 2010년 설립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공사총동창회 이름으로 1천만원을 기증하였다.

기탁금은 지난 1년동안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올린 광고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기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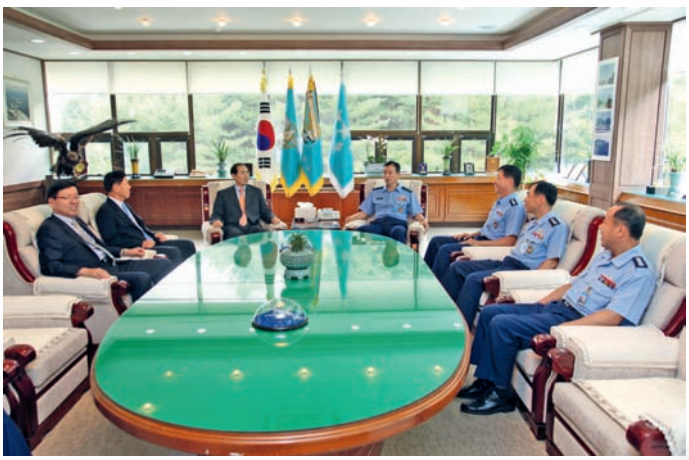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전달

지난 6월 11일 제20차년도 공사총동창회 운영임원단은 공사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증하였다.

기탁금은 지난 1년동안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비에서 절약한 예산과 광고 수익금 일부를 모아 기증한 것이다.

부대 방문

▲ 공군본부('13. 7. 23)



▲ 공군사관학교('13. 7. 23)

▲ 작전사령부('13. 5. 8)

▲ 북부전투사령부('13. 5. 8)

▲ 제8전투비행단('13. 5. 9)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38기 사관 (故) 오충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2013년도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38기 사관 故 오충현 대령을 선정, 제20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故 오 대령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105비행대대장으로 재직 중 2010년 3월, 비행사고로 순직했으며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되었다.

2012년 8월에는 오 대령의 우국충정이 담긴 생전 일기내용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어 수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동년 10월 국군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故 오충현 대령의 멸사봉공과 투철한 희생정신을 참 군인의 귀감으로 삼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의 명예와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故 오충현 대령을 올해의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하고 故 오 대령의 부인 박소영 여사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故 오충현 대령의 군인정신과 애국심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김덕수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교수는 평소 공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공군애호단체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우국충정이 담긴 (故) 오충현 대령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조선일보에 기고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또한, (故) 오충현 대령이 남긴 일기를 토대로 그의 평전을 집필함으로써 전투조종사들의 위국헌신과 조국애를 선양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군과 공군사관학교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총동창회는 2013년 6월 26일 공군회관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및 감사패를 전한 후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총회를 가졌다.(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21차년도 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 배창식 장군을 선임하였다. 향후 1년간 총동창회 업무는 21기 사관이 운영기수를 맡게 되었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21차 운영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21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 회　　장 : 배창식
- 부 회 장 : 김영곤(선임), 금기연, 김광진, 김영곤, 김태욱B, 마순복, 신문식, 신보현, 이　찬, 이호일, 이화민, 유재흥, 장원초
- 감　　사 : 권　근, 정삼연
- 사무총장 : 성봉환

이 임 사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참여 덕분에 1년이라는 동창회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기가 동창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2년 반 전이고, 1년 반의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1년간 살림을 맡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모교를 사랑하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성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로 믿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운영에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애써주신 각 동기생회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문단 및 원로 선배님들과, 특히 1기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격려, 그리고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총동창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사 때마다 온갖 일 제쳐두고 대전에서, 청주에서 달려와서 준비하고 자리를 같이해 온 20기 동기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20기 동기생들은 총동창회를 맡아 운영해오면서 예전보다 더욱 진한 동기생애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동기회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역 후배들과의 간담회, 가을 성무축제, 이사기수와의 친선활동, 친선바둑대회, 등산, 11기 선배님들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부대방문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선 · 후배들과의 우의를 다지고, 서로가 모교 발전에 대한 관심을 더하고, 동문 서로간의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함께 해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역 후배들의 동창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후배들의 인식은 한 단계 올려놓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동창회 회비라도 미리 완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총동창회 운영을 21기 사관에게 넘겨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애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오충현 대령 가족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오충현 대령의 뜻을 길이 새기어 모교와 공군발전에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그간 총동창회를 운영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준 20기 동기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 기 동**

취 임 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전 회원님들의 건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이란 중책을 수락해 주시고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중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신 선배 회장님들과 전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21기 전 동기생의 힘을 합쳐 선배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총동창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마음의 고향인 성무대를 두드리던 초년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설레었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현역에 복무중인 회원들이나 전역 후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10,000여 명에 가까운 회원님들의 면면은 중단 없이 모든 회원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이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관학교 4년 동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호국간성으로 성장하여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국가와 군에 헌신하여 왔음에 높은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이제 저희 21기 전 동기생들은 모든 힘을 한곳으로 결집하여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총동창회의 빛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총동창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모든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의 친목도모와 관련된 제반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을 강화하여 전 회원님들의 총동창회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와 모군인 공군의 발전을 성원하고 돕는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공군사관생도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간성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고,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고양에 힘쓰고 대외적으로 공군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역과 예비역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조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며, 각급 공군관련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와 교류를 통해 기관간의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공군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공군과 총동창회 위상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도 선정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 회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많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전 회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년간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운영해 오신 이기동 회장님과 20기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저에게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며 회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크신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신임 총동창회장 **배 창 식**

축 사

존경하옵는 역대 총장님과 원로 선배님을 포함한 공사 총동창회 회원님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가내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간 헌신하신 이기동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임하시는 임원진들께서는 그동안 공군 각급부대 격려 방문을 비롯하여, 동문 홈커밍행사, 하늘사랑 장학금 지원, 순직조종사 부인회 초청행사, 친선바둑대회 등 공사 동문들의 단합과 유대활동 강화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공사 20기 임원진을 위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새로 취임하시는 배창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 역시 훌륭한 리더십과 인품으로 공사총동창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공군은 현재의 안보위협과 새로운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군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F-X기종선정, KF-X 사업 추진, 공중급유기 도입, 장거리 대형수송기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 확보 등 주요전력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께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공군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공군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공군이 국방을 선도하고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서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역들 또한 모교와 공군발전에 기여해온 공사총동창회가 공사동문들의 구심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2013년 하반기에도 공군 전 장병은 신바람 나는 공군,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사 총동창회 모임을 통해 선 · 후배 전우간 추억을 회상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여름과 장마철에 동문회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공사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성 일 환**

회원논단

- 북한의 핵위협과 대한민국의 핵전략 / 한성주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전략 발전 방향 / 정철호
-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 고덕천
- 새로운 국방시대에 대한 제언 / 이선희
- 북한의 대규모 내부소요 발생시 유엔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 박동형

북한의 핵위협과 대한민국의 핵전략

24기 사관 **한 성 주**
(전 군수사령관)

Ⅰ. 서 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행했다. 핵무기의 소형화 성공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핵실험이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3월 5일에는 한반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으며 핵전쟁위협도 곁들였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동맹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김정은의 노림수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핵전쟁돌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박성 조치라고 평가된다. 그만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절박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7일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까지 북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전략이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협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은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 및 B-2 스텔스폭격기까지 차례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키리졸브 2013 (3.11~21) 이후에도 유사시 확실한 대북 핵공격 능력과 의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의 배경과 차후 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전략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북한의 핵개발 경과

북한의 3차에 걸친 핵실험 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같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되었다. 1~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원료로, 3차는 고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실험일자	내 용
1차 핵실험	2006. 10. 9	지진파는 3.9리히터 규모, 추정위력은 1kt,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함.
2차 핵실험	2009. 5. 25	지진파는 4.5리히터 규모, 추정위력은 3kt, 역시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함.
3차 핵실험	2013. 2. 12	지진파는 4.9리히터 규모, 추정위력은 7kt, 고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플루토늄 방식과 고농축우라늄 방식을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방식을 사용한다면 매년 핵무기 4~6개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구 분	내 용
플루토늄 방식 (제1방식)	-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출함. -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은폐가 어려움. - 6~7kg으로 1개의 플루토늄탄 제조 가능 - 현재 북한이 24~42kg의 플루토늄 보유 예상
고농축우라늄 방식 HEU: High Enriched Uranium (제2방식)	- 천연 우라늄을 원심분리기를 통해 90% 이상 농축시킴. - 원심분리기만 일정수준 보유하면 가능/소규모 시설로도 가능/은닉 용이 - 북한은 2,000~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연간 40~60kg의 HEU 생산이 가능함. - HEU탄 1개를 만드는데 약 10kg의 HEU가 필요(최신기술 적용시)하므로 HEU로 핵실험이 성공하면 연간 4~6개의 HEU탄을 제조할 능력을 갖추게 됨.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 이후부터 HEU로 표기함) 방식의 핵실험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농축우라늄의 핵실험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HEU탄의 제조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HEU 제조설비는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

셋째, 북한이 HEU탄에 들어가는 HEU의 양을 최소화하는 기술력을 보유했을 경우 ICBM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가 가능해지며, HEU탄의 연간 생산량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북한이 그동안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되는 머레이징강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양은 약 172톤, 이를 모두 원심분리기로 제조했을 경우 최대 3,000대 이상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10kg 이하의 HEU로 핵실험을 성공하면 연간 6개의 HEU탄의 생산이 가능함을 뜻한다.

다섯째,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한 은하3호에 HEU탄을 탄두로 사용하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무장국의 지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이 소기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김정은 정권의 다음 차례의 도전은 핵무기를 활용하여 정치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으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의 성공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려 시도할 것이다.

2. 북한의 정전협정무효화와 핵전쟁 위협의 전략

지난 2월의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3월 7일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김정은을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이전의 1718호, 1874호, 2087호보다 높은 수준의 고강도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은 제재대상과 통제품목의 확대, 금융제재 확대, 화물검색 강화, 선박 · 항공기 차단, 금수조치,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대상 사치품 예시목록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이 현 경제난을 헤쳐나갈 자체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대북경제제재동참은 북한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박근혜정부로부터의 경제협력도 여의치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는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서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의 존재가 북한정권교체 가능성의 소문을 지피고 있다.

인민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통치가 가능할 터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고강도, 전방위 정치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한반도 전쟁위협이 등장한 것이다.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해,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판사판의 벼랑 끝 전략전술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정전

협정무효화 도발이며 핵전쟁발발 위협인 것이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094호를 주도한 미국과 한국을 연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을 볼모로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당장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처럼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간 뒤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는 '벼랑 끝 전술'인 것이다. 지난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북한은 공식성명을 통해 '워싱턴 불바다'를 언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미태평양사령부 산하와 한반도 내의 미군핵심기지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정전협정 백지화'(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제2의 조선전쟁, 서울 불바다'(외무성 대변인),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청와대 박살'(조평통) 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도 최근 전시를 대비하는 평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활발히 송고하며 핵전쟁 준비완료의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의 핵전쟁 도발 시나리오는 아마도 다음의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나리오 1: 서해 5개 도서(한 곳 또는 여러 곳), 또는 육상에 대한 포격도발 감행

시나리오 2: 국군에 의한 대응포격/폭격 유도

시나리오 3: 상륙작전 전개, 도서점령 달성

시나리오 4: 국군에 의한 북한군 지휘부/ 평양 공격 유도

시나리오 5: 핵무기 보유 시현과 함께 서울점령 국지전쟁 전개, 승리획득 후 협상전개

북한의 전면전 및 핵전쟁 위협은 그만큼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면서 경제난 심화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전쟁위협의 초강수를 두게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한다. 핵전쟁 위협은 공갈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적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대한민국의 대응 핵전략

대한민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놓이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양국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전략은 가지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핵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대 러시아 핵전략의 일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MIT 공대의 두 교수 리버와 프레스는 공동으로 2006년 봄에 발간된 계간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지에 미국이 러시아 대비 핵우위를 달성했음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했다. 지면관계상 그 내용의 극히 일부만 요약하여 수록한다.

상호확증파괴(MAD)의 종결
(미국의 핵우위(Nuclear Primacy))

국제안보 제30권(2006. 봄), 7~44쪽, MIT출판부
Keir A. Lieber & Daryl G. Press 공저
한성주 요약정리

Ⅰ. 서 론

○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미소 강대국 간의 핵무기에 의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능력에 의거 군사적 고착상태가 유지된다. 1990년대에 들어 미소 양진영의 냉전 상태가 해체되면서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MAD)시대는 종결 중에 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원인들에 기인한다.

1) 러시아의 평시 핵전력에 대한 미의 선제적 기습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2) 러시아 핵의 비상대기상태하에서도 미의 선제적 기습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Ⅱ. 핵 균형의 변화: 1990~2004

○ 1990년 이후 핵 균형의 심각한 변화도래

1) 러 핵무기의 진부화(1990 ⇨ 2004)--생존성 감소
   ① ICBM: 58% 축소, 대부분 수명주기 초과, 이동형 미사일의 이동대기 전무
   ② 폭격기: 39% 축소
   ③ SSBN: 80% 축소, 2000년 Kursk의 핵잠함 침몰사고, 해중대기 제한
   1990년 60회/연 ⇨ 2000년 연 2회/연 ⇨ 2002년 0회/연
   ④ 태평양 SLBM 관측 레이더망 거의 포기
2) 미 핵무기의 지속적 현대화
   ① 핵무기: 숫자는 줄이고 치명성은 증대
   ② SSBN: 15년간 성능개량, 신미사일(신Trident Ⅱ; D-5) 운반능력 및 성능개량
   ③ 2005년 MX Peace Keeper ICBM 폐기 ⇨ 200 Minuteman Ⅲ ICBM 성능개량
   ④ B-2 폭격기 초저고도 침투 항법장비 장착

Ⅲ. 러 전략 핵전력에 대한 미의 핵 기습공격

○ 러 표적에 대한 미 개념적 핵 타격 전력

표적 구분	숫자	표적점	표적점당 탄두	총탄두
ICBM(silo)	258	258	6~7	1,640
ICBM(이동)	291	40	7	280
주 항공기지	9	27	4	108
예비 항공기지	54	54	2	108
주 해군 표적	3	30	5	150
예비 해군 표적	31	107	3	321
국가급 핵저장기지	17	136	1	136
지역 핵저장기지	33	66	1	66
기타 핵 저장기지	73	73	1	73
탄두 조립기지	4	8	1	8
계	773	799	1~7	2,890

Ⅳ. 성능개량 경향성과 새로운 구상

1. 모델 결과: 미 상당 수준의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2. 러시아 핵무기: 진부화되었음.
   - ㅇ 러 핵탄두: 1,500개(2020년까지 존속), 그중 80% ICBM(고정)탄두 수명주기 경과
   - ㅇ 러 ICBM: 1,300기(1990년) ⇨ 550기(2006년) ⇨ 150기(2010년)
   - ㅇ 러 SSBN 8기로 축소
3. 중국 핵무기는 정체상태에 있고,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ㅇ 중 18개 ICBM 보유
   - ㅇ 중 2020까지 100기로 증가, 이동형 배치 예상
   - ㅇ 중 1/SSBN 증강 계획 추진중임.
4. 미국의 핵무기: 미사일 방어와 새로운 구상이 진행중임.
   - ㅇ 2001년 ABM(탄도미사일방어)조약을 탈퇴, 2004년에 NMD(국가미사일방어)를 실전 배치하였으며, 현재 지상 · 공중 · 해상 · 우주 MDS(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중임.
   - ㅇ NMD 비판가
     - ① 200~300기 동시공격 시 방어능력의 한계
     - ② 대기권 밖 요격 시 데코이 요격 가능성--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성 큼
   - ㅇ 타격체계
     - ① SLBM 정확도 향상 : 90m ⇨ 12m
     - ② 지상폭발 퓨즈로 교체
     - ③ ICBM(200 Minuteman) : 정확도/파괴력 향상
   - ㅇ 재래식 무기 성능개량
     - ① 저소음 SSBN 개발 : 러 SSBN 은밀 추적 가능
     - ② 적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탐지능력 향상
     - ③ 적 위성파괴 지상 우주 발사체계 실전배치

Ⅴ. 함 의

- ㅇ 러 · 중의 핵경쟁 유발: 핵무기 증가/광대역 전개, 핵투발 권한 하향 위임, 아주 쉬운 절차(hair trigger)의 핵보복 교리 채택 ⇨ 불의의 핵전쟁 가능성 증대
- ㅇ 러 · 중의 취약점 보완책: 핵무기 사용 가능성 증대
  예) 대만에서의 충돌 시: 핵무기 사용 유혹 증대
- ㅇ 러 · 중에 대한 미의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 증대
  예) 한국전에서 불리 시

Ⅵ. 결 론

1. 매파: 핵우위의 새 시대 환영
   - ㅇ 미국과 동맹국에게 적대행위 억제효과 유발
   - ㅇ 중국의 소규모 핵전력은 미국의 대만개입 억제 못함
2. 올빼미파: 미국 핵우위는 미국 안보에 위협
3. 비둘기파: 핵우위 추구는 미국의 현 외교의 오류, 미래 모험주의 초래 가능
4. 결론: 핵전력/비핵전력 우위 추구의 지혜 ⇨ 외교정책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리버와 프레스 두 교수는 러시아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만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2005년 현재 러시아 1,300기: 중국 18기)은 미국에 대해 핵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2004년부터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서 핵탄도미사일로 미 본토에 타격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 적어도 200~300기를 동시에 공격할 때에야 비로소 뚫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0기 미만의 중국의 핵무기로는 어림도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미국의 정부가 필요시 미국의 핵우위에 근거하여 중 · 러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강압외교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핵도발을 하면 미국의 대량 핵전력이 평양을 향하여, 중국이 개입 시 북경을 향하여 운용될 수 있음을 정치 · 외교 · 군사의 다중채널을 통하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Ⅲ. 결 론

대한민국에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서울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든 화생무기이든 사용하기만 하면 이는 미국의 대량의 핵무기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심표적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핵전략이며 한미연합의 대북억제전략이다. 이 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 군사지휘부는 단호해야 한다. 우물쭈물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통수권자의 확실한 사전지침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들 대다수는 지난 2010년의 북한의 두 차례의 군사적 모험, 즉 천안함폭침도발(3.26)과 연평도포격도발(11.23)과 이에 대한 통수권자의 단호하지 못한 정치 · 군사적 대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결단력 없이 우물쭈물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핵전쟁을 유발하는 북한의 도발과 의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인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점령작전을 시도하는 자체부터를 핵전쟁유발의 전략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군이 핵선제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공격 임박의 징후가 읽혀지는 순간 대량의 선제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김정은은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전략 발전 방향

20기 사관 **정 철 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 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이 앞으로 '광명성' 계열의 미사일 발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 13,0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더욱 확장하고 100kg 정도의 탄두 탑재량을 더욱 증가시켜 5년 이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n Air Missile Defense)' 구축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와의 연계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 식별함으로써 미사일방어를 위한 요격과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발전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KAMD전략은 이제 방안의 선택보다 시기의 선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사일방어 필요성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1980년대에 SCUD-B/C를 개발한 이후 1990년대에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2007년에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작전 배치하였고 이제는 한국을 표적으로 한 공격위협 범위를 넘어 광명성 미사일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탄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미국은 MD 구축을 위한 당위성

과 우선적 표적으로 설정할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하였다.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구축하려는 입장에서 이를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당면한 현실적 위협으로 빌미를 삼게 되었다.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응하여 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체제는 미국의 핵전략의 일환인 MD와 연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으로 적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는 한국은 핵무기 제한전쟁 가능성에 대한 안보 불안을 염려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핵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MD로 자국방어가 가능한 입장에서 미국이 재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들 국가에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은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동맹을 통한 미국의 연루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정책이 강구되어야 미국의 핵 '적극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에서 일찍이 미국의 MD체제에 동참하여 자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의 MD정책에 동참하여 핵억제력 확보와 미사일방어를 위해 미국을 연루시키는 것이 안보의 관건이 된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과 병행하여 KAMD능력을 신장시켜 동북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과 연계한 광범위한 방어망에 참여하여 미사일 억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KAMD의 한계와 미 MD와 연계 구축방향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KAMD의 구축은 미국의 MD와 연계하여 구축해야 상당 수준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할 수 있다. 그동안 지난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와 남북관계를 이유로 삼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오면서 'MD 불참'을 표면적으로 선택하여 왔으나 '전략적 한미동맹'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MD참여'는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재집권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체제의 동참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최소한 '방어충분성' 확보차원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상존해왔으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충분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미국의 MD체제 일부로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한국이 중국의 탄도탄 미사일의 능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개발한 '철매II'는 요격 가능 고도가 15km로 요격성능이 제한적이다. KAMD 구축은 PAC-3과 SM-3체제를 구비해야 실질적인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미국의 MD체제와 상호호환성을 갖고 있어 체제구축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KAMD의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조기경보 및 감시 제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와 감시체제와의 연계해야 작전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전장관리/C4I와 지휘통제체제는 현재 추진 중인 KAMD 지휘통제체제도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과의 정보수집관리와 지휘통제를 위한 협력체제구성은 필수조건이다. 탄도탄방어 작전통제소는 공격미사일에 대한 요격 판단과 발사를 위한 지휘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감시체제와 정보로 제약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정확한 공격미사일의 탐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DSP 조기경보위성과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탄도탄발사에 관한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결국 KAMD는 기능발휘를 위한 구조적 제한으로 인하여 미국의 MD체제와 연동이 불가피하다.

2012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PAC-3 미사일을 주축으로 KAMD체제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것은 PAC-2의 탄도탄 요격 성공률이 40% 미만으로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공격에 대응한 한국의 미사일방어능력을 2015년까지 PAC-3로 보완하여 탄도탄 요격률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기로 협의한 것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의 기반을 이제야 구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AC-3 포대 구축을 위하여 2조 5,0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한 데에, 전력투자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 받을 피해는 이 투자액의 수십 배를 능가할 것을 고려할 때 미사일방어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적극적 억제'로 '킬 체인(Kill Chain)'을 이용한 미사일발사대를 비롯한 미사일 기지 파괴와 함께 '소극적 억제'인 탄도탄요격을 위한 PAC-3 미사일 확보를 통한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정보자산과 지휘통제체제와 연동 없이는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KAMD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하여 미국MD와의 연동과 체제의 공유가 필요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KAMD구축은 우선 하층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MD체제와 연동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는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자체로 KAMD의 요격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탄도탄 탐지레이더의 설치와 우주감시 및 통제를 위한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요격미사일을 PAC-3와 SM-3로 구비하여야 실제적인 미사일방어가 가능하다. 한국의 하층방어망을 구축한 이후 미국 MD와 연동하도록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미사일방어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다. 아울러 지대지 미사일의 지휘통제구조를 개선하여 공군의 조직예하에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여 우주공간 관리와 미사일방어체제 관리에 일관성과 지휘의 일원화를 이루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이 기존의 KAMD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여건에서 미국의 TMD(Theater Missile defense) 체제 개발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양국 간의 협상여지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한국의 독자적 KAMD로 미국의 MD와 연계된 수준의 작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TMD체제 구축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탄도탄 감시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의 배치에 적합한 위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관련 시설의 배치장소를 제공하고 이와 상계되는 요격미사일의 확보와 감시정보와 지휘통제체제의 연동을 통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한국이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유용한 선택이다. 미 MD와 KAMD연계 정책은 미국의 향후 MD 개발에 한국의 예산부담 한계를 고려하여 직접 참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실전배치되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의 한국 내 배치를 비롯하여 탄도미사일방어를 위한 지휘통제체제와 정보통신 및 감시체제 분야 구축에 관해서는 미국 MD체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MD계획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조치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불러 올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한미동맹에 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MD연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 미국의 방어적 핵전략인 MD체제에 배제되어 있을 경우 한국의 핵억지력은 공백상태가 되어 북한 핵무기에 대하여 '무장해제'가 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제공 약화로 당면하게 될 수 있는 국면을 한국 KAMD와 미 MD체제를 연동하는 것을 통해 방어적 핵억제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3. 국내 군사우주력 통괄 관리 체제 구축 : 우주사령부창설 필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우선순위는 우선 징후감시 및 조기경보능력을 구비하는데 두어야 한다. 조기경보와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 한국군이 최근 구축한 그린파인 레이더 성능의 보완을 위해 미국의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인 TPY-2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레이더에서 획득되는 정보를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여 연합미사일방어체제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감시를 위하여 한반도 주변 광역감시가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체계를 구성하고 적외선 영상정보획득을 위한 위성을 전력화하여 실시간으로 경보를 전파하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연동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발사한 위성인 무궁화계열의 인공위성을 비롯하여 다목적 위성계열과 향후 개발되어 운영할 군 독자위성과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공군전력을 비롯한 KAMD관련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군 주도로 합동작전 지휘통제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 MD자산의 정보와 작전협동을 위한 한미 연합작전의 유기적인 협력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방어를 총괄하여 지휘통제할 우주사령부의 창설이 요구된다. 공군작전사령부의 예하에 우주사령부를 편성하여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에 대한 직무를 미국과 연합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해군전력과 지상전력을 통합 지휘하는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는 적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력을 통해 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탄도미사일방어와 미사일공격작전을 일관성 있게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지대지 유도탄도 우주사령관의 통합 지휘통제를 받게 편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해군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성하는 이지스함장과 육군의 유도탄 사령관은 미사일전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이 전력을 총괄하여 작전통제하는 우주사령관이 통합적으로 전력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합동작전이다.

한편, 탄도미사일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우주사령부는 민간 우주체도 감시하고 군 우주전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협조하는 협력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민방공체제와 같은 군과 민간기구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주에 관한 인공위성 개발과 운영, 우주감시,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각종 우주 물체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우주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국가적으로 우주에 관한 개발, 운영관리,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우주관리체제와 일본의 관리체제 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공간과 우주물체 관리에 관한 법규의 재정비와 더불어 우주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연계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정부의 우주산업과 우주관리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우주관련 법규와 정부조직은 한국의 우주관리와 우주산업발전을 위해 참고가 될 것이다.

4. 결 론

한국이 KAMD를 미국의 MD와 연계하여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중, 장기적 차원의 한국 안보를 위해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미 MD체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과 과학기술의 진척, 군사력 운용체제의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단,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군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당위성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MD와 공조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미국 MD체제구축에 동참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해 있다.

한편, 한국의 미사일개발을 제약하고 있는 한미 간의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능력 신장이 주변국에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 미국의 군비통제 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사일 개발에 관하여 한국이 미국의 신뢰를 확보할 경우 미사일 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단 군사용 미사일 개발과 민수용 우주발사체 로켓의 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제시하여 미국으로부터 우주로켓 개발을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우주기술을 전수받은 전례를 연구하여 미국과의 협력으로 우주산업 개발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게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한국이 미국MD체제 구축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MD체제 동참과 우주발사체 개발을 비롯한 우주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우주 선진국 대열에서 설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25기 사관 **고 덕 천**
(항공우주정책연구원장)

Ⅰ. 서 언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 실험이 있었으며, 핵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비난이 국제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유엔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결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국은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북한 핵 실험에 이어 제기된 북한의 대남도발협박에 대한 안보대응태세로 집중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수단밖에 없으니 한국도 핵을 개발, 보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북한의 대남도발 협박에 남한이 대응하여야 하는 태세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결국 3차 핵 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실용화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성공한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략의 문제이다. 전략과 작전을 연구해 온 필자는 늘 우리가 작전에는 정통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략에는 약하다는 고민을 많이 해 왔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미래를 고려한 군사전략을 제시하였다.

Ⅱ.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1. 군사전략의 개념

전략은 목표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국가목표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능력을 동원, 조직, 통제 및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략과 혼동하기 쉬운 정책은 문제해결과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 또는 계획이다. 국가전략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전략 등으로 구분한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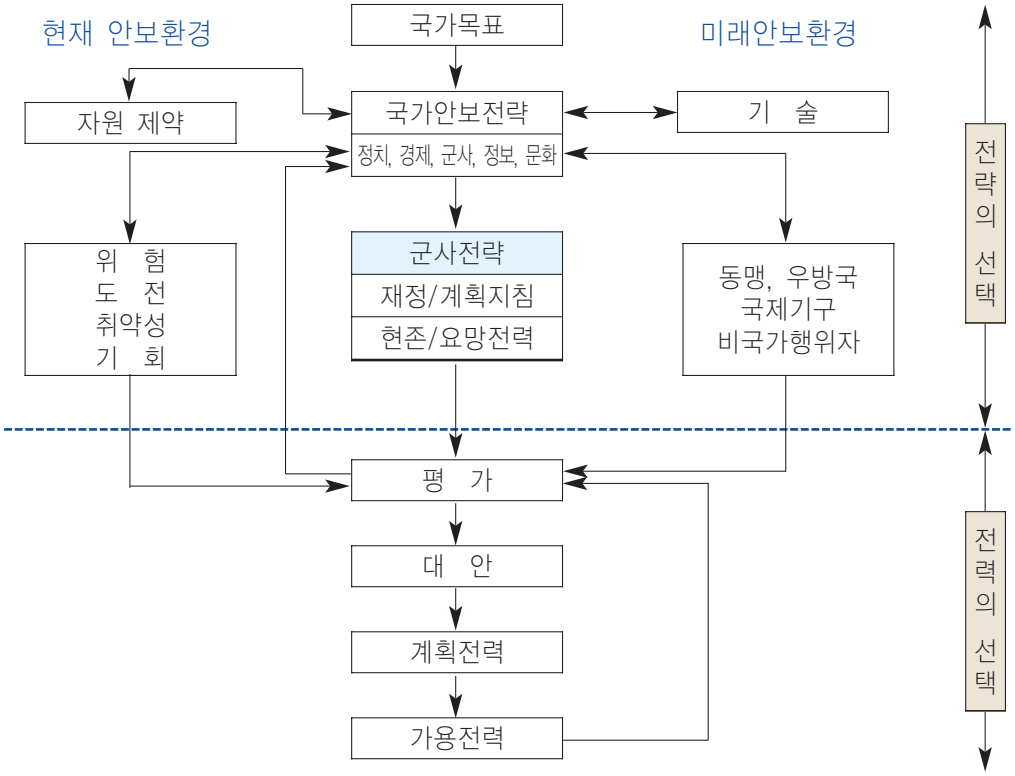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이란 전쟁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전투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정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목표(Ends)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행 방법(Ways)이 결정되며, 목표와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Means)인 군사력이 결정되는 것이다.[2)] 라고 하였다. 그러면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국민안전과 국가번영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이며, 2010년도 국방백서에 의하면 국방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3)]라고 되어 있으며 군사전략에 대하여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다만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30'에 군사전략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며, 북한이 우리들의 강력한 보복공격에 대한 결의를 숙지하고 도발을 자제하기를 바라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전략이라[4)]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전략이란 용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략이란 말은 효과의 수준(Level of Effects)에 관한 것이지 그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다.[5)]라고 정의하여 과거 B-52전략폭격기 란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어떤 수단이 임무를 수행하여 전략적 효과를 거둔다고 할 때 전략이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군사전략은 현재와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가안보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방법으로서 군 조

1) 한용섭, 『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pp.8~11.
2) 노양규, "한국군의 군사전략 변천과 발전"(인터넷, 2012.10.12. 검색)
3)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32.
4) 『국제문제』,"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11월호, pp.9~12.
5) Lt Col. J.P. Hunerwadel, Air & Space Power Journal/Spring 2008.

직, 무기체계 등 군사력 건설의 지침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이나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군사전략의 명확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군사전략이 근간이 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개혁, 군사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2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전략 등을 고려해 무기체계의 소요결정과 수정을 합참의장이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군사전략 개념을 잘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군사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은 아직도 모호한 상황이다.

2. 군사 전략의 틀



P.H.Liotta and Richmond M.Lloyd "The Strategy and Force Planning Framework," *Strategy and Force Planning* (New Port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위 도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는 작전의 문제이고 미래는 전략의 문제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항공우주군 건설과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대한 언

6) 한용섭, 전게서에서 재인용.

론과 국회의 공격이 있었다. 이는 작전을 위하여 전략을 흔든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략적 개념과 인식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군사적 대응과 군사력 건설을 제시하여 온 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안보환경을 분석, 평가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작전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Ⅲ. 군사전략의 발전과정

군사전략이 어떻게 적용, 발전되어 왔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대전시 적용하였던 속도를 기반으로 한 전격전 전략이다. 그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주 무기체계는 전차, 항공기로서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독일은 전차와 항공기를 공세기동화하여 전격전 전략을 수행하였고 프랑스는 방어용으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속도의 개념을 적용한 독일의 전략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둘째, 거리의 개념을 적용한 억제전략이다. 미 · 소 냉전시대에 핵무기, 항모전투단, 장거리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전투능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였다. 이러한 무기로 공격하면 결국 상호 파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서로 도발을 못하게 하는 억제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간을 적용한 항공중심전략이다. 걸프전, 이라크전 등 현대전을 통하여서 입증된 전략이다. 전략중심(Center of Gravity)을 정밀 타격하는 효과기반작전으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서, 지상전에 의한 대량소모를 지양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이다. 이후 보스니아전,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치고,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확산, 테러, 해적, 사이버 공격가능성의 증대 등 초국가적 위협의 대두에 따라 지 · 해 · 공 합동전략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Ⅳ. 한반도의 안보위협 및 미래전 양상

북한은 세계에서도 가장 다루기 복잡하고,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방어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위협요소를 보이고 있다. 100만 이상의 현역 군인, 10만 이상의 특작부대 및 다양한 침투

수단, 다량의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의 보유, 대화의 단절과 고립된 사회로 인한 정보획득의 어려움, 충동적인 국가 리더십은 급변사태를 가져 올 위험이 큰 반면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인 안보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심전략으로의 전환,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원과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을 고려해 볼 때 미래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전장은 지상, 공중, 해상,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수단(형태)은 재래식, 정밀, 대량살상무기, 테러, 비물리적 무기의 혼용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전선은 전, 후방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즉 전선이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넷째, 적과 아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다양한 전투형태의 요소를 혼합한 Hybrid Warfare[7]로서 전 영역이 동시 전장화되거나 또는 지엽전이나 국지전만으로도 국가목표 달성이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Ⅴ. 한국군의 미래 군사전략

한국군의 미래 군사전략은 시간적으로 현재 위협과 미래 위협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거리와 속도 측면에서 한반도와 주변국의 잠재적 충돌 가능 예상지역에서 동시에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적으로 지 · 해 · 공 합동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모든 위협을 관리하고, 전장에 도달가능하며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공중지배전략(Air Dominance Strategy)을 제기한다.

공중우세(Air Superiority) 개념이 공군 대 공군의 상대적 우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공중지배(Air Dominance) 개념은 모든 합동작전과 항공작전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8] Michael W. Wynne 미 국방성 장관은 2007년 9월 AFA(Air Force Association)회의에서 "공중지배가 있으면 지상에서의 싸움은 단순한 계획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였다.

---

7) Hybrid Warfare : 최신무기와 재래식 무기, 비정규전, 테러, 교란기술 또는 범죄행위 등을 복합 사용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분쟁으로 2009.1월, 미 상원군사위원회 연설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거론.
- Robert Wilkie, "*Hybrid Warfare*", Air & Space Power Journal, Winter 2009. p.2.

8) Rebecca Grant, 미 Air Force Magazine, 2008. 12.

1. 공중지배 전략 수행 개념

공중지배 전략은 용어상 공군의 전략으로만 오해할 수 있으나, 정확한 개념은 공중을 지배한 상황에서 지상군, 해군 전략을 전개하여 최상의 군사작전 효과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공중지배 전략 개념하에서 지상군은 '정지 및 전진이동(Halt & Moving Forward)전략'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 전선의 방어진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초기 북한 지상군의 침투를 격퇴하고, FB내에서 지상주도권을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병참선을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구축된 기존의 지휘 · 통제 · 통신 · 컴퓨터 · 정보 · 감시 · 정찰(Command · Control · Communications · Computers · Intelligence ·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C4ISR) 체계를 최대로 활용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 지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다.

지상군전략에서 공세는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는 중요한 전력운용방식이나 지형장애, 병참지원, 기동제한 등으로 위험부담이 크다. 반면에 지상방어는 익숙한 지형 활용, 사전 준비된 방어전력 구축 가능, 병참지원이나 후속전력 충원 등 유리한 점이 있어 효과적인 전략운용이 가능하다.[9)]

공군은 개전과 동시에 종심지역까지 전투공중초계 및 공중우세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략적 중심의 무력화는 물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동표적을 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을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이후 창문까지 구분하여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해군의 토마호크나 지대지 미사일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지하화된 견고한 표적이나 이동형 표적에 적절하지 않은 무기체계이다. 눈으로 보고 직접 때리는 항공기에 의한 공격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해군은 공중우세가 확보된 상황에서 해상우세권을 유지하며, 적 특작부대의 침투저지, 탈북 난민 수용과 해상 병참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병행하여 공중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종심지역에 대한 공중감시와 타격자산을 협조하고, 대주변국 잠재적 충돌가능지역에 대한 공해 합동작전 능력 확보로 국가주권을 수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중지배전략을 수행한다면 강력한 공중지배를 통하여 모든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전장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공중지배전략 계획 발전을 위한 과제

공중지배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채택한다면,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직과

9) 이명환 외, 『항공우주시대 항공력 운용』(오름, 2010), p.34.

군사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찰, 감시자산 정보의 통합 운영과 전파체제의 구축이다. 정보의 문제는 한국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보도 전략 정보와 전술정보를 구분하여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융합하여 분석, 판단 후 전파하면 필요한 군에 대한 정보제공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융합도 중요하지만 각 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전파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C4I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이다. 모든 제대를 하나의 C4I 시스템으로 연결하다 보면 전략, 작전, 전술 제대가 함께 연결되어 뚱뚱보가 되기 쉽다. 전략, 작전, 전술제대를 구분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지배전략 수행을 위한 센서(ISR)-결심(C4I)-타격(PGM)중심의 네트워크를 전문화시켜서 가능한 다른 기능과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전략 개념에 의한 작전계획의 발전이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작전계획은 지상군 기동 중심의 계획이다. 새로운 차원에서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틀을 짜야 하나,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나 지휘부가 지상군 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항공작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휘관들과 전략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공중지배전략의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전장공간과 운용주파수관리 개념의 정립이다. 전장하면 공군은 하늘,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상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서 공중공간을 날아다니는 항공기, 헬기 외에도 장거리 미사일, 포와 각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등이 공간과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를 사용하게 된다. 전장 공간과 주파수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장별로 통제 책임군을 지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합참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주 사용군의 효율성을 저하하게 되므로, 주사용군에게 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중지배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의 건설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지대지 미사일을 개전 초부터 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전력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적지 종심작전의 자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 종심까지 침투하여 작전이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하여야 하고, 실시간 항공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ISR전력은 공군 중심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정보판단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거리와 장시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중급유 능력을 확보하고, 원거리 타격무기체계인 항공기, 미사일, 함대지 유도탄의 표적관리, 계획, 운영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이라고 하여 무조건 합참이 통합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실제 주 업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작전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즉, 공중공간을 활용하여 작전하는 공군이 주 작전을 수행하는 계획, 시행 및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지, 합참에서 통합한다고 하면 소수를 위하여 다수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Ⅵ. 결 언

현 상황의 대응에 급급하다 보면 시공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략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국방개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력 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먼저 정립하도록 하고, 전략의 기반위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군에서 많은 전략가들이 나오고, 좋은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타군들과 잘 융합하여 공군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필요한 조직과 군사력 증강사업들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가 있다.

공중지배전략은 공군중심전략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미래위협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전략이다. 북한의 전력이 전선에 있는 위협보다 종심지역에 위치한 위협이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한미연합전력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중전력으로 전 전장을 동시에 지배하여 북한의 위협을 통제하고 무력화하자는 현실적인 전쟁수행전략이다.

새로운 국방시대에 대한 제언

18기 사관 **이 선 희**
(전 방위사업청장)

Ⅰ. 서 언

현 정부의 국방관련 최대 과제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이다. 전작권 전환은 국방사에 획을 긋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방개혁은 두 가지 기본전제하에서 추진해야 한다. 하나는 한국군이 전쟁기획, 계획, 및 전쟁수행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획한 작전계획을 한국군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기획한 작전계획을 미국과 협의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기경보에 의해 준비된 전면전쟁보다는 우발 충돌, 국지도발, 또는 제한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력한 한미 동맹하에서도 상황에 따라 미 증원군 전개 이전에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한미연합체제에서 미 증원군 전개를 전제로 하는 과거의 국방 프레임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변화되는 새로운 국방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하에서의 새로운 국방환경은 새로운 국방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다.

Ⅱ. 현재까지의 국방개혁 프레임

먼저 과거 국방개혁의 프레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진솔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기조에 흐르는 방향성을 보면 두 가지의 지향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상군 중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군 중심주의를 완결시키기 위한 통합군 지향이다.

이러한 국방프레임을 갖게 된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창군이래 국군의 정책과 의사결정 라인 모두를 육군 및 육군출신 예비역이 장악해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작권을 가진 미국은 한국군은 지상군 전력 중심으로 미국은 해 · 공군 전력 지원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즉 지상군 중심주의를 신봉하는 국군의 중심세력과 한국군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자하는 미국과의 암묵적 합의가 오늘날 우리 국군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현 국방개혁프레임에 의한 한국군의 현주소는 노태우 정부시절 818계획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군 구조 변화의 흐름에 잘 나타나 있다. 818계획은 통합군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해 · 공군과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통합군 시도가 좌초된 것은 문민통제의 훼손을 우려한 여당 및 야당을 아우르는 정치권의 결사적 반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결국 국방참모총장제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당연히 헌법을 수정해야했으나 헌법수정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 실제적으로는 국방참모총장제로 전환하고도 명칭은 합참의장으로 존속시켰다. 합참의장이 전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후 좌초된 통합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육 · 해 · 공군 본부의 인사, 군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통폐합해 국방부, 합참의 직할부대로 배속하고 거의 모두를 육군 지휘관으로 보임시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개혁 의지에 편승하여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통합군을 향한 꿈에 방점을 찍으려 하였던 것이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의 국방정책 및 의사결정라인은 육군 및 육군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육 · 해 · 공군으로 균형 편성되어야 하나 중요 직위는 모두 육군위주이다. 육 · 해 · 공군이 존속하는 의미는 육 · 해 · 공군이 각각 타군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과 독특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 역할은 육 · 해 · 공군 고유의 독특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쟁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육군 위주의 참모 편성으로는 합동참모본부가 합동 전쟁기획, 계획, 수행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합참 참모편성의 불균형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태가 나타날 때마다 조직 구조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대 1대 1의 합참 참모편성 기준은 특정군에게 정책 의사 결정이 독점되지 않고 육 · 해 · 공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전쟁의 방식 또한 지상군 중심의 입체 고속전을 표방하고 해 · 공군은 지원세력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해 · 공군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육군의 군단 작전종심을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 시켜온 사실이다. 육 · 해 · 공군 간 합동작전을 도외시한 육군 중심 전쟁개념의 결과이다. 걸프전에서 전략가들은 다국적군의 전사자가 수만 명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수백 명에 그쳤다. 지상군 투입 이전에 해군의 토마호크와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117을 필두로 한 해 · 공군력에 의한 전략적 마비를 달성한 이후에 지상군을 투입한 결과라는 전사적 교훈을 외면하면 유사시 혹독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방투자비 또한 특정군 편중 현상이 잘 나타나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후 육군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육군 무기체계를 대폭 보강하면서 전투기 도입 예산을 축소하고 고고도 정찰기 도입과 공중급유기 도입을 한없이 뒤로 미루고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과 전략적 우위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따라 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방어할 수 없는 스텔스 항공력이 하늘을 장악하고 강력한 대양해군이 평양과 원산의 앞 바다에서 북한의 심장부를 위협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유사시 초전에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여 우리의 피를 절약하면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지상군 중심주의와 통합군 지향 결과가 국가적 수준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 번도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계량적으로 분석해보지 않았다. 이제 전작권 전환이후 새로운 국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한 새로운 국방프레임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Ⅲ. 국방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국방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지상군 중심주의와 통합군지향의 프레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낡은 국방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방프레임에 의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수행할 지휘구조개선과제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 수행능력 강화 과제로 본다.

1. 지휘구조 개선 과제

한미연합작전 지휘구조 설계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작전권 인수전 상부지휘구조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심각한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합동참모본부는 노태우정부시절 818계획시 이미 전작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휘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단지 현 연합사체제로 인해서 전시 작전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국과의 연합지휘체제이다. 연합지휘체제를 설계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고 도상연습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현 합참 조직에 플러스알파로 연합지휘조직을 편성하면 된다. 새롭게 구상되는 연합지휘참모 편성은 현재의 연합사 미군 측의 참모가 주한 미군의 참모를 겸직하는 것처럼 합참의 참모가 연합 지휘조직의 참모를 겸직하게 하면 장군 직위와 병력을 절약하면서 합참과 연합지휘 조직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될 수 있다.

2.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 수행능력 강화 과제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해야 할 강한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작권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합동작전교리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상군 중심주의와 통합군 논쟁은 합동작전교리의 부재 또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합동작전은 육 · 해 · 공군의 각기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을 기반으로 발휘된다. 육 · 해 · 공군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합동 기획, 계획 및 수행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리의 미비로 작전지역과 무기체계 개발 우선순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왔다.

둘째, 독자적인 합동기획, 계획 및 수행 능력을 개발, 확보해야 한다.

미국측 5027작전계획을 대체할 한국이 주도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우발충돌, 국지도발, 제한전 등에 대해 주한미군과의 연합전력 또는 최악의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 한미연합전력 전개이전에 전쟁이 종결될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셋째, 합동작전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합참의 참모편성을 육 · 해 · 공군 균형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편중된 참모 구성으로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은 불가능하다.

넷째, 주도적 전쟁 수행을 위한 제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확보가 시급하다.

공군의 경우 기본임무도 수행하기가 곤란한 수준으로 전투기 공백이 심각하다. 전투전력 보강이 시급하며 고고도 감시정찰 항공기 및 공중급유기는 북한 종심공격 능력 강화를 위한 현대전의 필수 전력이다. 한국군 단독으로 독자적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미 증원군 전개이전 한국군 전력과 주한미군전력으로 북한군에 대한 전략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다섯째, 작전지역 중복 및 무기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하부전투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시절 육군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지대지 공격 능력과 중고고도 방공능력을 가진 나이키, 호크로 장비한 육군 방공포사령부를 공군으로 전군 시켰다. 현재 공군의 작전영역과 중복되는 육군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부대의 공군 전환도 신중하게 검토할 과제이다.

여섯째,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와 효율적 집행이다.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긴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비의 효율적 투자이다. 국방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국방비확보가 가능하다. 국방비가 부족해 국방개혁을 뒤로 미룬다는 논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육성을 이루고자하는 군의 노력을 국민들이 지켜볼 때 비로소 국민들은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조직을 통폐합하고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것만이 국방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싸우는 방식을 전환하여

국방비와 병력을 절약하면서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한미동맹체제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한미연합체제 하에서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 미군 의존적 사고를 탈피해야만 한다.

전작권 전환을 기점으로 전쟁 대응 사고방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3. 개혁과제의 추진 방법

범정부차원에서 국방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방부 자체의 개혁은 한계가 있고 추진동력도 약하다. 군인이 수십 년간 경험해온 자군의 유니폼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군의 목소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 · 해 · 공 삼군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수준의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의 민간 국방 전문학자도 참여해야 한다. 현역 및 예비역은 육 · 해 · 공군이 동등한 숫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두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창의력을 겸비한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걸프전, 이라크전에서와 같이 새로운 전략개념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롭고 개혁적인 것이 필요하다. 국방 발전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춤추지 않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도 참여토록 하고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방정책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Ⅳ. 결 언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진지하게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야 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처음 3년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후기 2년은 새로운 국방태세의 정착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전작권 전환 직후 반드시 우리군의 전작권 행사능력과 국방태세를 시험하려 들 것이다. 새로운 국방프레임으로 국방태세를 확고하게 준비하고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새로운 국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규모 내부소요 발생시 유엔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기 사관 **박 동 형**
(인하대 교수)

1. 서 언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소위 재스민혁명의 불길은 벤 알리(Ben Ali) 튀니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정권을 전복시킨 데 이어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Gaddafi) 정권을 침몰시켰다. 특히 리비아에 대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카다피의 자국민 살해행위를 국제안보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유엔사상 처음으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1]원칙에 의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함으로써 카다피 정권의 몰락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왔던 나라들이었다. 북한에도 북아프리카에서 휘몰아쳤던 민중항쟁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북한의 체제 내에서 대규모 내부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유사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개입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국제사회의 규범 내지는 행동원칙으로서 "어느 한 나라가 자국 내의 민간인들을 대규모 살인 및 강간, 기아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만약 그 나라가 민간인들을 보호할 의향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동체(community of states)가 보호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2005년 유엔정상회담에서 이 개념을 유엔의 행동준칙으로 수용한 바 있으며 리비아 사태에 처음으로 이 원칙에 의거한 군사개입을 하였다. "2005 World Summit Outcome" UN Doc. A/Res/60/1(24 October 2005) 참조.

2. 북한에서의 대규모 내부소요 발생 가능성

북한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지도부가 적어도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적 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내부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정치적 대변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 정권으로서는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면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3대 세습으로 인하여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주민들의 삶을 과거보다는 낫게 해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경제적 미래가 매우 비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을 붕괴시킨 데 결정적 요인이었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체제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를 초래하게 되어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더하여 북한 관리들의 고질적인 부패 행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 약해지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시장의 확산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장마당은 주민들이 식량이나 생필품을 사고파는 곳이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북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교환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의 대정부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북한 주민들이 핸드폰, CD, USB, 라디오 등을 통해서 외부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에는 약 100만대 이상의 핸드폰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핸드폰 사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남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수 있고,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평양 주민들과 자신들의 생활수준의 차이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발달된 정보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인권상황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투쟁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2)]

2) 1997년 황장엽의 망명 사건도 당시 북한 지도층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이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김근식,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당내갈등" 『통일문제연구』 '99년 하반기 호(통권 제32호), pp.73~82.

앞으로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혁적인 정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군정치를 지속하는 한 국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 사이에 개발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핵심 간부들 사이에 파벌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고 국가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경제개발정책은 시행착오만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내부의 대변혁 요인은 군부의 충성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찰스 틸리(Charles Tilly)가 "군대의 반란 없이 성공하는 반란이 없다"고 단언했듯이[3] 이런 관점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그동안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인민군 내에 노동당의 정치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해 군대를 장악하는 한편 군 지휘관들에게 선물과 진급을 이용하여 충성심을 불러일으켰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군대 예산과 보급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군대에 베풀어왔던 경제적 특혜를 걷어 들여야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부의 불만도 누적될 것이다. 앞으로는 변방의 일반 군인들이 김정은의 호위를 담당하는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대우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인민군 장성들 사이에도 파벌이 조성될 수 있으며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그동안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사건사고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민중 소요사태가 가끔 발생했었다. 예를 들면 1987년 5월 온성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이 폭동을 일으켰지만 북한군이 폭동 참가자 5,000여 명 전원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1998년 황해북도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의 폭동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보위사령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까지 동원하여 폭동 가담자들을 모두 살해했었다고 알려졌다.[5] 2010년 3월 30일 원산에서는 "화폐 개혁한답시고 뺏어간 돈을 달라. 쌀을 달라"고 주민들이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사건이었기에 무질서한 시위에 그치면서 주민들은 사회안전부의 무력진압에 곧 힘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6]

---

3) 찰스 틸리(진덕규 옮김), 『동원에서 혁명으로』(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5), p.339
4) 1990년대 초 소련 유학파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1994년 북한 인민군 제6군단에서는 군단 정치위원과 보위장교들이 주동이 된 쿠데타 시도가 발각된 바 있다.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47호(2009.11), p.57.
5) 주성하, "직접 목격한 북한 노동자 폭동, 탱크로 밀어버린 현장은…" 『동아일보』(2011. 1.21).
6) "북 원산에서 대규모 폭동" 『인터넷 독립신문』(2012. 5.7)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1419

상기와 같은 사건들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될 경우 마치 핵분열 물질이 임계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약간의 중성자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듯이 소수의 "선각자의 선택"을 통해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7)]

3. 북한에 대한 UN의 보호책임 적용가능 상황 및 한계성

만약 북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북한정권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UN이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에 무력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북한 내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고 군대를 비롯한 제반 보안기관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소요사태는 비교적 단기간에 제압될 것이므로 UN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민중 시위가 확산되어 내전으로 비화하고 리비아에서처럼 군부를 포함한 엘리트 계층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UN의 '보호책임' 원칙에 입각한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인명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장된 사회인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디아푸르(Darfur)사태 이상의 끔찍한 비인도적인 사태로 발전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하여 전국의 요새화와 전인민의 무장화 등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총 119만 명의 상비전력 외에도 770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봉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기 통제기능이 약화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혼란상황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방치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나 주변국 혹은 인도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제 NGO들이 UN에 보호책임 개념에 입각한 군사적 개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도적 상황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

7)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전략』 2012년 제18권 1호. 이석도,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급변사태에서도 변화요인이 누적되어 어느 시점에서 표면화 하는 "질량의 변화" 시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년대담〉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변화 전망과 남북관계."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월호. pp.2~43.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은 외적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부 압력이 팽배해지면 쉽게 붕괴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Jan. 2009, CFR).

고 있다고 하더라도 UN이 리비아에 대해서처럼 먼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은 실현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위기 수습기능을 상실하고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유엔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사태에 대한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먼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특히 중국이 이 문제에서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많은 제3세계국가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아랍국가들의 개입 압력 때문에 기권을 했을 뿐이다. 더구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서방국가들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북한 개입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당국의 내부 사태 수습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무책임한 반도들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수중에 들어갈 위험이 있거나 대규모 북한 난민들의 중국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협력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의 위중한 사태 전개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인도적 개입문제가 빨리 결정되지 않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중국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8] 그러나 중국 단독으로 북한 사태에 개입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UN의 승인 아래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에 인접한 지역으로 군대를 배치시키고 개입 훈련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의 우발계획에 의하면 ①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획득과 핵 오염사태 발생 시 환경 통제, ②난민 및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등 인도적 임무, ③평화유지 혹은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9] 만약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야에 개입했을 때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8) CUSK. "North Korea Contingency Planning and U.S.-ROK Cooperation" (Sept. 2009), http://asiafoundation.org/resources/pdfs/DPRKContingencyCUSKP0908.pdf(검색일: 2012. 5.7)

9) Bonnie Glaser, Scott Snyder, John S. Park,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m and Stability in North Korea", A CSIS Report(January 3, 2008). p.19. http://www.usip.org/files/resources/Jan2008.pdf(검색일: 2012. 5.8).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미 연합군도 북한지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인지 혹은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진입 대신 비군사적 방법으로 중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선에서 항의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4.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받아 '보호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사태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리비아 사태에서처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북한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UN사무총장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북한 정부가 유엔 차원의 설득에 호응하지 않거나 사태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사태에 관하여 결의문 1970호를 채택했던 것처럼 북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함을 적시하고 우선적으로 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군사적 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해외자산 동결, 북한 지도층의 해외여행 금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이 유엔결의문을 무시하고 시위대에 대한 비인도적 공격을 계속할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더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에서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북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력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군의 지휘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핵무기를 비롯한 주요 대량살상무기를 신속정확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N 주도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사태 수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UN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국적군의 구성이나 규모, 대응수준 등은 북한 정권의 의지나 상태, 다국적군에 대한 저항 정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국가는 리비아에서의 경우처럼 대개 한반도에 국가적 이해가 많이 걸려있는 나

라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인접하여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한국 및 미국 그리고 중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들 국가는 최단시간에 충분한 전력을 북한에 투입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북한 사태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사적 개입에 찬성한 만큼 한 · 미 · 중 3국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호 국가이익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력하여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10)]

북한 군대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정부 상황이 되었다면 UN은 지상군으로 편성된 유엔평화유지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연대하여 취약 계층 주민들의 생활지원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UN 평화유지군은 UN회원국들 중 자원하여 참여하는 국가의 군대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미 다국적군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다국적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전환하여 질서 유지, 난민 보호, 인도적 지원, 무장해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 점에서 UN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한국정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UN 평화유지군 활동에는 한국군이 가급적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되 북한 주민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및 일본 전력은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11)]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원칙 적용문제가 논의될 때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인해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나아가 군사개입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유사사태는 한국이 추구하는 점진적인 북한 변화나 통일에 대한 접근과 상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이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사전 외교적 설득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혼란상황을 이용하여 통일을

10) 정경영,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Strategy 21』 통권 제25호, Vol. 13. No. 1(Summer 2010). 중국은 이미 한·중 국경지역에 15만 명 정도의 정예부대를 전개해 놓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5만 명 정도를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신속대응부대는 위기 발생 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북한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분쟁 발생 약 6개월 후 결의안 2009호를 통과시켜 '유엔지원단(UNSMIL: UN Support Mission in Libya)'을 설치하고 리비아 임시정부를 지원하여 리비아 내의 공공안보와 법질서를 회복시키고 정치적 대화를 촉진시켜 사회 통합과 선거기반을 다지도록 하며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UN Doc. S/RES/2009(16 September 2011) 참조.

추구하지 않을 것임과 주한미군전력이 현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을 돕고자하는 한국 국민의 진정성을 공식적인 외교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하면서 북한의 고통 받는 주민들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결 언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에 기초한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치밀한 주민감시체제를 통해 대규모 민중 저항운동을 막아 왔지만 카다피 체제의 붕괴에서 보듯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조그마한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 대규모 내부소요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시위대를 제압하려할 것이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 내 인명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국제적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대량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면 중국도 UN이 중심이 된 군사개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 · 안보적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회원기고

-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 이광학
  - 11기 사관, 임관 50주년을 맞는 소회와 소망 / 서봉철
- 2012년도 탑건 소감문 / 이형재
-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 허 환
- 정부 3.0세대, 공공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 최영훈
- 서라벌에서 온 편지 3 / 이종학
- 아버지 김무영의 발자국을 찾아서 / 배기준
- 공사십훈에 대한 소고 / 김석천
- NOTES FOR YOU / 박성국
- 남겨진 그들과 함께한 시간 / 고준기
- 버리는 자 거두는 자 / 이달호
- 인생 3막 / 김삼교
- 좀비생도의 후회 44년 / 변희룡
- 천 번을 듣고 천 번을 불러보자! / 이철희
- 3차원, 4차원 그리고 영원 / 이봉길
- 역사적 명연설이 주는 교훈 / 문태일
- 퇴역군인의 새로운 고향 / 이치훈
- 국방보훈클럽에서 진정한 봉사활동을 전개 / 장창연
- 세계 8대 불가사의, '라이스 테라스'를 다녀오다 / 유원봉
-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최광섭
- 등산을 통해 전우애를 다진다 / 임흥규
- 자랑스러운 빨간 마후라와 공군순직조종사 부인회 / 이명자
- 현충일 참배 / 이윤우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11기 사관 **이 광 학**
(공군전우회장)

친애하는 이영만 교장님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여러분!
공사 총동창회 이기동 회장님을 비롯한 20기 사관 임원 여러분!

오늘 11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성대한 기념행사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선배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처럼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해 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11기 사관이 임관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지난 50년은 격동과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 · 25전쟁 이후 복구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연명했던 최빈국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도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적적인 국가발전의 바탕에는 전쟁억제 핵심인 우리 공군이 한 치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영공방위로, 국가안보의 한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 11기 사관이 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늠름한 후배사관 생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50여 년 전, 우리들을 투영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소회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모한 도발은 우리의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과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전통적인 전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전군파괴 중심의 작전에서 공군과 해군력을 이용한 정밀유도폭탄으로 적의 심장부인 국가와 군사지휘부의 지휘통제 및 통신시설 등 적의 군사능력을 무력화시킨 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상군이 적지를 점령하는 형태로 바뀜으로써 각 군의 독립적인 작전영역 또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주변국과의 분쟁이나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국지전은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의 핵심도 공 · 해전력 운용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유일한 대응수단도 공군력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전쟁양상을 비춰볼 때 공군의 본질적인 전략성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현대전 양상과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전략공군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미 의존적인 국방정책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군사력이 건설되어 3군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이 부여 받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군 고유의 역할과 특성에 걸맞게 공군력 건설이 이뤄져야 하고, 공군력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독자적인 작전영역에 대한 고유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합동성 강화는 조직의 통합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 · 해 · 공 전력의 전문성과 고유성이 고도화될 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체의 3체인 고체, 액체, 기체는 그 영역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것처럼 그 독자적 영역은 분명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공법학자 게오르규 옐리네크(George Jellinek)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중되어야 할 사안이 존중받지 못할 때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일찍이 공군의 선각자들은 공군력 고유의 본질적인 전략성을 인식하고 병력 1,600여 명과 경비행기 20여 대로 육군으로부터 공군을 독립시켰습니다. 우리 공군인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헌신적이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더라도 기꺼이 수명하여 마침내 그 완결을 성취하고야 말았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권리는 고귀한 소명이요, 의무입니다.

저 서쪽 박물관 옆에 건립된 '영원한 빛' 추모비에는 공군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했던 우리의 숭고한 영령들께서 전투작전과 훈련에서 소임을 완수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순간을 한분, 한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조기에 승리하기 위해 영공방위에 전력을 다하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군의 임무완수를 위한 역할은 절대 보장되어야 하고, 확대된 공군의 역할에 걸맞게 공군력은 절대적으로 증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여된 과제는 맨손으로 공군을 건설한 선배들의 빨간마후라 정신처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불굴의 투지로 노력해야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사관생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숙명적으로 21세기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군에 근무하는 동안 통일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한 공군을 건설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도시절 그리고 임관 후에도 배움에 있어 더욱더 정진할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우리 11기 사관 또한 우리들의 영혼의 기지인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50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한 공사인으로 전우애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공군사관학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성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동기생을 못내 아쉬워하며 그분들의

명복을 충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뜻 깊은 자리를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마련해준 총동창회 이기동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 그리고 학교장 이영만 장군님과 지휘관, 참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생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축하해주고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사관학교와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사관생도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11기 사관, 임관 50주년을 맞는 소회(所懷)와 소망(所望)

11기 사관 **서 봉 철**
(경영학 박사,
전 숭실대 부총장)

공군사관학교 11기 사관이 올해로 뜻 깊은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였다. 1963년 2월,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대방동 성무대에서 11기 사관은 "조국 영공 수호를 위한 국가의 간성으로서 그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에 대한 뜨거운 충정을 다지며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푸른 창공과 우주를 향해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았던 반세기의 연륜 속에서 함께 환희(歡喜)를 느끼고, 비통(悲痛)함을 함께 나누며, 분노(憤怒)도 함께 하는 이른바 희로애락(喜怒愛樂)과 동고동락(同苦同樂) 및 애증후박(愛憎厚薄)의 동지애와 전우애를 다져온 우리 공사 11기생 모두는 임관 50주년을 맞는 감회가 실로 새롭게 느껴진다.

[생도생활 4년간의 교훈]

1959년 2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1기 사관은 각자 나름대로의 동기(motivation)와 청운(靑雲)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 공군사관학교의 정문을 들어섰다. 아직은 봄기운을 느낄 수 없었던 2월이라 날씨가 매섭고 추웠다. 추위에 떨며 전동차의 대방역에서 하차하여 학교까지는 교통수단이 없어 걸어가야만 했고 걸어서 약 한 시간 거리였다. 물론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된 황톳길이었다. 학교정문을 지나 교내 비포장 길을 걸어 입교 수속처에서 입교수속을 하며 동기생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고등학교 학생교복 차림의 입교생이 다수였지만 신사복의 바바리코트 차림의 재수생도 함께하였다. 입교수속을 마친 후 며칠간의 가입교 기간을 거쳐 84명의 11기 사관이 당시 신상철 교장님께 정식으로 입교선서를 함으로써 4년간의 생도생활이 시작되었다. 공군사관학교는 한국 공군이 창군되기 전인 1949년 1월 14일, 경기도 김포에서 육군 항공학교로 창설되어 그해 6월 10일에 제1기 사관 97명이 입교하였다.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에 따른 공군의 창설로 육군 항공사관학교가 공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학교가 수원, 성남, 대구, 제주도 모슬포 기지를 거쳐 마침내 1951년 5월 1일에 경남 진해 장천동 기지로 이동하였다. 1958년 12월 12일, 서울 대방동 기지로 이동할 때까지 6년 간 제1기 사관을 시작으로 제6기 사관까지가 진해 기지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임관하였다.

한편, 공사 10기 사관까지는 진해에서 입교하였으나, 우리 11기 사관은 수도 서울의 대방동 소재 공군사관학교에 최초로 입교한 자긍심을 갖고 진해의 가교사와는 비교 안될 만큼 좋은 교사와 시설에서 생도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그후, 사관생도의 엄격한 생활규범과 한 치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 일상과 육체적 시련이 연속되는 생활이 4년간 지속되었다. 특히, 1학년 최하급생도인 메추리의 혹독한 군사훈련 및 24시간 긴장 속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무생활과 절도 있는 행동의 교육 훈련 및 한계상황의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무장구보훈련, 해양훈련 등은 민간인 11기 사관들의 나약한 사고(思考)와 타성(惰性), 그리고 자유분방했던 행태(行態)를 근절하였으며, 강인하고 용감한 필승(必勝)의 군인정신으로 개조하였다. 한편 1959년 2월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공군과 연을 맺고 군인의 길에 들어선 우리 11기 사관은 "무용(武勇)"이라는 교훈아래 호국의 간성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관과 군인으로서의 사생관과 명예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공사십훈(空士十訓)"에 담긴 뜻을 음미하고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무용이란 '무예(武藝)와 용맹(勇猛)을 나타내는 말로 싸움에 임해서 용맹스러움'을 뜻한다고 하며, 중국 사기(史記)에 따르면 '강직하고 굳센 정신'이 무용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용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숭고한 사명을 맡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귀중

한 정신적 가치이다. 한편 공사십훈(空士十訓)은 사관생도들이 장차 장교가 되어 부대를 지휘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요 성무인의 영원한 정신적 실천가치로 높이 평가된다. 이와 같이 우리 11기 사관은 4년간의 "무용(武勇)"과 "공사십훈(空士十訓)"의 교훈아래 군인으로서 국가관과 민족관, 그리고 사명감 등을 정립하고, 성무인의 영원한 실천적 가치를 갖추는 한편, 교수부의 일반학 교육에도 참여, 일반대학 수준의 강의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법륜, 기초과학, 기계, 재료공학, 항공 공학 등의 제반 학문분야의 전문지식도 배우고 익혀 국가의 간성으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부족함 없는 능력과 기량을 갖추고 임관하게 되었다.

[졸업 및 임관후 소임완수(所任完遂)에 진력(盡力)]

1963년 2월, 공사 11기 사관은 4년간의 사관생도 교육 · 훈련의 정규 교과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제적된 17명을 제외한 67명이 마침내 졸업과 동시에 이학사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공사의 선배 기수 중에는 졸업 및 임관 전인 생도 4학년 때에 초등비행훈련 과정에 입과하였으나, 우리 11기 사관은 임관 후 현역장교로 80%가 1차반과 2차반으로 각각 초등비행훈련에 참가하였고, 20%는 공군본부의 초급장교 인사운영 충원계획에 따라 각 특기별 부서에 배정 · 배속되어 소임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후 공사 11기 사관은 공군 현역으로 임관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한 공군이 우주공군(宇宙空軍)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기여하고, 예비역으로 전역하였다. 특히 임관 후의 지난 30여 년간을 돌이켜 보면, 공사 11기 사관이 위관(尉官)과 영관장교(領官將校) 시절인 1960년의 중 · 후반부터 1970년대의 말기까지에는 국가적으로 5 · 16 혁명 이후 경제의 성장, 발전 계획에 따라 산업화의 본격적 추진과 동시에 자주국방 능력의 제고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각 군의 상황은 독창적 창조성(創造性)이 강조되었으며 우리 공군의 직무수행 환경도 질적 면이나 물리적인 면에서도 오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으나, 우리 11기 사관은 공군의 현장 실무에서 또는 지휘관리업무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며 사관학교 교육에서 얻은 지혜를 기초하여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또한 강인한 인내와 투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임을 완수하여 11기 사관의 긍지를 더 높였다.

한편, 우리 11기 사관의 공군 현역 복무기간에 수행한 구체적 역할과 실적을 보면, 우선 지휘관 보직으로 전투비행단장, 훈련비행단장, 공수비행단장, 항로보안단장, 공사생도전대장, 공사부교장,

공사교장, 공군교육사령관, 공군군수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공군본부 주요 참모 보직으로는 인사참모부장, 정보 · 작전참모부장, 군수참모부차장, 시설감, 통신감, 헌병감, 정비처장, 무장처장 등의 공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의 보직에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진 공군의 지휘 ·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군을 현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11기 사관은 개인별 현역 복무 기간에 따라 소속부서 및 소관분야의 발전에 진력하였고, 공군전략의 지휘 · 관리체제의 선진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공군(宇宙空軍)으로 성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결코 잃을 수 없다.

또한 공사 11기 사관의 임관 50주년, 지난 반 100년의 연륜을 오늘에서 돌이켜 볼 때 현역 복무 기간이 10여 년간의 연륜에 묻어 있는 11기 사관의 예비역, 사회 환생인으로서의 활동, 즉 산업사회에서 민주화 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국제화(세계화) 사회로 한국 사회가 변천, 발전하는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1기 사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숙련된 조종사들은 현역 복무에서 전역과 동시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 민항에 초빙되어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장으로 또는 항공사의 중역으로 우리나라 민항의 발전과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현역에서 부대별 지휘관이나 고위 참모직에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발휘하여 높은 성과를 실현해 내던 장군출신들과 그 밖에 일반 특기별 관리자로 복무했던 일부 11기 사관 출신들은 전역 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맡은바 소임에 전념하여 사회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11기 사관 출신중에는 임관 후 공군의 교육현장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에 매진하여 공군의 교리발전에 많은 업적을 쌓았으며, 현역복무 시에 또는 전역 후에 국내외 일반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외 일반대학교의 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수년간 학문적 연구와 후진 교육에 봉직하다가 65세로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한 동기생들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공사 11기 사관이 임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50년 기간 동안에 각자의 소관분야에서 직면했던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굴절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하여 현역 복무를 마칠 수 있었으며, 또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54년 전인 1959년 30대 1의 경쟁률을 극복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 이후 4년간의 사관생도 생활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인성과 전문성 그리고 한계상황 극복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강인하게 단

련된 상무정신과 체력이 밑거름이 되었고, 군에서 배웠던 경험과 지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11기 사관들은 항상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에 깊이 감사한다.

[11기 사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와 불령계곡]

흰 구름 두둥실 떠가는 높은 하늘 아래 향기로운 꽃들이 반가운 5월, 이달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 3일 아침 8시 20분에 11기 사관 동기생들이 부인들을 동반하고 성남 비행장에 모여 관광버스 2대에 편승, 청주 공군사관학교로 출발했다. 이날 멀리 캐나다에서 이창환 재사가, 그리고 미국에서 남희수 특사도 오래간만에 날아와 동참했다. 드디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대에 도착하여 교장과 공사총동창회 회장, 그리고 학교 참모들의 환영 및 축하 인사를 받으며, 성무대 연병장 사열대에 올라섰다. 푸른 잔디 연병장에 절도 있게 정렬한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사관생도 후배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공사교장의 공사 11기 사관 임관 50주년 기념 축하 및 환영사로 시작되어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인 이광학 장군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우리 11기 사관들을 성무대로 초청해 준 공사총동창 회장의 축사는 감명 깊었다. 우리 공사출신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곳 성무대 사열대에 함께하지 못한, 아니 함께 고향을 찾아오지 못한 17명 11기 동기생 전우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는 모습들은 평소와 달리 숙연해 보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에서 우리의 영원한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의 미래 지향적 발전기금으로 이광학 준비위원장이 일금 1천만원, 11기생 동기회 이름으로 김달수 동기 회장이 1천만원, 개인적으로 허차동 장군이 1천만원, 그리고 김용찬 교수가 1천만원 등 일금 4천만원을 각기 공사 교장에게 전달하고 이어 사관생도들의 임관 50주년 축하 열병, 분열을 받았다.

70대 중 · 후반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선 백발의 노신사들이 사열대에서 당당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사관생도 후배들의 절도 있고 정연한 열병, 분열을 참관하는 모습은 성무대 전체를 배경으로 한 한 폭의 천연색으로 물들인 동양화처럼 그윽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굉음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공군 블랙이글(Black Eagle)팀의 축하 곡예비행은 실로 환상적(fantastic)이었다. 성무대에서 임관 50주년 기념 사열대행사가 끝나고 공사교장이 준비한 오찬에 참석했다가 공사박물관을 시작으

로 성무대 캠퍼스의 시설과 주변 환경을 두루 돌아보면서 옛 대방동 성무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공사출신의 자부심을 흐뭇하게 되새기며 부산 해운대로 향해 출발했다.

오후 6시경 해운대 수영만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린나래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의미를 지닌 그린나래호텔은 해운대의 멋진 청정해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공군에서 건축한 공군 현역과 예비역에게 제공되는 특급 호텔이다. 호텔에서 저녁 만찬을 즐기고 관광버스에 올라 부산 광안대교의 야경을 관광하고 삼삼오오로 룸메이트가 되어 지난 50년간의 추억담으로 밤새는 줄 몰랐다.

다음날 5월 4일 아침 7시에 조촐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해운대 수영 만에 펼쳐진 검푸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다 공기를 만끽하면서 해운대를 떠나 동해의 연안 항구 도시인 울산과 포항을 거쳐 영덕 인근에서 불령계곡으로 접어들었다. 태백산맥의 말단에 험한 산세 속에 개발된 불령계곡의 주변환경은 감탄의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절경이었다.

불령계곡 절경에 혼을 빼앗긴 일행은 그 시간이 지루한지 모르게 봉화에 도착, 도립 산림야영장 계곡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김용찬 교수의 펜션형 농장에서 준비된 음료수와 다과로 오찬을 넘긴 시장기를 일단 해결하고 봉화시로 나가 인삼을 먹여 키웠다는 한우고기 갈비 집에서 푸짐하고 넉넉하게 저녁식사를 포식했다. 이날의 저녁식사비는 일체를 김용찬 교수 부부가 후원하였으니 이렇게 감사할 데가 없었다. 평소에 동기생들을 배려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의 덕성이 그날따라 더욱 존경스러웠다. 저녁식사 후 봉화를 출발하여 서울 성남비행장을 경유하여 각자 귀가하였으니 그 시간이 밤 10시경이었을 것이다.

이제 공사 11기 사관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11기 사관 모두는 다시 한 번 우리의 모교 공군사관학교와 선·후배 성무인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하며, 노년의 삶을 끝마치는 그날까지 자랑스러운 성무인으로서, 또한 성실한 국민으로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11기 사관 동기생들과 전우애를 끝까지 간직하면서 우리 공사 11기 사관 모두가 앞으로 나라에 계속 충성하고, 가정을 건전하게 지키고, 자신들의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하는 "나.가.자!"의 구호를 제창하여 11기 사관의 남은 인생의 낙조(落照)가 우리 모두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기를 소망한다.

2012년도 탑건(TOP GUN) 소감문

47기 사관 **이 형 재**

남보다 겁이 많아서 롤러코스터도 못타던 한 소년이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사관학교 시험에서 감독관으로 입회한 생도에게 명예제도를 전해 듣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 지더라도 변치 않는 소중한 가치, 명예를 추구하는 곳이라면 인생을 걸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명예로운 조종사가 되어보자!'

이렇게 '명예로운 조종사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하늘에 대한 꿈 하나로 힘든 생도 생활을 보내던 시절, 동기들끼리 비행훈련에 대한 고민을 토로할 즈음, 어느 누구도 그가 고된 비행훈련을 수료하고 조종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더딘 운동신경으로 체육 성적에선 매번 최하위를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운동신경과 비행과는 관련이 적다고 한들, 그가 겪은 조종사가 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위가 약하고 어지러움이 심해서, 새로운 기종에 적응하기까지는 목을 타고 넘어오는 구토를 참으며 매번 비행에 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짐했습니다. '내 비록 땅에선 느렸으나 하늘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날으리라!' 그러던 그가 대한민국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키는 전투조종사로 성장하여 조국 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의 현장에서 비행하며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던 울분, 사랑하는 동

료, 선 · 후배들을 하늘에 떠나보내며 참아야 했던 비통함을 삼키며, 전투조종사가 되어, 아니 군인으로 성장하여 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천억 재산에 몸을 맡기고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혜택 받은 군인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꿈꿔보기도 과분했던 탑건(TOP GUN)에 선발되었습니다. 공군의 탑건 선발은 과거 사격성적만을 기준으로 한 최고사격수와는 달리, 최근에는 사격, 국가급 행사 및 주요훈련참가, 포상, 근무성적 등 비행생활 전반을 평가한 최우수조종사의 성격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조국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키는 행복한 군인으로 만들어준 공군, 그리고 나에게 명예라는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심어준 공군사관학교 덕분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묵묵히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 선 · 후배 조종사들의 지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늘을 사랑했기에 먼저 떠나야 했던 순직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가능훈련 교관님이 고난도 야간 훈련 중 순직하셨고, 생도시절부터 멘토(mentor)로 자리해준 선배님께서도 역시 에어쇼 도중에 산화하셨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하늘을 비행하며 오늘도 다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하늘을 넘보지 못하게 할 것임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나의 군 생활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종 축하비행과 합동화력시범, 정밀유도무장 폭격훈련, 미 본토에서 운영하는 전시상황을 가상한 항공전역훈련인 레드 프레그(RED FLAG)와 국내에서 해외 참가여건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맥스 썬더(MAX THUNDER) 항공전역훈련에 타국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 참가 등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통해 조종사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임무의 준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동료, 선 · 후배들은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임무완수라는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건이라는 과분한 사랑을 팀이 아닌, 나 개인이 받게 된 것이 이런 많은 도움을 주신 주변 분들에게 송구스러움과 동시에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 대한민

국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탑건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동료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행운이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생활하겠습니다. 나아가, 전투조종사로서의 본분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영공방위 주 임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의 도발에는 굴복할 때까지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술전기 연마에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끔 격려해준 102대대원과 정비 · 무장 지원요원에게 감사드리며, 내가 비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아내 민경진과 두 딸 봄에, 봄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61기 사관 **허 환**

언제나 갈망하고 바라왔던 사관학교의 입교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사관학교를 입교하고 졸업한 대부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 왔겠지만 나 또한 누구보다 푸르고 거창한 꿈을 품고 학교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늘 즐거웠던 기억만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힘들었던 순간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며 내가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사관학교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나열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기에 난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자부하는 장교가 될 것이다. 뜻밖의 졸업 수상으로 난 대표보라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물론 성적이 월등하여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받은 상은 아닐지라도 난 그런 상보다 내가 받은 이 수상이 더 뜻 깊은 의미를 지녔다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싶다. 수상의 여부는 동기생들의 투표와 훈육회의를 통해서 수상자가 결정되었으며, 난 대표보라매상 수상이라는 후보자에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결코 헛되지 않은 사관학교의 생활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100명의 우군보다 1명의 적군이 더 무섭다는 것을 항상 새기며 생활했고, 내가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에게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겨지기를 더 원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늘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에게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고 화내며 찌푸리기보다는 웃으며 환하게 상대를 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무심코 던졌던 내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허나 겉으로 내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함께 끝까지 믿어주고 받

쳐주던 동기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런 동기들이 내게 준 상이기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지니며 장교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대학부터 애초 다른 길을 걸어왔고, 소수점 몇 되지 않는 학점에 목숨 걸며,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목에서 고민하는 친구들과는 다른 대학교 생활을 했다. 물론 내 미래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남들처럼 1, 2점에 목숨 걸며 치열하게 살지 않았던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취업에 목매던 친구들의 시간은 내게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되었고, 아직도 꿈을 정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고민은 내겐 꿈을 더 키워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종사가 되고자 했던 유년시절의 꿈이 막연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사관학교에 들어오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누구나 될 줄 알았던,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새삼 실감하고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에 책만 부여잡고 살았던 생도생활은 아니었지만 성공은 성적순이라는 말에 공부를 놓고 살지도 않았다. 해야 할 공부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던 만큼의 성적만 거둘 수 있었다. 책상에 앉아 책을 보던 시간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동기들과 함께 운동장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다. 머리를 움켜지며 글과 싸웠던 날보단 운동장에서 몸을 부딪치며 싸웠던 기억과 추억이 더 많았고, 그렇게 운동으로 쌓인 동기들과의 우정과 믿음이 사관학교를 대표하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꼭 받아야만 했던 상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뛰어난 동기들도 많았고 내가 아니어도 61기를 대표할 인재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 많은 동기들 중에 내가 받았다는 사실에 결코 자만하지도 않거니와 61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닌 61기 모두임을 밝히고 싶다. 대표보라매상은 한명에게 주어졌지만, 사관학교를 졸업한 61기 모두가 보라매가 되었으며 대표할 만한 인재들로 성장했다. 그렇게 함께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웃고 울 수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주어야 할 상이었고, 난 그 상을 전체를 대표하여 받았을 뿐이라 생각한다.

사관학교의 입교는 나의 꿈을 향한 출발점이 되었다면, 사관학교의 생활은 내 꿈의 거름이 되었

고, 사관학교의 졸업과 수상은 나에게 큰 발판이 되었다.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시며, 항상 말없이 웃음으로 응원하시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믿어주고 감싸준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배울 점이 부족했으나 늘 잘 따라준 후배들과 살갑지 못했던 후배의 모습을 지닌, 나를 아껴준 선배들에게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61기 모두가 모여 생활했던 사관학교의 생활과는 다르게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교들이 되겠지만, 언제나 하나같았던 61기 모습 그대로 늘 함께 하길 기원하고 대표보라매상 수상에 걸맞게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정부 3.0세대, 공공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30기 사관 **최 영 훈**
(공본 정훈공보실장)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부 3.0시대가 열렸다. 정부 3.0시대는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이 핵심가치이며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공공커뮤니케이션도 흐름의 대세인 쌍방향 소통을 지향한다. 대중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공감의 과정을 이 시대 공공커뮤니케이션은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의 홍보도 그러하다. 그동안 '강하고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계몽적 요소가 강했었다. 국민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함께 공감할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군의 홍보는 점차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이 군 홍보, 나아가 공공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일대 획을 그은 쾌거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레 밀리터리블'이다. 패러디 영상물인 이 작품은 정훈공보실 미디어 영상팀이 공군 공식 블로그인 『공감』에 게재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이었다.

이 콘텐츠가 동영상의 보고인 유튜브에 조회 수 500만에 육박하는 히트상품이 됐고, 국내외 언론에 400회 이상 소개되었다. 외신에서는 '제2의 강남 스타일'에 비유하며 호평했고, 영상을 제

작한 김경신 중위, 정다훈 중위, 그리고 출연했던 장병들은 한 달에 걸쳐 20여회의 방송출연을 하는 등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대한민국 공군을 홍보하는 뉴스가 언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BBC에 보도된 적이 있었겠는가? 심지어 아랍의 '알 자지라' 방송에까지.

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작품의 성공 요인은 독자적인 기획과 자유로운 제작환경을 가진 팀에서, 공공기관 홍보 콘텐츠로는 흔하지 않은 패러디 장르로, 당시 가장 주목을 받던 작품과 연계한 시의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유명 소설가 한분이 자신의 생각공유 사이트인 트위터(twitter)에 표현하였듯이 '아픔의 해학', 즉 힘들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유머코드로 풀어냈다. 마지막으로는 억대 제작비 광고필름(CF: Commercial Film) 수준과 맞먹는 질(Quality) 높은 작품이었다는 것이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번(Eric Berne)의 '교류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 사이의 교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순환한다고 한다. 상호 목적과 성격을 공유하는 '이해' 단계, 관계의 실질적인 절차와 의례들로 이루어진 '행위' 단계, 교류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교류에 대한 암묵적인 선택을 결정하는 '성과' 단계가 그것이다. 이런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도입하면 이해를 다시 공감과 이해로 구분한다. 커뮤니케이션 주체나 콘텐츠에 대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공감이 생긴 뒤에나 이해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광고를 보고서 마음이 움직이면 제품에 대해 더 알아보고, 구매하며, 이후에 그 제품이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레 밀리터리블'의 성공적인 확산을 통해 공군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함께 상승했으며, 긍정적 여론이 확대되었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었다. 이전의 평범한 수준인, 공군은 국방의 임무가 있어서 존재하는 당위적 존재에서 이제는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 호감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군은 성실한 납세자인 동시에 우리 군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완벽한 영공방위를 위한 전력증강 즉, F-X, 대형수송기, 공중급유기 도입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훌륭한 자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장담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 때, 국민들이 평소에 가진 공군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매우 다를 것이다.

'레 밀리터리블'이 입증하였듯이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공감과 이해이다. 같이 느끼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군에서 최근 저염식, 천연조미료, 금연, 자살예방 등 힐링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건강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국민들과 이야기하며 함께 답을 찾아나가자는 소통의 과정이다.

정부 3.0시대 공공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이러한 열린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공공커뮤니케이션 에디터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레 밀리터리블'의 시작도 여기에 있다. 우리 공군 정훈공보실은 '레 밀리터리블'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면서, 공군의 외연확대를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서라벌에서 온 편지 3

-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

3기 사관 **이 종 학**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겸임교수)

박 형, 그동안 건강하였다니 반가운 소식이었소. 그런데 박 형이 보내준 편지 속의 다음 내용은 지난날의 생도생활을 더욱 회상케 했습니다. 즉,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교수는 요즘도 졸업을 맞이하는 4학년 생도들에게 특강 「군사고전의 지혜를 찾아서」를 강의하면서 옛날 생도시절의 어려웠던 체험을 얘기한다는 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어떤지?"

최근의 3기사관 회보지(2012. 11. 26)에 의하면, 생존자 73명, 사망자 67명, 주소 미확인자 5명이라는 통계숫자가 나왔는데, 이미 절반 정도의 동기생이 유명을 달리했소. 그래서 나는 박 형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으나 확실한 자료(資料)가 없고,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집필해야 하니 혹시 잘못이 있다면 독자들은 알려주기 바란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 입교 50주년과 이만섭 동문의 졸업장

2001년 11월 3일 3기사관 입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하면서,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모여 가기로 했기에 오랜만에 서울에 가면서 우리가 1954년 11월 졸업할 때의 교장 신상철 장군님을 면담키로 했는데, 그것은 6·25전쟁에 관해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1월 2일 10시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15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전쟁체험담을 들었다.※

※상세한 내용은 월간 『自由』 통권 406호, 2007년 6월호, pp.65~71. 참조.

11월 3일 사관학교 교정에서 우리 입학 동기생들과 재학생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명예졸업장이 수여되었고, 그는 답사에서 어느 졸업장보다도 귀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바로 이때 1954년 11월 1일 졸업·임관식이 끝나고 내무반에 갔을 때의 광경이 머리에 떠올랐다. 졸업식을 끝내고 내무반에 들어가니, 동기생 대표로 퇴교당한 이만섭 동문이 진해에서 거행하는 우리들의 졸업식을 지켜보고 내무반에 미리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기생들과 함께 졸업·임관을 하지 못한 원통함과 고학의 어려움 때문이었으리라.

그의 회고록 『나의 정치인생 반세기』(2004)에 의하면, 그는 연세대학교에 복학했으나 가정교사로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는 생활을 했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이 없어 학교 뒷산에 올라가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책을 읽거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짐을 꾸려 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시는 사관학교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만섭 국회의장의 명예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생도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생도가 배식을 하면서 식사는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로이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생도시절에는 전쟁 중이고 세끼의 밥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생도생활에서는 세끼의 밥은 먹었지만 그런데도 배가 고파 일요일이면 사관학교 앞 동네인 풍오동의 농가에 가서 고구마와 김치로 배를 채우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특강 때, 생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후부터 이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팔순(八旬)이 넘어서도 아직 활동하는 비결의 하나는 맛이 없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다는 데서 연유하리라.

중국 고전인 『회남자(淮南子)』에 의하면, "인생만사 새옹지마(人生萬事 塞翁之馬)"라 했는데, 즉 인생이란 새옹(塞翁)의 말(馬)처럼 화(禍)가 복(福)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뜻하며, 이것은 우리들 인생을 관조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입교식을 전후하여

1951년 10월 말, 대구역 앞에 경북지구의 합격자들이 입교하기 위해 40여 명이 소집되어 김 모 대위의 인솔로 기차를 타고 삼랑진, 창원을 거쳐 경화역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다. 학교에서 트럭이라도 나와서 마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짐을 어깨에 메고 도보행군으로 사관학교까지 8㎞를 걸어야만 했다. 그런데 당시 진해 미군비행장(K-10) 정문 앞을 조금 지나자 갑자기 김 대위는 우리들에게 명하여 신작로 한가운데에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노기에 찬 말투로 "너희들은 전우애가 조금도 없다"면서 호통을 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 대위의 사물 백을 입교자의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다 무거워 뒤로 처지고 말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이었고, '전우애'가 생길 시간 여유도 없었는데…

11월 10일 3기생 164명이 입교를 했지만, 하루 전에 점호장에는 4명이 귀가준비의 짐을 메고 앞줄에 서 있다가, 생도대장 박원석 중령(후에 참모총장 역임)의 명령으로 내무반에 돌아가서 다시 짐을 풀고 입교를 할 수 있었다. 1981년 4월 B소장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입교 직전의 귀가조치를 당할 뻔한 일이 상기되었다. 그는 육군 사병의 복장에 전투용 헬멧을 쓰고 있었으며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퍽 활발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 주었다. 그는 생도 시절에 권투를 즐겼고, 졸업 후 조종사가 되었으며, 공군대학의 고급 지휘참모 과정의 성적이 우수했기에 사관학교 교장까지 역임했지만, 그에게도 입교 직전에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다.

11월 10일 입교식을 마치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선배가 잠을 깨우면서 작업복을 입고 나오라 했다. 가입교 시기에 사관학교 뒤편의 산길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이날 밤 그 길을 혼자 행군하라고 했고, 선배인 2기생이 중간 지점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괴성과 육박전을 벌이며 신입생의 간담을 시험도 하고 또 기르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1951년 12월 하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투출격을 했던 1기사관 소위 6, 7명이 '첫 출격의 무용담' 발표회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피교육자는 2, 3기생들이었다. 어느 1기사관은 당시 조종한 전투기는 F-15(Mustang)인데, "적진에 들어가서 대공포화가 오른쪽에서 터지면 엉덩이를

왼쪽으로 옮기고, 또 대공포화가 왼쪽에서 터지면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하여 모두 폭소를 터뜨렸는데, 반세기가 넘어서도 잊혀 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리라.

3. 생도생활의 회고

당시 진해에는 삼군 사관학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일요일 외출해서 보면, 육사·해사 생도들의 옷은 미제 사지 양복에 멋진 구두를 신고 있었으나, 공사 생도는 누더기 같은 국산 옷과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학교생활을 본다면 오전에는 수업을 했지만, 오후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4기생의 숙소를 건축하는 대지의 정지작업(整地作業)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사교(空士校)에 입학하여 비행기 타는 조종사가 되려고 왔는데, 매일 일만 시키니 공사교(工事校)에 입교한 것이 아닌가 하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도 별로 불평이 없었던 것은 동기생들은 거의 모두 최일선의 사선(死線)을 넘나들다가 입교했고, 당시 일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공사 생도는 미제 옷과 구두를 신지 못했고 또 건물 대지의 공사에 미군 불도저가 와서 하루면 끝나는 작업을 우리는 삽과 곡괭이로 작업을 한 이유는 미군 편제에 공군사관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군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미국에 공군사관학교가 설립된 것은 1955년 7월 11일이었다.

문제는 작업에 사용한 곡괭이의 자루였다. 선배나 동기생 근무자가 벌을 주고자 할 때, 곡괭이 자루는 엉덩이를 치는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도생활에 있어서 선배인 2기생의 단체기압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키가 작고 가무잡잡한 한 선배는 3기생 후배들에게 단체기압 주는데 취미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예컨대, 치밀한 계획으로 작업복으로 점호장에 집합시킨 후, 처음에는 완전무장으로, 다음은 정복 외출복으로, 그 다음은 체육복으로, 마지막에는 팬티 바람으로

각 단계마다 선착순으로 줄을 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늦은 자는 별도로 병사(兵舍) 주위를 뛰게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들은 이 단체기압을 '달밤의 체조'라고 불렀으며, 기압 주는 선배에게 '야수(野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나는 4학년 졸업반 생도의 특강 때 '달밤의 체조' 얘기를 하면서, 요즘처럼 여생도가 있었다면 이런 기합을 주는 선배도 없었겠지만, 당시는 남자들만의 세계라 거리낌 없이 실시되었고, 병사(兵舍)는 일제시대 때의 건물에 한 방에 20명이 수용되었으며, 마루 위에서 잤는데 겨울에 난방장치라고는 전연 없어서 춥게 생활했고, 화장실은 별도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숙소는 난방장치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달린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시대는 많이 변했고 발전되었다고 옛 얘기를 잊지 않고 들려주기도 했다.

어느 해 겨울 휴가에서 돌아오자 중대장(대위) 지휘로 정문 앞 500m에 바다가 있었는데, 한겨울에 옷을 입은 채로 가슴까지 바다로 들어갔으며, 돌아오는 데 옷은 고체로 변했다. 휴가로 정신상태가 이완되었으니, 긴장감을 회복하기 위해 만물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에 옷을 입고 해수욕을 시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팬티바람의 일광욕도 생각났는데,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으니 신통했다.

미국의 마셜 원수(General of the Army George Marshall: 1880~1959)는 1939년부터 2차 대전 중 육군 참모총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1947년에는 국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 부흥의 원동력인 「마셜계획」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의 회고담에 의하면, 그는 버지니아 주립사관학교에 입교했는데 생도생활은 엄격한 스파르타식이었고, 생활환경은 수도나 중앙난방시설은커녕, 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아 생도들은 세면기의 얼음을 깨뜨려 몸을 씻어야 했다. 식사는 거의 먹기 힘들 정도로 질이 낮았고, 흡연과 음주 역시 금지되었다. 게다가 생쥐라고 불리는 신입생들은 선배들이 가하는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고, 융통성 없는 엄격한 규율로 인해 1897년 입학했던 100여명의 생도들 중에는 오직 34명만이 1901년 6월 졸업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나는 마산의 공군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은 신경쇠약으로 4개월간 요양을 했기 때문에 졸업 · 임관을 겨우 했으며, 교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도생활은 나에게 몸서리가 칠 정도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생도생활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인내심을 길러주었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데는 2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나는 생도 특강에서 여러분들도 생도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굳은 인내심을 길러주는 기회라는 것을 나보다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4. 침대 전우 C대령에 대해서

침대전우라 하면 입교해서 곧 침대생활을 한 것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입교해서 1년 동안은 침대 없이 마룻바닥에서 생활했고, 나중에 야전용 간이 목침대에서 생활했다. 내 옆자리는 C동문이었는데, 저녁 자습시간에는 영문잡지인 『Readers Digest』만 읽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6 · 25전쟁 전에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그는 경기중학교 6년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했다. 그는 처음에 육군에 입대했는데, 영어가 능통하여 통역장교(중위)로 활동하다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로 입교했다. 그는 졸업 후 조종사가 되었고, 중령 때 미국 유학을 해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대령까지는 순조롭게 진급했다. 그러나 장군 진급에 실패하여 제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으나, 1년 조금 지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아마도 장군 진급의 실패로 인한 좌절과 스트레스로 빨리 저승길로 간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1973년 10월 나는 공군대학 교수부 3처장(중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대령의 마지막 진급심사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하지만 인생이란 축구시합과 마찬가지로 전·후반전이 있으며 전반전에서 실점을 해도 후반전에서 만회가 가능하니 후반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 나의 인생 후반전은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에 지장을 없애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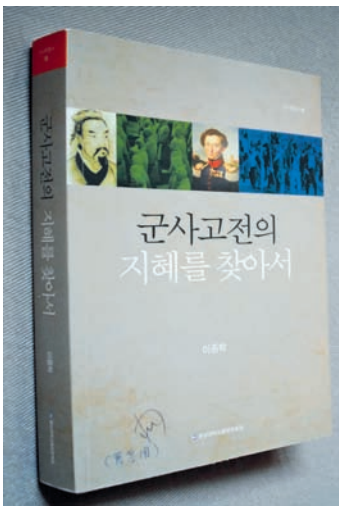
그런데 국방대학원장 박현식 중장이 박종백 대령(2기)을 보내어 제대하고 국방대학원 교수로 오라고 전해왔고 또 공군본부 인사국에서도 제대하여 문관교수와 3처장으로 그대로 재직할 의향이 있는가 하고 문의가 왔다. 나는 1968년부터 국방대학원에서 「전략론」 강의를 해왔고, 또 저서로 『현대전략론』(1972)과 군사고전인 『손자병법』 및 『전쟁론』을 번역·출간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국방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1974년 2월 말에 제대하여, 3월에 국방대학원의 교수가 되었는데, 사관학교 2기생 대령들이 학생 장교였으니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기도 했다.

2003년 3월부터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에 군사학 석사과정이 신설되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강의 마지막 시간에 침대전우 C대령의 얘기를 하면서, 그는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일찍이 요절하고 말았지만, 나는 중령에서 대령 진급에도 실패했지만 아직 싱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華嚴經－)고 얘기하면서, 원효대사(617~686)가 당(唐)나라 유학을 포기한 고사(故事)도 소개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가는데 50대 초반의 한 학생이 나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는데, 육군본부 시설감실의 차감으로 대령에서 장군 진급이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8년 후 근황을 알아보니, 제대하여 민간 건설회사의 사장을 역임하고 요즘 퇴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09~2005) 교수는 93세에 『다음 사회의 경영』(Managing in the Next Society, 2002)을 저술한 후, 그의 인생의 황금시절은 60대, 70대, 80대의 30년간이라 술회했다. 이것은 나와 동일한 견해이다. 즉 인생의 후반전은 중요한 일이고 또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생목표와 설계가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또한 집중하는 것이 삶의 가치를 높이게 되리라. 생사(生死)는 염라대왕의 소관이고, 일의 성패(成敗)는 하늘에 있으며, 운명은 인력(人力) 밖에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할 뿐이며, 이것이 행복과 황금시절을 맞이하는 유일한 길이리라.

인생전략 = 인생목표 + 방법 + 자원(의지 · 시간 · 돈)



박 형, 여기서 군사고전인 손무의 『손자병법』(기원전 513?)과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전쟁론』(1832)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군사고전의 지혜를 찾아서』(충남대학교 출판원, 2012. 11.)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군사고전이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한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기초를 밝혀보려고 반세기 넘게 시도했는데, 그 시도한 에세이를 편집한 책입니다.

박 형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leechoy@daum.net)

소연이의 편지 ••• Letters From Monica 소연

아버지 김무영의 발자국을 찾아서

12기 사관 **배 기 준**

1969년 여름 어느 날, 수원 공군 비행장에서 전투 요격기(F-86D) 한 대가 이륙 중 추락하고 조종사는 순직하였다. 그 조종사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5년, 창공을 날아 오른 지 4년, 나이는 불과 27세였던 동기생 김무영(金武永) 대위였다.

그 후 43년 동안 줄곧 그 가족들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작년 여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우연히 그의 외동딸 Monica 소연이와 연이 닿아 동기생 카페에서 그동안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1977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소연이 가족은 미국 뉴저지로 건너가 어머니는 30여 년간 교직에 머물며 재혼도 하지 않고 딸을 양육하였으며, 치과 의사가 된 소연은 비뇨기과 의사인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딸 두 아이를 두고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 당시 한 살 반 갓난이었던 소연이는 아버지의 모습조차 떠올릴 수 없어, 다만 막연한 궁금증에 머물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를 그리는 정이 더 깊어지고 더욱 애틋해져 갔음을 엿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 간 발자국을 따라 그 흔적을 찾아 주어야겠다는 동기생으로서의 일종의 의무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기억이나 잊힌 슬픔의 불씨를 당길까 오히려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제 나이와 함께 최고의 지성을 지니게 된 소연이가 그러한 슬픔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더 강하게 자리하였다.

소연이의 아버지가 명문 서울고등학교를 나와 28대 1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제12기생으로 입교하였다는 사실을, 남달리 날렵하고 강한 체구로 럭비선수가 되어 모교의 명예를 빛낸 멋진 사나이였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학사이자 장교로 임관된 군인이었으며 그중에도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였음을,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른 봄 화려하게 피었다 갑자기 떨어진 벚꽃처럼 깨끗하였으며 일생은 비록 짧았으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가치 있고 명예스러운 삶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묘역 비석 앞에 현충일 참배하는 동기생들의 사진을 정리하여 보내고, 다시 청주 공군사관학교와 협조하여 현역 공중근무자 순직비 '영원한 빛'에 언제 어디서 순직했다는 사연과 김무영의 성함이 새겨진 석판과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2기 졸업자의 동판 명단을 사진으로 전송하였다.

거기에 덧붙여 아버지가 땀과 눈물로 군인의 길을 배우고 익혔던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캠퍼스를 카메라에 담고 몇 장의 사진과 졸업 앨범을 복사하여 아버지의 생도생활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공군에 바치는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 간 비행」이라는 나의 자작시(自作詩)를 동영상으로 보낸 것은 아버지 김무영이 자랑스런 빨간마후라의 한 멤버였으며 소연이는 그의 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쳐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무영의 발자국을 찾아서」라 하여 몇 번 주고받은 편지는 여러 가지 사실과 헤아릴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생소한 이국땅에서 남모르게 수많은 핸디캡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식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딸에게 매월당 김시습이 가문의 선조임을 알게 하고 TV드라마는 우리나라 사극만 보게 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가르쳤다.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는 소연이는 낯선 미국에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컬럼비아 대학과 대학원의 높은 벽을 넘어 전문직에 도전한 총명한 재원이었으며. 건강하고 동양미를 갖춘 아

름다운 미모에 친절하고 상냥한 데다 절제와 겸손까지 몸에 배어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모범 여성으로 우뚝 서 있었다. 공사 1학년 생도를 '메추리'라 호칭한다고 하였더니 메추리의 자손인 자신은 '메추리알'이라고 답하는 구김살 없고 발랄한 유머 감각도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순직 공군 조종사의 어린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년 T-50 기종 사고 소식을 듣고 애석해 하며 가슴 뭉클한 한통의 편지를 보냈다. "저처럼 전투기 조종사 아빠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모든 아이들에게 닥쳐올 슬픔과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자라서 철이 들면 공군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절망하여 큰 뜻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꿈과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커리어 우먼, 소연이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편지의 말미에 가서는 항상 가슴이 벅차면서 감동과 통쾌한 기분이 뒤섞였다.

먼저 그를 훌륭하게 잘 길러 준, 동기생 김무영의 부인이자 소연이 어머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딸 소연이에게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다시 한 번 크게 외쳐본다.

"대견스럽고 장한 메추리알 소연아! 너는 진정 대한민국 공군 전투조종사의 딸이로구나!"

- 딸 소연이의 가슴에 영원히 Return To Base한

전투조종사 아버지 김무영에게 이 글을 바친다. -

소연이가 보내온 편지들

[최초 편지] – 은성회 카페, 2012. 8. 10

My dad, Kim Moo Young Air Force Academy yr12. Hello, my name is Soyeon 소연 Kim (Monica Soyeon), I am the only surviving daughter of your ex-classmate, Moo Young Kim(김 무영). He died in Suwon, Korea, many years ago when I was very young.

I am 44 years old now, living in New Jersey working as a dentist, married to a urologist with two kids. For some strange reason, I came across a rugby video last night, that led to your website in Daum site and saw pictures of national cemetery in Seoul, where you went to visit. One of them looked like my dad's... Upon speaking with my mom, who lives near me, my dad was as your classmate in the Air Force academy.

I was always Monica 소연 김 compelled to know what my dad was like, having had minimal contact with his siblings in Korea. However, I was always proud of the fact that he served for the Air Force and the country he loved. That kept me strong and inspired to do well. I saw the name lists of the graduates of 12기 and my dad had an empty space next to it ; thought I would give out my mom's phone number and my contact information.

Please add our info as well. If any one of you have dental or urologic questions,

please contact me and I can be some assistant for consultation. At least this is something I can do as my father's daughter. The e-mails chosen, you all are some names my mom remembers my dad talked to her long ago fondly. My mom came to United States in 1977 and served as a teacher for 30 years and recently retired, never remarried. I speak and write fluent Korean; just that I sometimes have computer issues. Hope some Korean can be seen from your computer.

Thank You.

My mom : Kim, J. S Daughter : Kim, Monica 소연

[편지1]

....(전략) 보내주신 공군 전우회원님과 12기생님들의 현충일 참배 사진과 현충일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곁을 떠나셔서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 김무영의 딸 소연이는 웬만한 일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동기님들의 우정과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행복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순직으로 더욱 튼튼한 소연이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여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모두 정말 훌륭하십니다. 언제나 건강조심하시고 오래 오래 사셔야 됩니다!....(중략) 현충일,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검은색으로 정장하시고, 힘든 걸음들 하시며 제 아버지까지 찾아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국립묘지에 머무시는 세상 떠나신 모든 동기분들도 하늘나라에서 감사하시며 행복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다만 시원한 맥주로 동기분들께 대접도 못해드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중략)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보내주신 '영원한 빛' 사진 4장 속에 아버지의 성함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영원한 빛'의 뜻도 거룩합니다. 순직하신 390여 명의 영혼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가 고이 잠든 그곳에서 반드시 평화를 누리실거라 믿습니다.

....(전략) 저는 지금 뉴욕, 14살 아들 Ice Hockey 연습 때문에, Chelsea Piers에 와있는데 World Trade Center 있던 곳에서 두 개의 아름다운 빛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영원한 빛'이겠지요.

[편지2]

공군에 바치는 헌시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이라는 훌륭한 영상시를 본 후, 전투 조종사들의 삶과 그리고 빨간마후라의 정신이 절실히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중략) 그리고 제 아버지도 그중의 한 '빨간마후라' 전투조종사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창공을 거침없이 날아가는 전투조종사들의 삶과 죽음은 또한 아름답습니다....(중략)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은 너무나 멋있는 시였습니다. 마치 제가 전투기를 타고 거침없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상상 속의 가슴 뛰는 비행이었으며 그리고 Return to Base였으며....(후략)

[편지3]

....(전략) 우리 아버지 "김무영"의 짧은 인생을 책으로 비교한다면 책의 중간 Chapters들은 없었습니다. 친 할머님은 아빠의 어린 모습을 그려주셨고, 어머니는 아빠의 로맨틱한 스토리를 들려주셨어도 빨간마후라 공군의 모습은 전혀 모르며 답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동기분들께 연락이 되어서 아빠의 책은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또 행복을 느낍니다....(후략)

" Roger, This is Red Scarf 01 on board Cadet 메추리알 over "

공사십훈(空士十訓)에 대한 소고(小考)

7기 사관 **김 석 천**

공사십훈(空士十訓)의 작성 동기는 공군사관학교가 제주도 모슬포에서 1951년 진해기지로 이동 후 당시 교장이셨던 최용덕 장군께서 생도들의 확고한 교육이념과 생활 규범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졸업 임관 후에도 군 생활을 함에 있어 지휘관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요건을 주입시키기 위해 만드셨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공사십훈의 뜻 깊은 교훈이 있었기에 군복무 중엔 물론이고, 예편 이후에도 공직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공사출신 선후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의 공사십훈탑 건립은 공사 졸업 1기 선배님들부터 33기까지의 정성어린 성금(당시 2,500만원)으로 1985년 공군사관학교 연병장 사열대 정면 건너편에 독수리 모양의 견고한 현무암에 새겨져 있으며, 이 공사십훈은 공군사관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장차 장교가 되어 부대를 지휘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며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공사십훈(空士十訓)

1.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2.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

3.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4.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5.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6.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7.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8.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9.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10.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나는 공사십훈 10개 덕목 가운데 제일 선두에 나오는 2개의 덕목,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와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에 대하여 먼저 소견을 밝히고자 하며, 다음은 공사십훈을 실천함에 있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고(故) 오충현 대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사십훈의 첫 번째는 용의단정(容儀端正)이다.

용의단정이란 즉 그 사람의 외형 이전에 내면에 정제되어 있는 인격수양의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예비역들은 신년회, 송년회 등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각 개인의 외모와 복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특히, 지인(知人)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참석시에는 복장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최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청렴결백(淸廉潔白)이다.

청렴결백이란 공사인으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생활규범이기도 하다. 정규사관 출신으로서의 양심적 가치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상벌로 종결된다. "나는 되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비단 공사인을 떠나 새정부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청렴결백에는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필수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즉, 말과 행동은 항시 일치해야 하며, 말로써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행동으로 말하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져야 청렴결백이라 단언할 수 있다.

옛 어르신들의 덕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 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며

무례한 말 한 마디가 불신을 낳게 되고
올바른 말 한 마디가 성공으로 귀착된다.”

이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얘기이다. 말을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면 언행일치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청렴결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째, 상대방을 만나 악수할 땐 꼭 상대방 얼굴을 봐야 하고, 둘째, 상대방을 호칭할 땐 상대방이 가장 높았던 때의 직책을 사용하고, 셋째, 상대방이 말할 땐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

다음은 이미 고인(故人)이 된 후배이지만 공사십훈의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모두 알고 있겠지만, 지난 2010년 3월 2일 후배조종사 교육차 F-5전투기에 동승했다가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충현 대령 이야기이다.

공군 역사상 비행대대장 직책으로 부하 조종사 비행교육 중에 순직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오 대령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것은 최근 그가 1992년 순직한 동료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쓴 일기가 공개되면서부터이다.

그는 공사 38기생으로 졸업 때 수석을 한 인재였고 비행시간이 2,7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는 1992년 12월 한 동료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18년 후에 있을 자신의 유언처럼 일기를 썼던 것이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내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요구 사항과 절차는 간소하게 했으면 한다. 또 장례 후 부대장과 소속 대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 문제와 조종사의 죽음을 결부시킴으로써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일절 없어야 한다.

조국이 부대장을 치러주는 것은 조종사인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족의 슬픔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해야 한다. 군인은 오로지 ‘충성’만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 해도 군인

은 조국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이와 같은 일기 내용으로 봐서 고(故) 오충현 대령은 책임완수와 솔선수범을 생활신조로 하여 지휘관으로서 공사십훈을 철저히 이행한 모범적인 성무인의 한 사람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져도, 오 대령과 같은 훌륭한 장교가 있기에 바르게 굴러가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끝으로 고(故) 오충현 대령의 충절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NOTES FOR YOU

15기 사관 **박 성 국**
(전 공군사관학교 교장)

현역시절 현역이나 민간 후배들이 새로운 보직을 받고 부임하기 전 시간이 되면 들려주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Notes for You"를 작성하게 되었다.

"Notes for You"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고 느꼈던 내용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보직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첫째는 "Do your job"으로 우선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해내라는 뜻이며 둘째는 "Get harmonized"로서 조직, 구성원 간의 화목과 조화를 이루라는 뜻이고, 셋째는 "Feel grateful / thankful"로서 매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1. Do your job (임무완수)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나 부대 장병의 경우 본인의 직위나 계급에 맞는 보직에 보임이 된다. 어느 직책에 보임된다는 말은 그 보직의 역할과 책임을 해 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무수행을 위한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이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좀 더 잘 하겠다는

"Do it better"의 개념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 운동 경기에서의 선수 기록도 늘 갱신이 되듯 "best" 보다도 점점 더 "BETTER"시키겠다는 생각을 갖는 자만이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시 무릎 밑 양다리를 잃은 상태에서도 적기 22대를 격추시켰던 영국의 전설적인 ACE 조종사이었던 더글러스 베이더(Group Captain Sir Douglas Robert Steuart Bader)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의족 조종사로 알려진 베이더는 비행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비행을 재개하여 '행복이나 불행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며 불운을 오히려 행운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다. 결국 그는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조종사였다. 긍정적 사고의 모범사례이다.

2. Get harmonized (화합과 조화)

어느 부서나 직장에서 부대원, 직장인 간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경직된 상하간의 분위기보다는 모두가 한 가족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자식 내리사랑과 자식의 부모 공경은 한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며 7가지 색이 모여 단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무지개 색을 내듯이 직장의 무지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자연히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3. Feel grateful/thankful (감사하는 마음)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감성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나 행동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야 상대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며 또한 내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다. 변하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불평, 불만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가급적 빨리 나 자신을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본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즉 임무, 화합, 감사하는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

가면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나 조직의 크고 작음, 직위고하에 상관없이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고 보람 있는 마음으로 주어진 임무를 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위의 내용들이 특히 새로 보직을 받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내용을 첨부한다.

Notes for you

1. Do your job
   - Be professional
     * Continue to develop yourself.
   - Do it better!
     * good 〈 better 〈 best 〈 BETTER
   - Be positive
     There is nothing either good or bad. Thinking makes it so. 〈by Douglas Bader〉

2. Get harmonized
   - One family concept
   - Rainbow culture
   - Trust is vital.

3. Feel grateful/thankful
   - A person's greatest emotional need is to feel appreciated.
   - Try to adapt yourself to circumstances.

남겨진 그들과 함께한 시간

44기 사관 고준기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분신같은 아이들은 공군과 우리가 책임..."

2003년 5월 15일, 비행중 순직한 동기생 고(故) 김상훈 소령 영결식에서 동기생 대표로 눈물을 흘리며 낭독했던 이 한 줄의 문구는 그 이후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었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었다. 1999년 9월 14일, 고(故) 박정수 소령을 처음 하늘로 보냈고, 고(故) 김상훈 소령에 이어 그 후로도 4명의 동기생을 떠나보내면서 이 한 줄의 문구는 더 이상 쓰지 못했다.

몇 년의 긴 세월을 흘러 보내고 고인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동기생들의 마음을 모아 2012년부터 그들과의 만남을 시작하였다. 이제부터 오랜 기간 바라고 기다렸던 그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려 한다.

최초의 만남은 2012년 1월 14일, 동기생회에서 주관한 자리이며 동기생 유가족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결성한 '다물 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던 날이기도 하다. 세 가족(김도현, 이한기, 이재욱 유가족)과 이날 함께 만남을 갖기로 했다.

김도현 동기생 가족과 대전 유성터미널에서 오후 4시 조금 넘어 만났다. 몇 년 전 현충원에서 우연히 본 이후 내 모습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 했다는 농담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건우, 태현이가 훌쩍 커버렸다. 애들은 금방 크는구나 생각했다가 이렇게 크는 동안 힘든 시간도 많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약속시간은 오후 5시라 먼저 현충원에 들러 가기로 했다. 꽃집에 들러 꽃을 사고, 차 뒷자리에서 무슨 꽃이냐는 애들끼리의 질문과 대화를 뒤로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묘역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려 묘역으로 향하는데 김도현 동기생 가족이 저 멀리에 있는 이한기 동기생 가족을 알아본다. 서로 약속들을 한건 아니었지만 현충원에 먼저 들렀다가 약속장소로 간다고들 했다고 한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이재욱 동기생 가족도 도착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데, 저쪽에 있는 김상훈 묘비부터 갔다 올게요"라는 농담을 건네고 다른 동기생과 함께 우리 친구들 상훈이, 한기, 도현이, 재욱이에게 오늘은 조금 덜 미안한 마음으로 인사했다. 도현이 아들 건우, 태현이가 따라주는 잔을 받아 현충원에서 처음으로 절을 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묘비를 돌며 인사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듯 말을 건네는 모습은 그들만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 재욱이는 커피를 좋아했다며 그 앞에는 흔히들 편의점에서 종종 사서 마시는 커피가 놓여 있다.

아빠에게 인사가 끝난 후 아이들끼리는 뛰어다니며 이름도 없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서로 간에 몇 번의 교류로 아이들끼리 형, 동생, 누나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현충원을 다녀가는 동안 여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다는 한 가족의 말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하린이(이재욱 딸), 2학년 태현이(김도현 아들), 3학년 건우(김도현 아들), 3학년 준후(이재욱 아들), 4학년 하린(이한기 딸)이를 보며 헤어지는 다음날까지 이틀 내내 가슴이 뭉클함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다. 2008년 현충일 이후 주말에 현충원에 갔다가 재욱이 묘비 앞에 있던 "아빠 모하세요, 저는..."으로 시작되던 편지를 썼던 준후가 그 옆에 별과 동그라미 등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던 하린이가 이렇게 커버렸다.

현충원을 벗어나 약속된 뷔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른 동기생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유가족과의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친분이 있던 다른 동기생과 가족들이 함께 시작한 식사자리는 처음부터 자리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색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어색함은 사라졌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여 오늘의 본론인 다물후원회에 대하여 설명했다.

♥ 다물후원회 주요내용 : 사망 동기생 자녀 1인당 매년 50만원을 연 1회 지원,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설명이 끝난 후 준비된 봉투를 전달하고 내년부터는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설명드리고 다시 어색해진 자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아쉽게 끝냈다. 10여년 후배기수에서는 순직 동기생 가족에게 매월 몇 십 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다. 흔히들 하는 얘기로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지만 현실은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나오는 연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해결한다지만 요즘 세상이 먹고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다음날 아침 남자아이 3명을 데리고 계룡스파텔에 있는 목욕탕에 데리고 갔다. 벌써 6년이 지났으니 초등학교 2, 3학년인 아이들이 아빠와 목욕탕에 가본 기억이 없을 것 같아 혼자 생각해 본 거다. 언젠가 아이들을 목욕탕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었다. 남자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다. 남자아이들을 목욕탕에 데려가겠다고 하니 엄마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한 명, 한 명 비누질시키고 탕에 같이 들어갔다가 살살 밀어달라고, 아프다고 엄살 부리는 아이들의 등까지 밀어주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들과의 만남은 이틀 동안의 짧지만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하며 우리는 헤어졌다. 헤어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틀 내내 가슴 뭉클함을 애써 감추었지만 집으로 오는 차안에서 눈가엔 눈물이 스쳤다. 그들을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워하며 다음에 또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왜 마음은 가볍지 않는 건지...

2012년 2월 7일, 두 번째 그들과의 만남은 김상훈 동기생 유가족이었다. 늦겨울 찬바람에 아직은 몸이 움츠려드는 날씨에 곽병찬 동기와 합류하여 부산행 KTX 기차를 탔다.

상훈이는 내가 동기생 회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순직한 동기생이었고 박정수 동기생에 이어 두 번째 순직한 동기생이지만 아내와 딸을 남기고 먼저 갔다. 상훈이 영결식장에서 내가 말했던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분신 같은 아이들은 공군과 우리가 책임...” 조사문구를 또 한 번 떠올리며 부

산역에서 만나기로 한 상훈이 가족과 딸이 지내왔을 세월을 생각한다. 벌써 9년이 흘렀다. 2003년 영결식 이후 연락도 만남도 처음이다. 딸 주은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상훈이가 떠날 때 주은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었다고 들었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상훈이 가족과 만나고 보니 미안함, 안도의 한숨, 궁금함 등등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줘서 해운대에서 점심식사하기 위해 이동하며 근황을 물어본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주은이를 보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 데려오지 못했단다. 해운대의 바닷가가 보이는 식당에 앉아 점심을 하면서 그간의 얘기들을 시작한다. 다물후원회 이야기, 지난달 대전모임, 그간의 근황들...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그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동기생으로서의 미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12년 3월, 세 번째 그들과의 만남은 박준범 동기생 유가족이었다. 따사로운 봄날 오후 경기도 안성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직 평택에 살고 있는 박준범 동기생 가족에게 전화를 했다. 준범이 떠난 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평택에 일부러 갈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아 미루다가 어렵게 약속을 잡았다.

약속장소에 미리 도착해 잠시 있으니 준범이 가족이 도착했다. 장례식장에서 한번 밖에 보지 않아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어린아이 3명을 키우는 준범이 가족은 이제 거친 세상에 당차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또한 민간인으로 사회 경험도 부족하면서 준범이 가족에게 본인이 혼자 직접 부딪쳐야 할 사회생활의 이것저것을 당부한다. 물질적 도움은 못주더라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물어봐야 할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를 달라고 얘기했다.

그간 준비한 일들을 들으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왠지 당차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당차져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만나 맛있는 고기 사겠다고 약속하면서 헤어졌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꼭 한번은 그러고 싶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아빠가 없으니까...

2012년 9월14일, 네 번째 그들과의 만남은 박정수 어머니이시다. 대전 현충원 (故)소령 박정수 묘비 앞에서 정수의 어머님을 만나기로 했다. 2주전쯤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고 정수 기일에 대전에 오신다고 해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정수 앞에서 뵙기로 했다.

정수 어머님은 정수를 얘기할 때 아직도 공부하러 갔다고 말씀하신다. 정수가 저 멀리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오래 동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젖어 있는 묘비를 마른 수건으로 연신 닦으신다. 정수 어머니는 정수를 유학보내고 난 후 운전과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한다. 유학보냈다면서 정수를 보려고 10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현충원에 오시고 기일에는 현충원에, 생일 때는 예천에, 또 지나가다 한번씩... 지금은 매달은 못 오신다고 하신다.

정수한테 물려준 담배가 다 타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정수에게 또 인사를 하신다. “정수야 공부 잘하고 있어, 엄마가 또 올게. 오늘은 널 보러 준기도 와줘서 엄마가 기분이 좋구나. 정수야, 엄마 갈게. 잘 있어...”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 말이 새삼 떠오른다.

현충원 앞의 돌솥밥집에서 조촐한 점심을 사드리고 다음에는 춘천가서 닭갈비 먹으며 아버님이랑 소주 한 잔 하고 오겠다고 약속하며 헤어졌다. 대전에 오실 때면 꼭 연락주시라고 말씀드리며...

2013년에는 9명의 아이들이 조금 더 크기 전에 얼굴을 자주 보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김도현, 이재욱 가족들과 다른 동기생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으로 1박 2일 여행도 하고 1월 17일 이재욱 동기생 아들 준후의 생일에 수원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생일도 축하해 주었고 평택, 부산에 사는 다른 가족들과도 한 번씩 만났다. 출장가는 길에 수원에 들러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 점심도 함께 먹으며 아빠 노릇을 대신해 보기도 하였다. 막내 하린이와는 올가을 학교 운동회에 아빠대신 꼭 가겠다고 약속도 했다. 소소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다.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한다. 44기 동기생들이 마음을 모아 적극 동참해주는 ‘다물후원회’가 있기에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루아빠 되어주기” 2013년 다물후원회의 슬로건이다. 다물후원회 인터넷 카페도 운영하고 소식지도 만들어 다물후원회의 후원자인 동기생들에게 가족들의 소식도 전했다. 조만간 아빠가 타던 전투기도 보여 줄 겸,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빠가 근무하셨던 부대에 데리고 가보려고 한다.

나눔은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다물 44기 동기생 여러분,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선후배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버리는 자(者) 거두는 자(者)

19기 사관 **이달호**

인천 국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의 관문은 김포공항이었다. 시내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거나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한강변을 따라 길게 누워있는 난지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난지도 인근을 지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고역이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에 버려지다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고 그곳에 생태공원이 조성된 지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 당시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쓰레기차는 단연 강남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들이었다고 한다. 강남지역에서 들어온 쓰레기차에서는 제법 쓸 만한 물건들을 많이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멀쩡한 솥인데도 눌어붙은 밥알을 씻기 싫어 솥단지가 통 채로 버려진 것들을 심심찮게 찾아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고 우스웠던 기억이 난다. 또한 그 당시 초등학생들이 소지품을 잃어버려도 도통 찾으려고 하질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분실물들 때문에 담임교사들이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닐 그 무렵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바야흐로 버리는 시대로 접어들었는지 모르겠다. 버려지는 음식이 연간 수조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이미 뉴스거리도 아니다. 물건 버리기에 익숙한 뒤로는 사람들까지 내다버리는 일이 흔해졌다. 요즘은 소위 '남친'이나 '여친'과 헤어지는 일은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결혼한 배우자끼리 이혼하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버리거나 부모를 버리는 패륜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버리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마구잡이로 버리는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앞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두 개의 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비교적 한적한 주거단지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앞을 지나 공원에 들러 가벼운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나름대로 일과처럼 되어버렸는데 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여 기분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등굣길이나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인 공원에 담배꽁초나 과자봉지 각종 일회용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삭막한 풍경이 몹시 눈에 거슬린다. 휴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공원의 모습은 더욱 참혹하다. 벤치 근처는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그것도 모자라 술병이나 일회용 컵라면 용기 등이 나뒹굴고 있는데 그야말로 무법천지 난장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생각을 하면 어른으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다.

버리는 행위에는 어른 아이 구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른은 담배꽁초를 길 위에 함부로 버리고 그것을 보는 아이들도 과자봉지를 아무 거리낌 없이 길 위에 버리는 것 같다. 간혹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이 청소를 하는 날에나 반짝 깨끗해지긴 하는데 구청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이 가뭄에 콩 나듯 하기 때문에 주변은 늘 쓰레기가 뒹구는 볼썽사나운 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처음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욕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구청 공무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욕을 하고 원망을 해보았자 현실은 늘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진정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면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서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비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지, '작은 실천'이라는 행위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마중물이 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도 되었다.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을 행정에 적용한 미국의 어느 시장(市長)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버려진 가옥에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나머지 멀쩡하던 유리창도 순식간에 모두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서둘러 그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된다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분의 탁월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길거리나 공원의 쓰레기도 깨진 유리창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을 빨리 치우지 않고 그대로 오래 동안 놔두면 그곳은 순식간에 쓰레기가 주인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청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야말로 세월아 네월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 처음에는 참으로 쑥스럽고 어색하였다. 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나 과자비닐껍질을 주워 담는 행동이 내가 생각해도 낯선 내 모습이었다. 더구나 등굣길 학생들이나 출근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기가 여간 민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를 잘 견뎌내고부터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일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몸짓이 되었고 그 일을 일 년여 넘게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의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과히 '중독증상'에 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중독증상이라는 게 별것 아니다. 약물이나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의 뇌에서 특정물질이 나와 우리를 황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지럽혀진 공원이나 길거리를 내가 한번 지나고 간 후 뒤돌아보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나의 작은 수고가 이처럼 말끔해진 공원과 길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게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서 기쁘고 보람 있고 뿌듯하여 저절로 행복을 느낀다. 퇴직한 은퇴자에게 이러한 행복감을 주는 일이 어디 그리 흔한 일이겠는가? 그리고 보면 나는 아침마다 공짜로 프로포폴이라는 '우유주사'를 맞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일 년여 이 일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작업매뉴얼도 정립되었다. 우선 집을 나설 때는 가급적 화사한 복장을 갖추는 게 좋고 장비로는 비닐봉지와 장갑이 필수다. 복장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 눈에 잘 띄기 위해서이고 비닐봉지는 반드시 투명한 재질을 쓰는 게 좋다. 투명봉지라야 사람들에게 시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장비로 집게는 갖추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집게로 줍는 대신 직접 손으로 주워야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쓰레기를 주우면서 애써 등교시간에 맞춰 일을 나간다거나 화사한 복장에다 투명한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집게대신 직접 손으로 작업을 하는 등 다분히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행동에는 나름대로 의도하는 바가 있다.

첫째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갖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쓰레기를 거두는 행위가 멋지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줄어들게 하고 반대로 쓰레기를 거두는 사람은 많아지도록 유도하여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탁족'(濯足)이란 말의 뜻이 부도덕한 세상에 대해 적개심을 품지 않고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달관의 경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나의 행동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서 행여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치졸한 과시욕에서 비롯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늘 주의하면서 아울러 탁족이라는 심신수양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 백내장수술을 받아 나의 시력은 지금 최고의 수준인데 그래서인지 백 원짜리 동전도 발견하는 횡재를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퇴직자인 내가 새로운 CEO가 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 : Chief Executive Officer)'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환경의 주인(CEO: Clean Environment Owner)'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시에서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글귀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새로 부여받은 '깨끗한 환경의 주인(CEO)'의 소임에 충실한 노년생활을 보내고 싶다.

인생 3막

20기 사관 **김 삼 교**

인생 제1막은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배우고 훈련받아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홀로서기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수업과정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6 · 25전쟁 전후로 태어났던 60대 중반 세대들 중에 몇 명이나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골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48명이 졸업하였는데 절반은 가사를 돕거나 공장으로 가고 겨우 10여 명이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렵게 가정교사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으나, 꿈이 있어 대학은 가고 싶은데 입학금과 학자금을 마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철이 좀 빨리 들었다 할까? 아니면 형제들이 많았기에 형제들 간의 경쟁 속에서 단련이 되었을까? 입학금과 학자금도 필요 없고 용돈도 생길 뿐만 아니라 졸업하면 군인으로써, 조종사로써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하여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엄정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꽤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생 제2막은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직장에서 은퇴하기까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고통과 고난으로 제법 긴 세월을 보내면서 황혼의 60~70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인생 2막에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고, 실패한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명제가 타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각종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후반 30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군대생활 잘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들 혹은 지인들의 사업투자 권유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교사출신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사회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술좌석에서나 동기들 만나면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랄까? 아니면 사장 흉내 내고 싶은 허영심 등으로 더 갖고자 하다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인천에 있는 모 상가 경매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것이 잘못되어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인생 2막 말년에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면 누구나 고독하고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같이 잃게 됨으로써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혹시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먼저 떠나기도 한다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몹시 당혹스럽고 갈 길을 놓쳐 삶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투자에 실패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먼 허공만 바라보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기도 하여 스스로 깜짝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동행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멋있고 보람되게 살았을까? 그리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평생을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살았던 솔로몬 왕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으며, 김수환 추기경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만이 웃고 모든 사람이 울게 하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또한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깨달음”을 설법하셨습니다. 인생 70이 넘으면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세끼 밥 먹는 것 별 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생 제3막에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구절에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욕심을 버리고 근심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배우면서 단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폭 넓게 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의미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세계평화와 국가안보,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심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인 출신으로써 그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되기 위한 명강사 양성교육과정을 지난 2월 수료하였습니다.

제2의 군대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청소년들의 나라사랑교육에 헌신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 내려놓고 나라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보람되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무인 들이여! 높은 기상과 꿈을 가지고 인생의 제3막을 즐기십시오.

좀비생도의 후회 44년

21기 사관 **변 희 룡**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처음 성무대 언덕을 넘을 때,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어 나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기대했다. 그것은 고교 3년을 마칠 때까지, 시골 집성촌의 침체와 빈곤에 시달려 자신감을 잃은 자신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러나 생도 4년에 이어 공군 19년은 내 기대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후회에 시달렸다. 전역 후 대학교수 21년까지 44년 동안 그 후회의 색깔은 여러 번 변했다.

입교 직후부터 시작된 후회의 첫째 원인은 '불만'이었다.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는 서울대학교나 육사에 뒤짐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식이 불만의 중심에 있었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 위에 서는 경쟁자를 본 적이 없던 나는 동창생 중 누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사를 선택한 책임을 자신에게 혹독하게 추궁하고 있었다.

둘째는 신분상승을 바라는 '계산'이었다. 친구가 대학재학 중에 무슨 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물 안 개구리는 앞서 넓은 세상으로 나서는 동료 개구리를 시새우고 있었다. 입교하여 중도하차한 동기생 34명 중에는 이런 계산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나도 수십 번이나 성무대를 나서는 생각을 하곤 했다. 4년 내내 그랬다.

셋째는 '피로'였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니 실력발휘가 어려운 법이다. 고된 훈련에 피로가 쌓이니 평소 쉽던 일도 잘 풀리지 않았다. 그 때 발생하는 짜증, 그것들이 누적되어 생도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번져 갔다. 특히, 나는 남달리 피로회복과 정신집중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체질이라는 점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넷째는 정서 결핍이었다. 훈련이 고되면 정서는 메마른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친구로 인정될 때까지 거쳐야 할 과정을 챙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 편대장생도가 형님·아우로 연결해 줘도 다정한 말 한마디 나눌 줄을 몰랐다. 이성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은 강한 욕망도 채울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마음은 황폐해져 갔다.

임관하는 날도 지나간 생도생활을 돌아보며 후회를 거듭했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으니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틈만 나면 휴식과 위안을 찾으려 했으니 도전이 아니라 나태와 방종의 좀비생활이었다. 이러고도 졸업, 임관하는 것은 비극이라 생각했다. 임관 후에도 초급, 고급 지휘관 과정, 각종 정신교육,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민대 위탁, 해외파견 등등 국가는 나에게 계속 투자하면서 모두 공짜로 누리게 해 주었지만 고마운 줄을 몰랐다.

덧없는 후회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골 소년은 거창읍의 고등학교에 유학하면서, 비염에 걸린 코를 킁킁 거리며, 거리의 불량배들을 무서워했다. 가입교 훈련 중에 비염은 저절로 완치되고 재발하지 않았다. 첫 휴가에는 불량배를 만나 패주고 귀영하였다. 어느새 무서울 것이 없는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리던 소년은 오히려 대중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친화력이 부족하던 옹고집 소년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변해갔다. 영어, 수학 밖에 모르던 꽁생원이 법학, 경제학, 역사, 철학 뿐 아니라, 물리, 화학, 전자, 기계 등을 섭렵하고 축구, 배구, 기계체조, 유도, 서예, 수영 등등에서도 지식과 기능을 쌓았다.

인간개조과정에서는 고단함이나 불만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진작 의식했더라면 많이 달랐을 것이다. 피로가 문제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빨리 피로회복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불필요한 외출, 외박으로 체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 보조식품을 먹거나, 자주 목욕하고 틈나는 대로 수면을 취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등 대안을 냈을 것이다. 외로움이 문제인줄 진작 알았더라면, 차라리 외적인 위안을 포기하고, 극기와 수양으로 내적 성장을 도모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풍요로운 정신생활을 누렸을 것이다.

세월이 더 흘러 대학에서 제자들을 배출하고 보니 내 후회는 다시 정리되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한쪽이 선택되었으니, 다른 한쪽은 어차피 포기했어야 했다. 어디서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생 하나를 사는 것임을 대학생들은 진작부터 아는데, 나는 몰랐었다. 나이 60을 넘기던 어느 날, 성무대에서 임관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해 봤다. 공사 60년 역사에서 약 2,000명이 중도하차했는데, 이만섭 전 국회의장 한 사람이 눈이 띌 뿐이었다. 그러니 임관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나는 후회했지 않았는가! 더구나, 한번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개인영달을 위한 계산 때문에 돌아서는 정신이라면, 어디에 간들 무슨 일을 하였을까!

가장 아쉬운 후회는 가장 뒤에 나타났다. 사관생도는 국가에서 모두 보장해 주니 의식주 걱정, 취업걱정 등에 전혀 시달리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수양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내 인생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살려 뭔가에 도전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살았으니 억울한 것이다. 내 생애를 한 장의 사진으로 찍어 봤더니 생도생활은 반쯤 좀비의 모습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울 것이다. 후회 연속의 생애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한 가지 있었다. 어렵사리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다.

"규정상 어렵게 허가된 것이니, 배워서 우리 공군 가족에게 지식봉사를 많이 하게." 취학 승인서를 내 주시던 당시 참모총장님의 말씀이다. "남들은 근무면제, 학비전액지원, 외국유학까지 시켜주면서, 나는 야간근무하면서 자비로 공부하라니... 후방 병과로의 배정도 공군이 강제로 해 놓고는..." 하는 원망이 앞섰으나 곧 마음을 돌렸다.

"불평불만으로 사니 도전과 창조란 말조차 잊더라. 이제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을 전공하면 전역한 후 취업에 유리한 줄을 의식하면서도,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일기예보'를 전공했다. 공군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때였다. 착한 생각에는 하늘이 응답하더라. 세계 수준급은 된다고 자부하는 내 학문적 실적은 이래서 나왔을 것이다. 정년을 3년 남겨 두고 있는 지금, 나의 후회는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으로 변해져 있다.

천 번을 듣고 천 번을 불러보자!

17기 사관 **이 철 희**

최근 학위 논문 표절이 논쟁거리이다. 과거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내 노라'하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표절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모일간지에 기고된 '천 번을 듣고 천 번을 따라 부른다'는 기고가 생각이 나서 스크랩한 것을 들춰봤더니 전국노래자랑 최우수 수상자와의 대담기사로 노래 한 곡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연습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상자가 기자에게 물었을 때 "200번, 300번?" 하고 대답했더니 수상자가 "천 번을 듣고 천 번을 따라 부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비슷한 흐름으로 이상훈의 '1만 시간의 법칙'에서는 '1만 시간의 선순환의 법칙'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연습하면 목표를 성취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어 '고수의 제단'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최선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노력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의 논문의 주제를 인용할 때는 인용표시를 하여 나의 논문을 구성하게 되지만 논문의 주제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숨겨두면 표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표절을 하지 않으려면 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쓰면 되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백 권의 저서를 낸 정약용 선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20권의 토지를 쓴 박경리나 태백산맥 10권과 아리랑 12권을

쓴 조정래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어느 분야에서나 고수는 혼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다.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주제에 따르는 책을 과연 몇 번을 읽었을 것이고 각주를 안 달고 슬쩍 넘어가도 모를 만큼 독자들이 어리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지만 한 페이지의 보고서에도 각주를 달아서 인용하는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에 큰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논문이라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하여 천 권은 몰라도 백 권이라도 읽었는지, 그 논리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였는지 묻고 싶다. 엉터리 학위 소지자들 때문에 진짜 석사 · 박사들이 무더기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 생활 30년에, 일선 조종사로는 20년 정도 비행을 했지만 가끔씩 들었던 선배님들의 가르침은 '전투에서도 비행안전에서도 죽지 말고 살아야한다'는 명제였다. 긴박한 상황에서 생활하던 때를 생각하면 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았다. 단좌 전투기(F-86F)로 비행시간 1,000시간쯤 되던 시절, 기지는 시계비행조건으로 두껍게 구름이 덮인 상태에서 요기로 비행임무를 마치고 귀환하고 있었다. 선배 분대장님은 구름 속에서 유연하게 선회 조작을 하였고, 수평 조작을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 나는 계속 선회하는 착각으로 배면비행을 느끼면서 '악, 여기서 채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 구름이 뚫렸는데 나는 분대장기에 나란히 편대비행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장기를 믿어라!' 수없이 듣던 가르침을 '살아야한다'는 조종사의 명제와 연결시켜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의 갈등은 천 번의 가르침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과 한 번의 실행에서 오는 갈등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했었다.

내가 공군 소위이던 1969년에 공사 1기 선배님들은 하늘같이 높아보였다. 그런데 44년 후배인 61기생이 임관하였으니 16년차의 3배 가까운 우리의 후배들이 일선에서 근무하게 되고 항공기술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발전하였다. 최근의 빈번한 북한의 공갈 협박은 수십 년 계속되어 온 것이지만 심리전 목적상 우리도 대응전을 펴야하므로 북한의 도발 시에는 도발 원천과 지휘체제까지 파괴해 버린다고 나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북한의 포대를 일일이 격파하기에는 F-15전투기에 정밀타격 미사일 한 발씩 밖에 안돌아간다는 애매한 신문기사 정보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진장의 탄약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것이므로 김정은 인간 자체나 그의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군 지휘부를 일격에 날려버리겠다는 도발원천 공격정신은 당한만큼 돌려주는 반대급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적

어도 우리 후손에게는 통일 조국이 아니면 평화스런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망동은 갈수록 태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수명의 증가로 복지가 만사인 것으로 느껴지는 요즈음 세상에 알려지는 부음을 보면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75~85세에는 80%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75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어쩐지 섭섭하지만 범위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하겠고 85세를 넘긴다면 장수하는 집안 내력이든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든 호상이라고 생각된다. 건강을 위해 아침을 먹으라느니 먹지 말라느니, 며칠에 한 번씩 단식하라느니,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 암을 극복하는 식단도 많이 알려져 있다. 70세까지 살아보지 못한 나로서는 논할 위치가 아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왕도는 없어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성인병이나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찮고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운동의 방법이야 일률적이라 말할 수 없고 골프, 등산, 달리기, 걷기, 헬스, 구기 등 어떤 종목이라도 좋으며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라야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생의 소망이 올림픽 풀코스를 뛰어 보는 것이었다. 육상트랙을 10km정도 주 3~4회 뛰었더니 숨은 차지 않은데 무릎이 약간 아파서 걷기로 바꾸고 걸으면서도 마라톤 코스를 생각했었다. 이정표가 있는 보행로 11km를 돌아오니 22km가 되고 3시간 50분 걸렸다. 최근에 힌트를 얻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도보 동호회 모임에서 춘천 마라톤 코스를 9시간에 걸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춘천 마라톤코스를 걷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다. 한 시간 보태서 10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 본다.

3차원, 4차원 그리고 영원

18기 사관 **이 봉 길**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 한 것은 지상에 살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를 향한 욕망 때문이었다. 오늘날 하늘과 우주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인간은 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 할까. 이제 3차원 세계를 정복한 인간은 4차원,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근래 3D 영화가 상영되면서 관객이 영화 속의 장면에 빠져드는 듯한 3차원 공간을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계는 3차원이므로 그 이상의 고차원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수학적인 확장을 통하여 고차원 세계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차원은 3개의 선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공간에 존재하니까, 4차원은 4개의 직선이 서로 직교하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원이나 구형(球形)으로 4차원 공간을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과 구로 설명하는 복잡한 수학 이론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도 없으며, 단지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상의 차원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을 위한 4차원을 소재로 한 만화나 영화가 더러 나와 있다. 대마왕에게 잡힌 친구 니나를 구하기 위해 4차원 세계로 달려가는 폴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이상한 나라의 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구멍을 통해 만난 난쟁이들과 캐빈

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시간 도둑들' 등이 있다. 그리고 인기 우주공상영화 '스타게이트'에서도 4차원 세계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만화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4차원 세계도 단지 마법을 쓸 수 있다든지,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시간여행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간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학자들은 3차원 공간에 시간 개념을 통합하면 4차원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이론을 펼친다.[1] 시간여행? 우리도 영화 속에서처럼 시간여행에 편승할 수는 없을까? 마법이나 공상 속에서가 아닌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도 시간여행이 가능한 걸까? 답은 '예스'다. 나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수 있다는 4차원의 세계를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인간의 감성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베토벤이나 차이코프스키를 들으면서 그 시대 작곡가가 가졌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또 뭉크의 '절규' 앞에서 그의 내면에 숨어있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작가의 강한 정신체험과 환상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이야말로 21세기 여기에 살고 있는 내가 18~19세기 유럽에서 살았던 작곡가나 화가를 2백 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감성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예술적인 감성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만날 수 있는 4차원의 세계, 인간은 원래부터 이런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감성과 시간여행을 철학에서는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원, 인간관계에서 보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간의 우정, 그 다음은 서로 아끼고 애정을 느끼는 사랑의 단계가 있고, 그 위에 우정과 사랑을 건너 시공을 초월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이다.

우정 – 사랑 – 영원

사랑 위에 영원이라고 했던가,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포근한 품을 느낀다든지, 음악과 미술, 문학 등 예술을 통하여 그 시대에 살았던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영원! 이렇게 3차원에 사는 인간이 추구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감성과 애정으로 4차원, 아니 영원의 단계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데 커다란 위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설사 우정과 사랑을 초월한 영원을 통하여 4차원을 설명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감성으로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로서는 정녕 알 수 없는 차원이 있다. 강추위로 온 세상이 꽁꽁 얼었던 지난 연말 뉴스에서 본 이런 분들의 삶은 도대체 몇 차원이나 될까?

지난해 12월 말에 3천만 원의 장학금을 내놓은 황금자 할머니(88세)는 열세 살 때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가 흥남 유리공장에서 일하다가, 3년 후 다시 간도지방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광복 후에는 그로 인해 망가진 건강으로 늘 병을 달고 살아야 했고, 주변의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가족도 없이 강서구에 있는 11평 월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고 있다. 또 폐지를 수집하여 팔기도 한다. 하루 세 끼 밥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에서 때우며, 아파트 임대료 7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아껴서 저금을 해왔다. 황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을 2006년에 4천만 원, 2008년에 3천만 원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모두 1억 원을 어려운 대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구청에 내놓으시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우리는 배우지 못해 나라를 빼앗기고 모욕을 당했으니 후손들은 많이 배워서 나라를 지켜야한다."[2] 또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최원균 할아버지(83세)는 지난 번 구제역 방역 활동에 보태 써달라고 성금을 기탁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영화 속 황소가 죽은 뒤 늘 그 소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요즘은 새로 들여온 소와 정을 붙이며 살고 있다고 한다.

'3차원은 현실 세계, 5차원은 이상 세계'라고 한다. 또 '구속과 억압은 3차원, 이해와 용서는 5차원'이라고도 하는데, 폐지를 수집해서 장학금으로 내놓는 황 할머니야말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선 분인 것 같다. 이 시대 수학과 철학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인간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1. 시간 차원을 제4차원으로 간주한 것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4차원에서 통합된 공간과 시간은 서로 대칭성을 가지며 또한 회전(이것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공간과 시간의 휘어짐으로 나타난다)이 가능하다고 했다.
2. 조선일보 사설(2010. 12. 27) '올해 또 3000만원 장학금 내놓은 종군위안부 할머니'

역사적 명연설이 주는 교훈

20기 사관 **문 태 일**

내가 2008년도에 서울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복궁 등 서울의 문화재를 안내하고 해설하면서 관광객에게 알기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알찬 내용을 전달해주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2편의 명연설 사례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명연설 사례가 해설준비를 충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미국의 명연설로 알려진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며, 둘째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미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에 대한 연설이다.

첫째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 전쟁 중이었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이다. 이 연설은 게티즈버그 전투가 있은 후 4개월 후에 전장에 세워진, 당시 숨졌던 병사를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에드워드 에버레트(Edward Everett)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가의 첫 번째 연설 후 두 번째 연설로 거행되었다. 이날 링컨 대통령은 불과 266개의 단어만을 사용했으며 연설은 불과 2분 만에 끝이 났다. 그런데 바로 이 연설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힌다. 이 연설과 관련된 일화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5월에 17만 명이 넘는 미군 병사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부딪혔으며, 이 전투에서 7천 5백 명 이상의 병사가 전사를 했고, 5천 여 마리의 말이 죽었다. 이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헌정식을 10월 23일 거행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는 두 명의 인사를 연사로 초정했다. 한 명은 국무장관, 하버드대 총장, 미국 상원의원 등 요직을 역임했던 에버레트가 주 연사로 초빙되었다. 당시 에버레트는 명연설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자기는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연설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짜를 연기할 것을 주문했고 장례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날짜를 11월 19일 목요일로 연기했다. 그리고 장례 준비위원회에서는 이후 링컨 대통령을 초청했다. 링컨은 식이 시작하기 17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청 연락을 받았으며 이는 에버레트에 비해 40일이나 늦었다.

행사 당일 링컨에 앞서 에버레트는 두 시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천 명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끝마쳤다. 그 다음에는 링컨 대통령이 약 2분간 연설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링컨은 별로 박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에드워드 에버레트가 다음날 링컨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두 시간 연설했고 당신은 2분 간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두 시간 연설이 묘지 봉헌식의 의미를 당신의 2분 연설처럼 그렇게 잘 포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자신의 연설이 링컨의 연설보다 못했다고 실토했으며, 이에 대해 링컨은 『나의 연설이 완전히 실패한 연설이 아닌 것을 알아서 기쁘다』라고 답신을 보내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아무튼 연설 후 링컨의 연설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링컨 대통령이 연설한 266개 단어로 된 짧은 연설문 속에 미국의 건국정신, 바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민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남북의 용감한 사람들이 수행하여 헌납한 고결한 정신을 살아있는 자들이 이어 받아 완수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서 미국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젠 상징이 되어버린 “여든하고도 일 곱해 전에(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로 시작하는 연설에서 링컨은, 이 봉헌식을 단순히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고 말한 문장을 비롯하여 게티즈버그 연설문 문장은 지금도 많은 연설과 강의 그리고 교과서에 인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링컨 대통령이 연설 요청을 받고 약 15일간 계속해서 연설할 내용을 작성하고 또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며, 심지어는 기차를 타고 게티즈버그로 오는 기차 속에서까지 원고를 읽어보고 보완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링컨 미국 대통령이 2분을 연설하기 위해 15일간을 계속해서 준비했다면,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인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경복궁"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면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대한민국 궁궐의 상징이며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뛰어남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또 500년간 경복궁과 함께 했던 왕가와 조정 대신들의 정치와 삶의 행적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서 2시간 동안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나는 부끄러움이 앞섰으며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의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생도들에 대한 연설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1880년 1월 3성 장군(Lieutenant General)인 아더 맥아더(Arthur MacArthur)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에 잘 부응하여 1903년에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복무를 시작했다. 진급도 빨라서 38세인 1918년에 장군으로 진급, 그리고 12년 후인 1930년에는 대장 계급으로 최연소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1937년에 소장의 계급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가 1941년 중장으로 진급하여 현역으로 복귀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시 1944년 3월 일본군의 공격으로 필리핀의 바탄반도에서 호주로 철수하였고 그 후 7개월에 걸친 필리핀 탈환작전을 성공하였다.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후 미항모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았으며, 그후 6년 동안 일본의 군정을 책임졌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합참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함으로써 전세역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국전쟁의 확전을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1951년 4월 해임되었으며, 당시 미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시 "나는 52년의 군대생활을 마치려 한다.(I am closing my 52years of military service)"와 미국 군가 가사의 한 귀절인 "노병

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군에서 퇴역했다. 그리고 11년 후인 1962년 5월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수여하는 「실바너스 데이어 상(Sylvanus Thayer Award)」을 받으러 모교에 갔다. 그곳에서 상을 받고 나서 교장으로부터 생도들에게 훈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당에 운집한 2천여 명의 사관생도들에게 34분간 연설을 해준다.

그 후 1964년 사망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연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연설을 고별연설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이 실바너스 상은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실바너스 데이어(Sylvanus Thayer) 대령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며, 국가를 위한 봉사와 업적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인 「임무(duty), 명예(honor), 조국(country)」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평가되는 미 육사 졸업생 또는 일반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이고, 미 육사동문회는 1958년부터 매년 한 명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하여 왔다. 그래서 1961년에는 아이젠하우어 원수(General of the Army Dwight D. Eisenhower)가 받았고, 1998년에는 콜린 파웰 대장(General Colin Powell)이, 2000년에는 국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받는 등 시민과 졸업생 중 한 명이 매년 이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1962년 5월 12일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실바너스 상을 수여받고 생도들에게 훈시로 해준 연설은 사관생도를 감동시켰으며 연설 후 사관생도 전원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연설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함께 미국의 훌륭한 두 개의 연설로 인식되며 많은 구절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 연설문 중에 몇 문장을 골라 소개를 하면서 어째서 내용이 훌륭했다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미 학교 선배이자 육군 원수로 퇴역한 맥아더 장군의 행적에 대해 사관생도들은 모두 귀가 가렵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직접 얼굴과 모습은 처음 보게 되는, 그래서 약간은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시작할 때 참으로 멋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연설 문장을 소개하면 우선 연설의 기회를 준 웨스트모어랜드(General Westmoreland) 교장 등 내빈에 대한 인사를 하고 나서 첫마디가 [오늘 아침 내가 호텔을 막 나오려는데, 문지기가

나에게 “장군 님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묻기에, 나는 육군사관학교라고 대답했더니, 그 문지기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전에 한번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라고 물었다고 했다.(As I was leaving the hotel this morning, a doorman asked me, “Where are you bound for, General?” and when I replied, “West Point”, he remarked, “Beautiful place, have you ever been there before?)” 그 육사를 졸업했으며, 교장까지 역임한 맥아더 장군이 문지기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실토를 하자, 긴장하고 듣고 있던 생도들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으며, 잠시 웃고 난 생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문장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쟁광(戰爭狂)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군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평화를 원합니다. 사실 전쟁으로 가장 고통 받고 상처를 입는 이들이 바로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This does not mean that you are war mongers. On the contrary, the soldier, above all other people, prays for peace, for he must suffer and bear the deepest wounds and scars of war.)” 그리고 이어서 “하지만, 우리의 귓전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예언의 말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했던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노라』라고.(But always in our ears ring the ominous words of Plato, that wisest of all philosophers: 『Only the dead have seen the end of war』.)” 이 문장들은 군인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경우 용맹스럽게 적군을 물리치고 전승을 거두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전투에 임하지만,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는 사람은 군인이다.”라는 표현과 “죽은자 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으며, 쉬운 말이지만 감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서 소개를 했다. 그렇지만 군복무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나 민간인 중에서도 위험한 업종에 종사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덤덤하게 느껴질지도 몰라 다분히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문구를 읽을 때 군 복무 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전우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특히 위관장교시절 경비행기를 탈 때, 어느 날 같은 숙소에서 동거 동락하던 동기생이 탄 비행기가 헬기와 충돌해서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그 비행기에 내가 타고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직한 동기생 장례식 때 통곡하며 입장하는 가족들이 나의 부모로 보이고 관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비통함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엉엉 울었고 사실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가, 조총을 땅 땅 하고 발사하는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다. 그래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동기생 순직자를 비롯해서 젊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온다.

다음은 이 연설문 중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문장을 소개한다. "「의무」, 「명예」, 「조국」-바로 이 숭고한 세 단어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자질, 여러분의 미래를 경건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는 용기가 꺾일 듯 할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신념을 되찾게 해주고,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희망의 불꽃을 되살려주는 재기(再起)의 거점인 것입니다. (「Duty」, 「honor」, 「country」—those three hallowed words reverently dictate what you want to be, what you can be, what you will be. They are your rallying point to build courage when courage seems to fail, to regain faith when there seems to be little cause for faith, to create hope when hope becomes forlorn.)" 이 문장은 맥아더 장군이 처음으로 「의무」, 「명예」, 「조국」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다. 맥아더 장군은 연설 중에 「의무」, 「명예」, 「조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하고 이어서 제시한 이유와 그 3개 단어의 숭고한 가치를 실전 전투에 참전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이 3개의 단어는 미 육사의 문장(紋章)에 새겨진 글귀로 1898년에 정식 교훈으로 채택된 글귀이며, 또한 군인이면 누구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내가 1968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4년간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3개 단어들이었다.

엘리트이면서 또 천재라고 알려진 맥아더 장군도 당시에 1개월 전에 실바너스상 수상을 통보 받고, 그때부터 보름간 원고를 작성하고 또 보름간은 부인 앞에서 열심히 발표 연습을 했다고 한다.

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준비할 때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이 두 분의 연설사례가 나로 하여금 사전에 충실하게 해설 준비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20기 사관 이 치 훈

퇴역군인의 새로운 고향

- 전원생활 수기 -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전원생활을 꿈꾸어 본다고 한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며, 정년퇴역 후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은 시골마을이었으며, 지금의 평촌 신도시가 바로 그곳이다.

도시개발로 인해 나의 고향은 추억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려 실향민이 되었다. 고향이 시골인 사람은 누구나 감수성이 민감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 봄의 아지랑이와 새싹을 보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가난하고 배고픈 삶이었지만 고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느꼈던 그때 그 시절의 낭만과 추억에 대해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나는 중학교까지 시골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서울로 유학을 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꾸었던 군인이 되기 위해 사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심신을 단련하며 학업에도 정진하여 그 꿈을 이루었다. 홍보를 하기 위해 모교에 방문을 한 고교 선배 공군사관생도에게 영향을 받아 공사(空士)를 택했으며, 사관생도 시절을 거쳐 임관 후 전투조종사가 되어, 그로부터 20여년은 공군의 작전분야에서 청춘을 바쳐 멸사봉공했고, 그 후 10여년은 국방부 정보본부와 중국, 인도, 캐나다 주재 국방무관으로서 국제정보와 군사외교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숙명처럼 복무하다가, 36년간의 공군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나는 캐나다 주재 국방무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정년퇴직 후에는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살던 아파트를 전세준 돈으로 시골에 땅을 사놓기 위해 홍천지역 땅을 물색하러 주말을 이용, 몇 번 발품을 들였으나 좀 멀다고 느끼던 차에, 양평읍 외곽에 있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 위치한 땅을 보고는 마음이 꽂혀 5백여 평을 사게 되었다.

용도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논(畓)이었기에 국내 부재 기간 중 농사 대용으로 조경수 수백수를 심어 놓고 출국하였다. 또한 전원주택을 지을 것에 대비하여 바윗돌을 사서 축대를 쌓고, 연못까지 만들어 놓았다.

귀국 후에 가보니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었으며, 특히 반송, 산수유, 주목 나무 등이 잘 자라고 있어 기분이 좋았다. 귀국 후 마지막 보직으로 생각하며 봉직한 공군본부 정보차장과 전투발전단 연구위원 시절, 출타 가능한 주말이면 양평에 있는 농막에 머무르며 나무와 텃밭을 가꾸면서 전원생활에 워밍업을 실시하였다.

군에서 퇴역한 후 세계 3대 조경수라는 금송 100여주도 추가로 심었으며, 5~10년 키운 후 팔아서 해외여행 경비로 쓸 요량이었지만 전문지식 부족으로 상당수가 죽었고, 일부는 친구에게 팔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열댓 주는 2~3m 정도의 제법 큰 나무가 되어 볼 때마다 즐겁다. 퇴역 하던 해, 예기치 않게 옛 상관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무역대리점에 취직이 되어 출퇴근을 하게 되었지만 서울 집을 정리하고, 서울이 가깝고 양평의 관문인 양수리에 집을 사서 전원생활과 서울직장생활을 병행하게 되었다.

2년 남짓 회사를 다니다 사표를 내고 전원생활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자, 5백여 평에 심은 나무 가꾸기만으로 소일거리가 부족한 것 같아 나무를 더 심어서 가꿀 수 있는 저렴하고 넓은 땅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의 현직공무원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다가 힘들다고 매물로 내놓은 제천에 있는 2천여 평의 땅을 발견하고 현지 확인해보니, 포장된 진입도로와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고 전기까지 들어와 있는 농막시설이 포함된 논(畓)이었고, 더욱이 땅 가운데에 있던 하천을 메워 5백여 평의 경작지가 확장된 땅이었다.

크지 않은 돈으로 이 땅을 구매하여 황금반송 1,500여주와 황금주목 100여주를 취미와 소일거리 확장차원에서 심어 놓았다. 나무를 심고도 남은 5백여 평은 인근마을 할머니 이장에게 1년 단

위로 경작권을 주면서 내가 심은 나무나 잘 지켜 주기만을 기대하였다. 그 이장은 매년 수수를 심어 적지 않게 수확하는 것 같다.

제천 농장에는 봄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루 종일 혹은 1박 2일로 제초작업을 하며 잡초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나무가 더 커지면 모양을 가꾸기 위해 가지치기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되므로 일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곳은 직접 힘이 닿는 데까지 가꾸다가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계획이다. 시골에 살면서 땅에 관심을 갖다보면 비싸지 않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알게 될 경우가 있다. 집사람이 그러한 땅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사게 되었다. 양평 문호리에 있는 2천여 평의 보존임야를 분할하여 평당 몇 만원에 사게 된 것이다.

마침 인접한 땅주인과 협력하여 버섯재배사 명목의 개발허가를 받아 우리 소유의 1,500여평을 개발 할 수 있었다. 산허리를 깎아 계곡을 메우고 축대와 배수로를 만드는 등 토목공사를 하고나니 전혀 다른 모양의 번듯한 땅이 되었다. 산을 깎으며 나온 바윗돌로 축대를 쌓고, 남향받이 경사면에 5단계의 단지를 만들었다.

그 위에 버섯재배사 4동과 30평짜리 창고를 짓고 준공을 받았다. 2개월에 걸친 인원, 장비 비용과 토목공사 및 시설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러나 개발한지 5년이 넘은 지금, 개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보존임야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 논(畓)과 창고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많이 달라졌다.

나는 양수리 강변에 살던 집을 전세주고 현재는 '에덴농원'이라 명명한 이곳 문호리에서 살고 있다. 이곳은 단지가 큰 나무들로 성곽처럼 둘러싸여 있어 나만의 작은 성(城)처럼 느끼며, 산중계곡에 위치하여 공기도 좋고, 4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쾌적하고 만족스럽다.

집은 기존의 30평짜리 건축물을 개축하여 살고 있다. 건축소재는 시공자가 중국을 통해 붉은 백두산 화산석을 들여와 외벽을 쌓았고, 내부는 순수 황토만으로 모든 벽과 바닥을 만들었다. 소위 말하는 웰빙소재를 이용하여 지은 아담한 단층집이다. 단지 내 조경은 양평읍 농장에서 키우던 조

경수들을 캐다가 직접 심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꽃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면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금도 매년 봄이면 나무시장에 새로 나온 조경수나 꽃나무를 사다가 심는다. 금년 봄에도 십여 그루를 사다 심고 나니 기분이 좋다. 전원생활은 바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다. 주농야독(晝農夜讀)이랄까? 국가안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현실을 직시해보면 걱정되는 일도 많다. 그래서 틈틈이 인터넷을 이용, 안보관련 지식정보 자료(file)들을 새롭게 갱신(Up date)하면서 중요한 안보관련 논쟁(issue)이 있을 때 내 나름의 견해를 글로 엮어 몇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올리기도 한다. 그동안 100여 편의 안보관련 글을 올린 것 같다.

그것은 평생토록 국가의 연금을 받고 있는 퇴역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안보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최소한의 양심과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전원의 자연 속에는 무언의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다. 사람마음에 여유와 평화로움을 주고, 맑은 공기와 무공해 식품과 함께 육체의 건강을 더해주는 보약이 되기도 한다.

전원생활은 건강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 특히 연금생활자들에게 적합한 생활터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23기 사관 **장 창 연**

국방보훈클럽에서 진정한 봉사활동을 전개

내가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군 관련조직 또는 군 전역자들이 만든 이런 저런 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활동이 보수를 받기위한 모임 또는 그냥 친선모임의 성격으로 활동하였지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11년 초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배님의 권유로 사단법인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KAVAS)라는 봉사단체에 들어가 처음으로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진로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내가 담당한 내용은 직업군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군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KAVAS)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장기복무 후 전역한 군 출신들이 다수 있어 자연적으로 이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초 군 출신들끼리 우리 군과 관련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성격을 지닌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국방보훈클럽을 창설하게 되었으며 내가 국방보훈클럽 초대 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방보훈클럽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국방보훈클럽은 2012년 8월 31일 창설된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KAVAS)의 병설단체이다. 본 클럽은 군복무중 순직한 순직자 미망인과 유자녀들에게 특화된 지원활동을 펼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원활동을 통하여 장기복무 후 전역한 군 출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와 전문성 재활용을 위해 좋은 일거리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설립하게 되었다.

국방보훈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장기복무 군 출신으로 언제나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고, 준회원은 장기복무 군 출신이지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적인 사람과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에서 활동 중인 여성 직업멘토로 구성되었으며, 명예회원은 본 클럽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관심이 많은 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회원 수는 정회원은 예비역 장군과 대령을 주축으로 40여명이 있으며 준회원은 군 출신 30여명과 민간인 여성 30여명 등으로서 총 1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보훈클럽을 창립한 배경은 그동안 많은 직업군인들이 임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나 전투로 전우들을 잃은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에는 순직자의 유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하여 아픈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외면하다시피 지나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가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힘쓰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한 순직자 유가족들을 국가와 국민들이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일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장기복무 군 출신들만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때 순직자 유가족들을 동정심이나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멘토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국방보훈클럽의 사업 중점은 첫째, 청소년 유자녀들에 대한 직업진로 멘토링 활동이다. 청소년 유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방황을 계속 한다면 자칫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을 이끌어 줄 직업진로 멘토링은 절실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순직자 미망인들의 자활을 위한 도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망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들이 몸담았던 부대 또는 개인적인 인연 등을 동원해 직장을 알선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 미망인들에 대한 위로방문 등 돌봄 활동도 함께할 계획이다.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군에서 몸 담아 온 장기복무 군 출신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전역 후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사업성공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우리들도 훨씬 보람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 왔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동료 가족들을 돕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이다. 우선 유가족의 실상파악에 한계가 있고 유가족들이 단체화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접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보훈처나 각 군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며 아울러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장기복무 군 출신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나는 순직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봉사 활동으로 유가족 미망인에 대한 자활지원은 물론 유자녀들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혼신의 노력으로 돕고자 한다. 아무쪼록 공군사관학교 선후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세계 8대 불가사의, '라이스 테라스'를 다녀오다

24기 사관 **유 원 봉**
(여행 사진작가)

필리핀 바나웨(banaue)의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s)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199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2000년 전부터 엄청난 규모의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 즉, 계단식 논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 계단식 논들은 '필리핀 콜디레라스(Phillippine Cordilleras)의 계단식 논'이라고 불린다.

바나웨의 여러 곳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타드(batad)에 있는 라이스 테라스는 로마(Rome) 시대의 거대한 반원형 극장을 연상시키듯이 계단식 논이 웅대하게 펼쳐져 있다.

이 바나웨의 라이스 테라스는 필리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겨 필리핀의 가장 큰 지폐인 1000페소(3만원)에도 그림이 들어 있을 정도이다.

지난 '12. 12. 22 ~ '13. 1. 26(36일)간의 동남아 여행에 필리핀을 마지막 일정에 포함시켜서 가기로 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동남아 여행 중에서 한 번도 필리핀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여행에도 필리핀만은 확정되지 않은 일정으로, 도착해 그쪽 상황을 봐가면서 바나웨 여행 출발여부(go, no go)를 결정하기로 했다. 숙소도 예약을 하지 않고 출발했다. 필리핀을 망설였던 것은 가기 전에도 많은 동남아 사람들한테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였지만, 매스컴에도 총기, 납치 사고를 흔하게 접해서였다. 필리핀에 도착해서도 결심을 못하던 차에, '계획을 했으면 시도해 보라'는 조언에 힘을 얻어 결행하기로 했다. 여기 필리핀에는 다른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치안이 불안해서 그런지, 40~50m 간격으로, 주요 건물, 쇼핑센터, 지하철 등에도 공항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색을 실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던 것도 결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번 동남아 여행의 목적은 사진 촬영이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지는 2~3회 가 본 경험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작년 2회의 사진전시회에도 여행사진으로 했었다. 본격적인 사진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행에서 사진을 다시 찍고 싶었던 장소를 선정해서 일정과 루트를 잡았다. 이번 바나웨 여행도 라이스 테라스의 경관을 담고 싶은 마음에 포함시켰다.

바나웨(banaue)까지의 긴 여정

2013. 1. 21(월)

필리핀에 도착하여 일정상 앙헬레스(Angeles)에서 2박, 수빅(Subic) 카마얀 비치 리조트(Camayan beach resort)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4일째 아침 일찍 수빅 베이(Subic bay)의 일출 촬영을 마치고,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택시를 타고 바기오(Baguio)로 가기 위해 빅토리 라이너

터미널(Victory liner terminal)로 갔다. 필리핀에서는 각 버스 회사들이 각자의 터미널이 있었다.

아침 9시 버스를 탔다. 버스는 그동안 필리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지프니(jeepney: 소형 합승버스)와는 달리, 대형 에어컨 버스로 와이파이(WiFi)까지 갖춰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운영은 아날로그(analog) 수준이었다. 수시로 정차하고, 차장이 티켓을 펀치기로 거리에 따른 가격을 구멍을 내서 주었다. 가히, 달인 수준으로 정확하게 펀칭! 서비스는 최상? 타고 내리는 승객을 일일이 좌석까지 안내하고 짐도 들어주고……. 짧지 않은 8시간의 버스여행이었지만, 새로운 풍경에 지루하지 않게 마침내 바기오(Baguio)에 17:00에 도착하였다.

바기오는 필리핀 북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가장 유명한 고지대(高地帶) 휴양도시이다. 해발 1,500m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 20˚c로, 최고 기온이 26˚c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봄, 초가을 정도의 날씨라서 우리나라 교민들도 자녀 교육 등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종 목적지인 바나웨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사가다(Sagada)로 가서 1박하고 가는 방법과 바나웨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는데 교통편이 1일 1회 밖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바기오에서 1박을 해야만 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호텔로 가서 짐을 푼 후에 너무 늦으면, 명일 바나웨행 버스티켓을 예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터미널도 알아 둘 겸 찾아 갔다. 일정상 바나웨로 직접 가기로 했다. 번함 파크(Burnham park)인근 'KMS Line'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 위치도 확인하고 1일 1회 운행하는 아침 8시발 버스티켓을 예매했다.

2013. 1. 22(화)

아침 8시 바나웨 행 버스를 타기위해 부지런히 07:30에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버스는 09:00가 다 돼서야 출발했다. 24인승 좌석을 대형차가 아닌 미니버스에 배치하다 보니, 좌석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차 뒷자리에는 암탉 한 마리가 실려 계속해서 울어 대더니, 차가 출발해서 움직이니 신기하게도 조용해졌다. 다행히도 차는 고물차는 아니라 안심했다.

바나웨를 2시간 정도 남겨놓은 라뭇(Lamut)부터는 산악 지역이었다. 산등성이 아니면 8~9부 능선으로 거의 포장은 되었지만 산악길이라서 구불구불 좁은 길로 가다보니 속도도 낼 수 없고, 내려다보는 풍광이 마치 경비행기를 타고 계곡을 가는 기분이랄까? 산허리를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절벽이고, 어느 순간은 계곡이 보이곤 하니 풍광을 보기 위해 좌석을 옮겨 가면서 경치 감상에 바빴다. 도중에 한 번의 타이어 펑크에도 예정보다 30분 정도 빨리 7시간 30분 만에 목적지 바나웨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숙소인 '원주민마을숙소(Native village Inn)'는 30분 정도 버스 타고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숙소는 원주민들이 사는 이푸가오(Ifgao) 주택 식으로 지은 오두막집(Cottage) 형태였다.

숙소는 화장실, 세면장이 별도로 있고, 냉난방 시설도 없는 자연에 동화되어 있는 자연친화적이었다. 도착 시에 약간의 가랑비가 내려서 명일 투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상예보를 물어보니 산악 지역이

라서 예측 불허란다.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밤에 추울 것 같아서 담요를 추가로 부탁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해 놓았지만,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다. 아직도 지붕에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문을 열어 재끼니 언덕에 세워 지은 숙소는 짙은 안개에 휘감겨서, 벌레소리와 동화돼 하늘에 붕 떠 있어 천당에 있는 기분이었다.

일찍 서둘러서 짐을 챙기고, 아침은 식빵과 잼, 커피로 해결했다. 지프니를 타고 바나웨에 위치한 여행안내센터(Tourist information center)로 가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짐만 챙겼다, 무거운 배낭은 내일 바타드(Batad)에서 1박하고 올 때까지 맡겼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세계문화유산 바나웨는 라이스 테라스를 볼 수 있는 전망대(view point)가 네 곳이 있다. 그래서 트라이시클(tricycle: 2인용 좌석을 부착한 오토바이)을 대절해서 한 시간 반 투어를 마치고, 바타드에 있는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를 보기 위해 바타드 환승장소(Batad junction)까지 400페소(1만원)에 가기로 했다.

Batad junction

원래 그곳을 갈려면 하루에 1회 15:00 바타드 새들(Batad saddle)까지 가는 지프니가 있다. 그곳까지 지프니로 가려면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 관광객들은 여러 명이 같이 렌트해서 가는 경우

Batad saddle

가 대부분이다. 나는 바타드로 가기 전에 먼저 버스터미널에 가서, 2일후(1일 2회; 18:00, 19:00 운행) 마닐라(Manila)행 버스(19:00) 티켓을 예매했다.

나는 바타드 환승장소(Batad junction)까지 트라이시클을 타고 바타드 새들(batad saddle)까지는 1시간 걸어서 가기로 했다. 결국 바타드는 환승장소까지 30분 걸려 트라이시클을 타고, 환승장소에서 새들까지 걸어서 1시간, 새들에서 바타드까지도 도보로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총 2시간 반 걸려야 바나웨에서 갈 수 있는 곳이다.

바타드에 트라이시클로 갈 수 있는 길은 환승장소까지이고, 새들까지는 경사가 심해서 지프니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새들부터는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바타드에 도착하니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모든 관광객이 입장료 50페소(1,300원)를 내야 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필요하다면 여행가이더(tour guider)도 소개해준다. 나는 이곳에서 전망이 좋은 숙소를 정하기로 하고 'HILL SIDE INN'에 숙소를 정했다. 숙소비는 1일당 200페소(5,000원)로 모든 곳이 통일되어 있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세계에서 많은 배낭여행들이 모이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바타드의 라이스 테라스는 바나웨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그 계단식 논과 함께 살아가는 반가안 마을(bangaan village)은 이푸가오(Ifgao)족의 잘 보존된 토지 관리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숙소가 있는 마을에서 15분 정도 내려가면 그 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경사에 2000년 전부터 논둑을 만들어서 쌀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필리핀 사

람들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알 것만 같았다. 외부와 통하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내가 찾아왔던 길이 유일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번 나가고(09:00), 들어오는(15:00) 그것도 한 시간 정도 산을 넘어야 지프니를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시장에 일을 보려면 하루가 걸려야 되는 것이다.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미국 전역에 걸쳐 문명을 거부하고 18세기식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아미쉬(Amish) 공동체처럼 이푸가오(Ifgao)족도 그렇게 수천 년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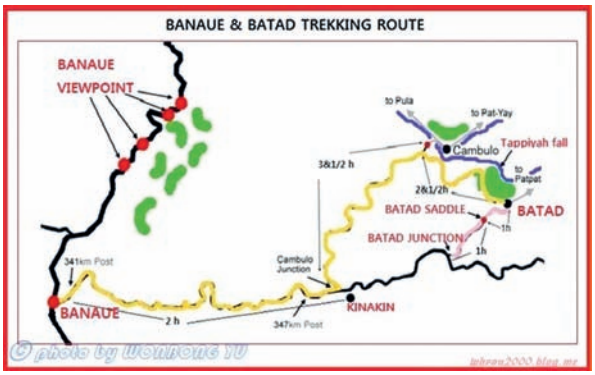
바타드에는 숙소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높이 76m에,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30m 폭의 노천탕이 있어 관광객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타피야 폭포(Tappiya waterfall)가 있다. 여기 가서 폭포를 보지 않았다면 완벽한 관광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캄불로 트레킹(cambulo trekking)

2013. 1. 24(목)

캄불로(cambulo)는 바타드에서 산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오지(奧地) 중의 오지 산골마을이다. 금일 트레킹은 캄불로→키나킨(Kinakin)→바나웨 코스이다. 총 8시간의 산악 트레킹이다. 가이더(guider)가 있어야 한다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지도와 정보를 설명으로 대략적인 루트(route)를 머릿속에 상상하며 무모하지만 강행하기로 했다.

키나킨까지는 걸어서 가고, 키나킨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바나웨로 갈 예정이었다. 만약에 차를 못 타더라도 6km이기 때문에 19:00 마닐라 행 버스는 여유 있게 탈 수 있다는 계산에서 강행 결심을 굳혔다. 아침 일찍 든든하게 식사를 챙겨먹고 식빵과 잼(jam), 물을 챙기고 출발했다.



가는 길 첫 입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었다. 학교를 거치면서 열린 문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살짝 보니, 선생님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보니 지난밤에 묵었던 숙소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트리스였다.

그리고, 식사 중에 내가 폭포에 갔다 왔더니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고 했더니 마사지를 하라고 졸랐던 그 아가씨가 아닌가! 밤에는 호텔에서 마사지 일도 하고, 낮에는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트레킹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출발했다.

가는 길은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 같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습하고 질퍽거려, 길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따금씩 길이 없어져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곳이 많았다. 나무를 잡고, 땅을 짚고 올라야 하는 급한 경사의 연속이었다. 인적이 드문 곳인지라 사람만 보이면 물으면서 가는 도중에, 인기척이 나서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발견했다. 급한 비탈길을 맹인 노인이 지팡이를 짚

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들었던 생각을 접고 갈 수가 있었다.

한참을 가다가 캄불로에 거의 다와 갈 무렵 트레킹 일행을 만났다. 반가웠다! 필리핀 남녀 대학생들이었다. 인사도 나누고 기념촬영도 찰칵! 그렇게 하여 2시간 반 만에 캄불로에 도착했다. 필리핀 대학생들이 동반했던 가이더는 키나킨까지 4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 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말에 난감했다.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어 걸음을 재촉하였다. 처음 한 시간 정도는 급경사에 숨이 멈출 것 같은 상황에서 몇 번이고 쉬면서 올라갔더니 2m 폭 정도의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길이 산허리를 돌아가는 길이 계속되었다. 다 온 듯하면, 또 있고 하기를 일곱 여덟 번 계속되더니 멀리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이 보여 희망을 갖고 부지런히 가보니, 역시나 산길 마지막 정상이다! 그곳은 구멍가게였던 건물 같았다. 지금은 잠겨 있지만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장사가 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잠깐 목을 축이고 휴식을 취한 후에, 천천히 포장된 내리막길을 30분 정도를 내려오니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서 보니 지프니가 오고 있었다. 반가웠다! 캄불에서 오는 내내 만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가울 수밖에... 200여m 내려오니 작고 초라한 구멍가게 한 채가 있었다. 목도 마르고 해서 물을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물(water)!' 하면서 물 마시는 시늉을 했더니, 할머니가 플라스틱 물병과 컵을 갖다 주었다. 목마르던 차에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시원하게 잘 마셨다. 가게 간판에 써 있는 주소를 보니, 마침내 4시간 동안이나 걸려서 도착한 키나킨이었던 것이다.

한참을 기다려도 빈차를 만나지 못하던 차에 고물 트럭이 지나가서 손을 들었더니 바로 세워 줘서 1km 정도 가다가 내려야만 했다. 산길 비탈이 무너져 내려서 흘러내린 돌과 흙을 실어다가 버리는 작업 차였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어느덧 바나웨에 도달하여 8시간의 대장정 트레킹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바나웨에 도착하자마자 버스 터미널 근처 호텔 식당인 '라스베가스(LAS VEGAS)'에 들어가서 간단히 몸을 닦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었다.

시원한 맥주 한잔에 식사를 마치고, 종업원에게 오늘 트레킹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경이롭다는 듯 놀랜다. 힘들고 고통스런 일정이었지만, 무한한 보람과 내 자신에 대한 자심감을 얻은, 뜻 깊은 하루였다. 오후 7시 마닐라(Manila)행 오하야미(OHAYAMI) 버스에 몸을 싣고 10시간 만에 마닐라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3박 5일간의 여정이 총 36일간의 일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었지만 내 생애에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가 있었다. 필리핀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치안이 좋지 않아서 꺼려왔던 것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여행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선호 여행은 오지의 사진촬영 여행이다. 자연이 좋고, 순수한 사람 내음이 그리워서일 것이다. 언어 소통은 쉽지 않지만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행을 갔다 오면 다음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더욱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날 라운딩에 설레는 마음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까? 여행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무한한 엔돌핀(endorphins)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여행 중입니다. 전할 말씀이 있는 분은 1년 후 통화합시다!' 언제든 내 마음대로, 훌쩍 떠나면서 살 수 있다면! (이지상 산문집 ≪ 낯선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다면 ≫ 중에)을 상기하면서 다음 여행을 기대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15기 사관 **최광섭**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후회 없는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옳은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나 해답이 넘쳐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을 호소하고 삶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맨다.

미국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칼 필레머(Karl Pillemer) 교수가 이에 대해 옳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5년여에 걸쳐 인생을 충분히 경험한 일천 명 이상의 각계각층의 노인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조언을 듣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쳐 2011년 11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10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의 현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산 증인"인 노인들의 눈으로 본 "훌륭한 삶"에 대한 조건과 방법들을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출간 직후부터 2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제목별로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1. 행복한 결혼 생활

우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 자기와 정말 잘 맞는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수백 명의 잠재적인 배우자들 중에서 한 명의 특별한 사람

을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게 되는데, 배우자감을 만난 상황이 충동적인 감정에서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 들었건 상관없이 일단 멈춘 후 보고, 들으라고 그들은 충고한다.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야 하며 상대에 대해 서로 충분히 알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로맨틱한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의 결혼 결정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늘 그 덫에 걸리고 만다.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를 알아 가는 시간이 몇 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결혼을 서두르다가는 평생이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결혼생활을 통해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과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렇담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로 맞을까? 나와 근본적으로 비슷한 사람, 생활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사람, 즉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유머감각, 경제적 능력, 멋진 외모 등의 이유로 사랑의 감정에 빠질 수는 있으나 결혼은 성장 배경이나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또 하나, 결혼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 즉 친구와 해야 한다. 젊은 시절의 가슴 떨리는 열정이 사라지고 무뎌졌을 때 두 사람을 함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안다. 얼핏 아이들이 답일 듯싶지만 정답은 우정이다. 아이들이 다 커버린 50대 이후 삼십여 년 이상의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야 하므로 우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어 지는 게 당연하다.

일단 결혼했으면 모든 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는 것 보다 더 많이 베풀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갈등상황에서 소통하는 법을 빨리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난 채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 평생 하고픈 일을 잘 하는 법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당연하다. 만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적인 전문성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성공의 핵심요소인 인간관계를 경시하기 쉬우나 사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제일조건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 모든 문제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일을 할 때는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어도 너무 나서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 방식대로 일을 시키려 하기 보다는 의논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해가며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똑똑한 리더가 되는 것보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리더가 되는 게 좋으며 겸손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며 누구와 만나든 그가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대체로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3. 바르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부모들이 많으나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비법은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렇게 생긴 아이와의 유대는 평생을 가게 된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 모르나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내는 거라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귀띔한다. 그들은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 부모 역시 자녀와 인간관계를 맺다보니 불가피하게 더 좋아하

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되 절대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편애로 인한 상처는 생각보다 크고 오래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훈육은 애정 어린 방식, 즉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체벌, 특히 아이를 때리는 것은 최악의 훈육이며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길이자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슴에 멍을 남기는 행위이다.

어떤 가족이든 균열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균열의 조짐이 있으면 이를 초기에 파악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 진정시켜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자녀와의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 화해가 필요한 쪽은 언제나 부모다. 부모 쪽에서 양보를 해서라도 서둘러 화해를 하도록 노력하라.

4.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몇 가지 조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므로 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출세와 양육,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표가 있는 중년과 달리 노년의 삶은 미지의 영역으로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젊을 때 건강관리와 운동에 힘을 쓰지 않고 음주, 흡연, 과식, 비만 등으로 몸을 망가뜨리면 꼭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몇 년 혹은 그 이상의 만성질병으로 혹독한 고생이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라. 100년을 써야 될 지도 모르는 내 몸을 잘 만들기 위해 미리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따라서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풍부할수록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더 커지므로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호기심을 잃지 말며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중요한 비결이다.

5. 후회 없는 삶

노인들과의 인터뷰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정직" 즉 "진실을 말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아내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신뢰를 얻게 된다. 인생의 현자들은 항상 그리고 무조건 정직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도전할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회가 오면 "예스(YES) !"하고 잡아야 한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게 두려워서, 일이 많아져 고생할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어서 좁은 공간에 틀어박혀 꼼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대신 문을 굳게 닫고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또 하나,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한다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며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여행경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고 그들은 회상한다. 용서를 비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그들은 권한다. 상대방이 떠나고 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미뤘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살면서 자기가 범한 실수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져야 하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6.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다섯 가지 조언

인생은 정말 짧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하라는 말이 아니라 짧은 인생에 맞춰 살라는 것이다.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에도 주변의 작은 일상에 감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걱정을 그만 하라는 말이다. 걱정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독이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게 정 어려우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라.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만일 지나온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건강을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다. 걱정스러운 상황에 신중하게, 또 충분히 대비하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 믿음을 가져라.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허지만 어떤 종교를 믿을지는 각자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이르고 싶은 말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도록 애써야 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17기 사관 임홍규

등산을 통해 전우애를 다진다

우리 17기생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지도 어느덧 48년이 흘렀다. 생도시절 4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으면서 생활하였고 임관후 20여년 이상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 동기생들을 만나면 형제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던 것인데 이제 70줄에 접어들고 평범한 야인으로서 아무런 부담없이 만나니 더욱 애틋한 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우리 기생은 69명이 임관하여 5명이 비행사고로, 3명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민초(民草)로 제3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과천 서울 대공원에서 간단한 산행 후 식사 겸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동기생 모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때 내가 제안한 것은 공군에서나 사회에서 장군도 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친구들이 적극 참여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호칭도 생도시절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야 동기생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제안이 우리 붕우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군에서 모두 전역하고 민간항공이나 일반 직장에서도 정년이 되어가던 즈음에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 동기생애를 더욱 다지게 만든 것은 우리 동기생들이 총동창회를 이끌게 된 17차 운영기수일 때부터이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총동창회를 이끌면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총동창회를 운영할 때 등산, 바둑, 골프 모임을 주관했던 체제를 그대로 동기회에 적용하여 총동창회 운영을 마친 후에도 등산, 바둑, 골프로 매달 2~3회 만나 취미를 즐기고 우정을 나누고

있으며, 나는 총동창회 등산 행사를 주관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 기생의 등산회장으로 매월 2회 이상의 등산을 실시하고 있다. 동기생들과 등산을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와 어떻게 동기생애를 다져오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논어에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라는 말이 있다.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물을 좋아 한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산을 좋아 하다보면 어진마음을 갖게 되고 물을 좋아하면 지혜로워 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진마음은 사랑과 배려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등산은 심폐기능을 좋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다리근력을 튼튼하게 하여 준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좋은 경치를 보고, 기묘한 바위나 계절 따라 변하는 형형색색의 나무나 이름 모를 풀들을 보노라면 세상의 걱정거리는 모두 잊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소위 말하는 앤돌핀이 형성되고 T-임파구를 강화시켜 잡병의 침범을 막아주며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병을 치료하는 쾌유(快癒)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산을 오르다보면 암이나 다른 중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등산을 통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일부 선진국에서 산림의 수종도 경제림에서 쾌유림(快癒林)으로 바꾸고 있다 한다. 또한, 등산은 부킹도 필요 없고 입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면서 협동심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는 편리하고 좋은 운동이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많다. 무릎이나 발목관절을 상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스틱은 필수이고 등산화도 잘 선택해야 하며 배낭의 짐은 가볍게 하고 비상구급약을 지참하는 것은 물론 간단한 비상처치요령도 익혀 두어야 한다.

동기생 등산회장을 4년간 맡으면서 거의 100번에 가까운 산행을 실시하였다. 등산코스를 정할 때는 본인이 먼저 직접 다녀와 교통편이나 지형을 파악해 두고 가보지 못한 곳일 때에는 인터넷 등산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산행기를 읽고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사전 준비가 끝나면 동기생 홈피에 등산코스를 지정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등산이 끝나면 사진과 함께 등산후기를 동기생 홈페이지에 올려 등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서울 근교에는 좋은 등산지가 많다. 우선 간편하게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청와대 뒤편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백악산),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 독립문 건너 안산, 남산 등은 가벼운 차림으로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이다.

외곽으로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관악산, 용마산, 남한산성, 검단산 등이 병풍처럼 펼쳐 있다. 이 산들도 전철을 이용한 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연계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북한산은 수려함과 다양한 등산로가 어느 산보다도 빼어나지만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이기도 하다. 비봉에 오르면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있고 삼천사 고찰은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3천이나 되는 승병을 길렀던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봉우리 이름도 원효봉, 의상봉, 나한, 나월등 불교와 관련된 명칭이 붙어 있다. 북한산의 성곽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 삼전도에서 치욕적으로 항복한 수모를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는 숙종의 의연한 결의로 1711년에 축성된 것이다. 용마산은 고구려 온달장군과 신라 김유신 장군의 싸움터이기도 하다. 그만큼 유서 깊은 산들이다. 역사에 조예가 깊은 동기생들이 많아 같이 산길을 걷다보면 애환이 깃들었든 역사 이야기에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로의 여행을 하곤 한다. 또한 현역시절 비행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민간항공에서의 이야기 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산에서의 술은 일절 금했고 음식은 자기가 먹을 분량만 싸오라고 부탁하지만 항시 인심 넉넉한 친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무겁도록 지고와 배불리 먹고도 남아, 지고 내려오기가 귀찮을 정도이다.

등산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4년 전 초겨울 운길산 능선을 덕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재고개를 넘고 운길산 능선으로 들어설 때이다. 몇 개의 봉우리를 넘고 넘는데 오랫동안 등산을 잘하지 않았던 한 동기가 마지막 봉우리를 오르면서 완전히 지쳐서 생도시절 관악산 정복하듯 사력을 다해 정상에 오른 것 같았다. 정상에서 초콜릿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니 조금 괜찮아 보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내 판단이었다. 하산 길에 안색을 살펴보니 얼굴이 노랗게 변했고 잘 걷지를 못하는데 비는 내리고 안개가 짙게 낀 데다 부축하기도 어려워 119를 부를까 어쩔까 망설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수종사 절도 나오고 큰길도 있어 쉬고 또 쉬면서 큰길로 나와 택시에 태워서 운길산 역까지 갔다. 회식장소에 도착하여 장어구이를 곁들여 술 한 잔 걸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회복되어 기분 좋게 술도 잘 마셨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다보니 땀을 많이 흘리고 혈압이 떨어져서 죽을 고생을 하였다고 실토했다.

또 한 번은 용문산에서의 일이었다. 현역시절 용문산 사이트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친구가 1,157m 용문산(가섭봉)을 거뜬히 올라, 감회도 깊고 기분도 좋아 보였는데 문제는 하산할 때 일어났다. 스틱 두 개를 이용하여 짚고 내려오는 데 그만 스틱을 헛짚었다. 그럴 때는 스틱을 던져버려야 하는데 손목에다 끈을 조였으니 스틱을 쥔 상태로 넘어지면서 바위에 이마를 부딪쳐 피가 많이 흐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름대로 지혈을 위해 담배 가루를 상처부위에 붙이고 한사람은 머리를 잡고 나는 압박붕대를 친구 머리 주위 상하 좌우로 감기 시작하였다. 한편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산중이라 전화가 불통이었다. 한사람이 급히 상원사로 뛰어 내려가 119에 신고도 하고 절에 있는 구급약들을 가져왔다. 다친 사람과 일행이 상원사에 도착하여 깨끗이 씻고 약도 좀 바르고 나니 구급차가 도착하였다. 모두들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군 생활을 통해 터득한 상황 판단과 처치능력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여기서 내가 얻은 교훈은 나이에 걸맞은 적당한 코스를 택하여야 되겠다는 것과 항시 일행 중 누가 지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등산후 지나친 음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른 봄날 부인들을 동반하여 가벼운 차림으로 아차산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옛 고구려 온달장군과 김유신 장군의 전쟁모습을 상상도 해보고 꽃 구경도 하며 여유작작하게 사가정역 방향으로 하산 후 근처 아귀찜 집에 들러 뒤풀이를 했다. 술이 술을 부르다보니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맥주 섞은 소주만 마셨다. 빈병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직도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심신이 이완된 상태에서 지나친 음주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번은 사관학교 지도근무 기수인 14기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등산도 하고 회식을 하기로 회장단과 논의하였다. 등산코스는 청계산 앞 인능산으로 정하고 성남기지 방향으로 하산하여 버스 편으로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식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침 기상은 초가을 날씨였으나 쌀쌀한 편이었고 산에 오르자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이 안보일 정도로 시정이 나빠져 힘든 산행이었지만 모두 불평 한마디 없이 계획된 산행을 마쳤다. 가락시장에서 회를 뜨고 매운탕도 끓이고 술잔도 서로 주고받으며 선후배끼리의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그 후 14기 선배님들이 답례로 대공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간단한 산행 후 야영장에서 등심과 삼겹살에 야채와 막걸리와 소주를 준비하여 몸소 고기도 구워주시면서 후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우리를 감동케 하였다. 생도시절이나 현역 복무 중에도 지도근무라는 인연으로 항시 보살펴주시던 선배님들이지만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졸업 후 40년이 넘게 지난 후에 다시 자리를 함께하여 회포를 푸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그 후 우리의 메추리 기수인 20기들과도 상호 초청행사를 가졌는데 우리는 후배들과 함께 대공원 등산을 마친 후 근처식당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끊임없는 덕담과 추억담을 나누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14기 선배님을 만났을 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우리 동기생은 여러모로 특별난 기생인 것 같다. 입시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영화 빨간 마후라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입시 지원자가 많았고 생도시절 도태율도 최소였으며, 임관 인원에 비해 대령, 장군 진급도 가장 많이 한 기수로 꼽힌다. 입교 시 모래알처럼 개인 성향이 강한 기생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기합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화합도 잘되고 모군과 모교사랑에도 적극적이라는 평을 가끔은 듣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17기생의 등산회장으로서 동기생들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전우애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긍지를 느낀다. 앞으로도 동기생들의 등산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동기생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청산녹수는 무구한 세월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자꾸 자꾸 새로워지네
저분이 작년에도 왔다 갔나 자꾸자꾸 의심하네
뽑낼 것도 없는 쭈그러진 얼굴 그래도 청산녹수는 다시오라 하네
10년을 더 다니며 진달래 피고 짐을 구경이라도 해봅세
다리 힘이 딸려 쉬엄쉬엄 간다하면 청산녹수인들 오지마라 하겠는가

자랑스러운 빨간 마후라와 공군순직조종사 부인회

이 명 자
9기 사관 故 강춘근의 처
(순조회 부회장)

남편이 몸담았던 "공군이 내 집이요 울타리"입니다.

거대한 언덕, 공군이 존재하기에 내가 의지했고 꿈을 키워 자녀들을 훌륭히 키웠으니까요. "조국을 위해 내 한 몸 바치리라" 아마도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의 군인들이라면 이 말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1975년 6월 야간공중근무 중 39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한 내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믿으며 그는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공군전투조종사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귀하고 아까운 젊은 생명의 산화에 어찌도 그렇게 절절히 목에서 피가 나도록 통곡하고 슬퍼했는지…

이제 73세가 된 지금 생각하니 홀로된 30대 초반의 나이에 1남 2녀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강박감과 나머지 삶에 대한 표현 못할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4살, 6살, 8살 어린 자녀들은 말 못하고 어느 날 홀연히 떠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은 40대 초, 중반의 자녀들은 너무나 훌륭히 자라 사회의 일원으로, 대기업 임원으로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했기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공군순직조종사 부인회(약칭 순조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1970년 은나래회 라고 명칭하고 공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조종사 및 일반장교, 부사관 등을 포함하여 오랜 세월 유지하다

사정에 의해 2005년 정관을 개정, 보충하여 공중근무 중 순직 산화한 남편을 둔 미망인만으로 재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명칭을『공군 순직조종사 부인회(약칭 순조회)』라고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전국에 000명이고 서울, 경기 지역은 약 40여명 정도로 격월제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순조회가 하는 일은 회원 상호간 긴밀한 유대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중사고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처음 아픔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찾아 고통을 같이 나누며 하루빨리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적은 위로금과 함께 멘토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회원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홀로되어 이제는 주름진 삶이 노하우로 다져진 얼굴들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회원 자녀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일원으로 대기업체 임원, 대학교수, 의사, 성공한 자영업 등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이 없게 잘 성장하였으며 이 모든 영광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민"됨과 "공군"이라는 거대한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긍지를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산과 같은 공군의 울타리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회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회원들은 젊을 때는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며 살기위해 힘들어 했고 늙어서는 아픈 곳이 많아 힘들어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다른 회원의 즐거움이 자기 일처럼 축하하는 아름다운 단체로 남기를 바라며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여도 지금의 생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더 이상 회원 수가 증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 공군의 현역과 예비역 단체가 순조회를 위한 넘치는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하며 그 한 예로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앞 오른쪽에 빨간 마후라의 값진 희생에 대한『순직조종사 추모비』는 우리 순조회 회원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장한 어머니상』을 공군 전우회가 다시 제정하여 저희들에게 백배 용기를 주고 있으며, 매년 순직조종사 추모비 참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심에 회원 모두가 거듭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막강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현충일 참배

6기 사관 이윤우

오늘은
동작동에 멈춰선 구름이
푸른 조종복
빨간마후라
반짝이던 그 눈동자 되어
응시한다

동기들이 보낸 꽃바구니
비석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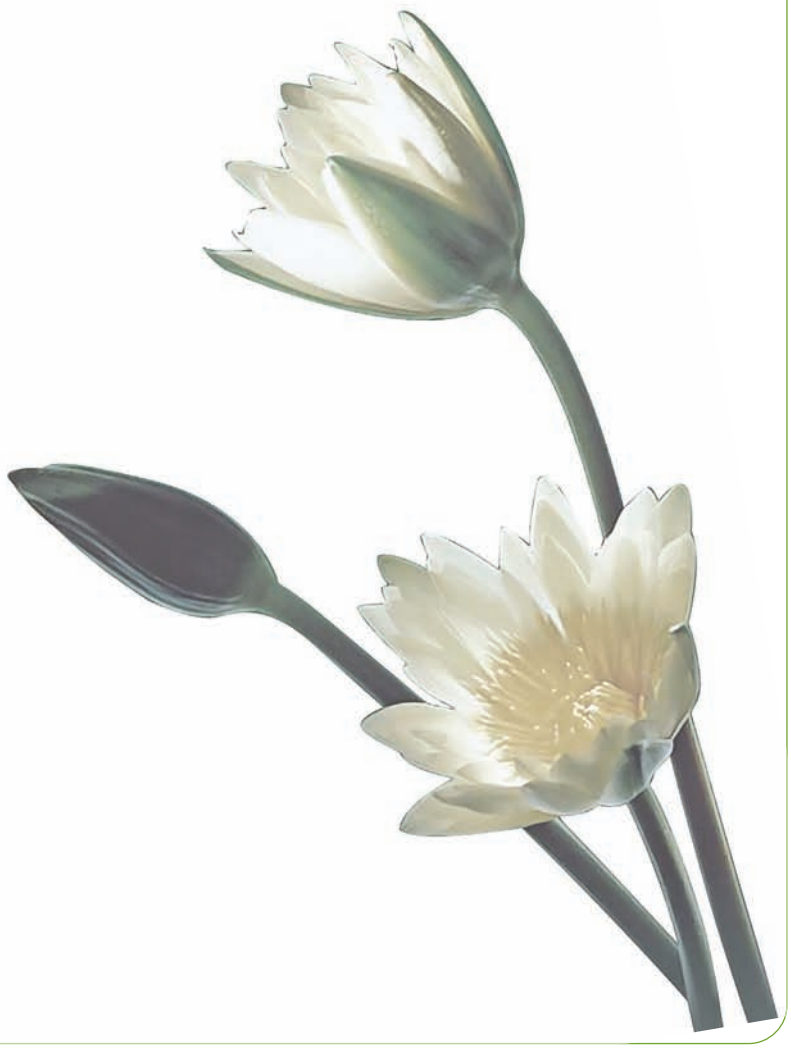
악수 대신 비석을
쓰다듬으며
어이 친구 잘 지내지

매년 찾을 때마다
생전의 그 모습
젖어들고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던
그 웅지

반세기가 흘러가도
백발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어

일 년 후에 다시 찾을
그리움 남기고
돌아서는 발걸음 무거웠네



5기 사관 동정

5기 사관회는 등산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 17명 정도가 참여하여 우면산, 대모산 등 가까운 산에 다니며 동기애를 돈독히 하면서도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5기 사관 이재우 동문(박사)은 과거 생도 당시 구대장(훈육관) 두 분을 국방회관으로 초청하여 고생스러웠던 생도생활의 추억담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8기 사관 동정

8기 동기회(팔진회)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회원부부 30명이 현충원 참배 후 육군 수도군단 포병 여단 산하 최전방 포병대대를 방문하여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현황 소개를 청취, K-9 자주포를 견학하였다.

그 후 해병2사단 5연대 평화전망대를 방문하여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인접하고 있는 북한땅에 대한 현황소개와 1.8km 인접한 북한땅을 목격하였다. 불철주야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튼튼한 안보태세를 직접 보고 안심하고 돌아왔다.

11기 사관 동정

지난 5월 3일 11기 사관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부 행사로 성무의식과 공군 블랙이글스팀의 화려한 곡예비행을 관람하고, 2부 행사는 기수별 자체 계획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기념행사 이후 11기 사관은 가족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에서 만찬을 즐기고, 광안대교와 영덕 인근 불령계곡 등을 돌아보며 각별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도 하였다.

11기 동기생회와 이광학, 허차동, 김용찬 회원은 감사의 표시로 모교 발전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하며 각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공사 발전기금으로 쾌척하였다.

17기 사관 동정

17기 동기회(붕우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조찬포럼, 학술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장호근 회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장 회원이 속해 있는 공군협회(연구위원회)에 200만원을 찬조하기로 결의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종학원'을 개설하고 한국의 얼을 심어주고 있는 김응수 회원의 장학사업도 적극 돕기로 결의하였다.

20기 사관 동정

20기 사관은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기수로서 공사 총동창회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전 동기생이 일심 단결하여 노력함으로써 지난 6월 말부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으며, 특히 11기 사관 임관 50주년 행사에는 부부동반으로 2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였다.

한편, 평소 장애인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김성일 동문은 2012년 10월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에 취임하여 2014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세계 명품 국제 스포츠대회로 만들기 위해 동부서주하고 있으며, 백재현 동문은 2013년 3월부터 국제 항공운수 사업 비행을 시작한 에어 인천의 운항본부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1기 사관 동정

21기 사관은 올해 7월부터 예정된 공사총동창회 운영준비를 위해 배창식 동문을 차기 총동창회장, 성봉환 동문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고 마무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매 짝수월 21일을 동기생 건강과 우애를 다지는 '여명의 날'로 정하고, 올 2월에는 서울숲에서 장충단 성곽길, 4월에는 남산산책로와 역사 문화탐방으로 친목의 시간을 가졌고, 6월 5일에는 이천호국원, 대전현충원 및 서울현충원에서 먼저 간 동기생들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2기 사관 동정

22기 사관은 '14년 7월부터 공사총동창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1년 말부터 김은기 추진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준비위원회를 편성하여 사전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윤성기 동문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년 선발하는 '자랑스런 예비역'으로 선정되었고, (사)한국사회공헌공동체협의회 총재로 취임한 이영하 동문(현 한국군사학회 부회장)은 최근 장애우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헌신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로고스' 해외사업부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원용 동문은 지난 5월 8일 공군전우회와 공군가족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여 향후 법률자문이 필요한 공군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한서대학교 수학과에서 왕성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근 동문(교수)은 최근 수학분석의 최고수준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athemetical Analysis(IJMA)의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23기 사관 동정

23기 사관 이영덕 동문이 2월 21일 대한민국 항공회 제27대 총재로 취임하였다. 이 동문은 군복무중 미국 미시시피주립대에서 항공공학 석사를 취득한 바 있고, 전역후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 안전보안실장, 운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항공회는 1945년에 조선항공협회로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국토교통부 등록 사단법인이자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이며, 국제항공연맹(FAI)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단체이기도 하다.

FOOSUNG 퍼스텍(주) 유콘시스템(주)
FIRSTEC CO.,LTD. UCONSYSTEM CO., LTD.

퍼스텍, 유콘시스템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퍼스텍은 1975년 설립이래 최첨단 방산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선도업체 유콘시스템㈜와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 자동소화장치 |

| 유도조종 · 구동장치 |

| 환경조절장치 |

| 항공용FADEC |

| 지상통제장비 |

| 무인항공기 |

| 무인지상로봇 |

• 분당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1번지 후성빌딩 4F, TEL 031-627-4500,FAX 031-627-4599
• 창 원 공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8번지,TEL 055-282-4131,FAX 055-284-7141
• 유콘시스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19번지,TEL 042-936-2252,FAX 042-936-2250

• 인천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홍콩, 칭다오, 스자장, 푸저우, 취안저우, 자무스, 웨이하이, 방콕, 마닐라, 세부, 괌
• 김포발: 오사카, 나고야 • 부산발: 방콕, 장자지에 • 제주발: 원저우, 우한, 난창

JEJU AIR
예약 : www.jejuair.net 1599-1500

하림

蔘鷄湯

대한민국 사계절 보양식

즉석삼계탕

하림 즉석삼계탕은 하림에서 직접 사육한
삼계용 닭에 수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 조리한 후
급속냉동한 제품으로 가정에서 직접 만든 것과 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www.harim.com

외국어 길잡이 CLI어학원

CLI 프린트기 토너 및 전산소모품 일괄 공급

(조달청 및 방사청 등록업체)

CLI
프린터토너전산소모품생산공급

www.cli.or.kr

Native Speaker 와 외국 환경속에서
1:1맞춤식 **듣고/말하기** 위주의 체험학습

이러한 분들께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
기업체, 은행, 지자체 등 출장강의(단체 방문 수업)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학원수강 등 기회가 없으신 분
바쁜 일정으로 TOEIC 준비가 어려운 직장인
퇴임 후 취업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
자녀들의 여름, 겨울방학 중에 해외 Camp 보내려는 부모님들
입사시험 Presentation을 준비하는 단기 복무 장교(ROTC, 학사장교 등)
초, 중등생 영상학습(1:1 맞춤식)-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영어 교육

온라인 영어 수학 교육

프린트기 토너 및 전산 소모품 일괄 공급

화상용 빔 프로젝트 램프, 전산용품, 각종공구류 등
조달청(G-2B) 방사청(D-2B)통하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국방 조달 납품 업체

사용하는 프린트기 제조회사

SAMSUNG LG EPSON FUJI xerox SINDOH 신도리코 Canon CANON IN KOREA hp

램 프

라 벨

멀티텝

케이블

협력 업체

CLI대표 김학연 장군 (육사 28기 임관 1972)

금마 7공수 여단장('96)
육군작전처장 ('98)
철원 보병 제 6사단장 ('99)
원광대/한양대/연세대 대학원 졸업

CLI창업 ('03)
국방일보 성공신화 게재('04)
중소기업청 우수 상공인 ('06)
국군 TV 다큐방영 ('08)

서울 서초동 CLI본사 (서초역)

문의 및 상담전화 : 02-525-0764 FAX : 02-525-0244

행복의 가치도, 투자의 가치도 쑥~쑥~

회원의 믿음과 희망이 군인공제회의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산하사업체 : 제일F&C / C&C / 대한토지신탁(주) / 한국캐피탈(주) / 덕평관광개발(주) / 고려종합물류(주) / 공우이엔씨(주) / 문학개발(주)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총동창회 알림

- 정기총회
-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공사재단 발전기금 출연 현황
- 전역자 현황
- 주소 변경
-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편집후기/기고안내

정 기 총 회

– 제20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20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6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9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21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무 보고

◇ 회원현황

- 임관 총인원 : 9,285명
- 현재 인원 : 8,506명
- 예비역 인원 : 4,160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674,513,090	19차년도
20차년도 적립	36,363,873	평생회비 : 14,200,000 이자수입 : 22,163,873
적립 총액	710,876,963	

◇ 20차년도 운영목표

'공사 전체 동문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총동창회'

1.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 및 자긍심 고취

2. 모교 및 공군발전 적극 지원

3. 안보 전문집단 역할 수행

◇ 주요 추진 업무 결과

1. 부대 격려 방문

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북부사

나. 일선부대 : 8전비, 17전비, 6전대, 29전대 및 일월산 레이더기지

※ 부대 방문시 총동창회 현황소개 및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친목의 날 행사

가. 등산대회

- 과천대공원('13.4.17) : 250명 참석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12.11.6) : 60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운영

3. 총동창회 임관기념 행사

가. 장소 : 공군사관학교('13.5.3)

나. 참가인원 : 11기 사관(50주년) 및 가족
총동창회 임원 등 약 약 100여 명

다. 주요행사 : 1부 행사 - 사관학교 계획에 의거
2부 행사 - 기수별 자체행사

※ 발전기금 : 11기(1천만원), 이광학(1천만원), 허차동(1천만원), 김용찬(1천만원)

4. 61기 사관 졸업식 대표보라매상 수여

가. 수상자 : 소위 허환

나. 공사 추천자 표창

5.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발

가. 38기 사관 (故) 오충현

6.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동

가. 공사 졸업생(61기) 특강 및 기념품 증정('12.2.14)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12.9.12)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12.9.27)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12.10.4)

마. 현역후배 임원기수 간담회('12.9.6)

바. 기타 간담회 (수시)

7. 조문활동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 공지
- SMS 전파(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상하 10개 기수)
- 조기를 통한 조문(82건)

나. 현역 순직자 조문(1회)

- 회장단 직접 조문, 유가족 위로 및 조의금 전달

8.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간담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12. 12. 5 / '13. 3. 13(2회), 공군회관

나. 참석 인원 : 순조회 회원 및 총동창회 등 50여 명

9. 공군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가. 공군 인트라넷을 활용한 현역과의 소통 확대

나.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기금 기부(1천만원)

다. 총동창회 홈피에 공군 주요 현안 적극 홍보

▣ 심의의결 안건

안건 1. 20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안건 2. 21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안건 3. 21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 운영금 현황

◇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20기 찬조	8,220	6,42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2~40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720	825	
광고비	1,500	4,385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2,220	13,410	

◇ 회원 / 특별찬조

(단위 :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유병구 (19기)	100
윤자중 (1기)	100	박춘택 (12기)	20
심인태 (30기)	20	이경훈 (30기)	20
서동열 (4기)	10	최홍선 (5기)	10
송중호 (10기)	10	정지수 (11기)	10
김동호 (2기)	5		

◇ 행사 후원

최병철 (20기)	순조회 오찬 및 선물, 등산 기념품
김성두 (20기)	바둑대회 기념품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 금 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949-094213
예 금 주	성봉환(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당연직 임원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3~20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1~41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1차년도 운영기수는 21기로 임원기수는 13기~41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비 납부 안내

1~28기 완납

⊙ 20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12.07.01~'13.0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25	124	124	0						
26	118	118	0						
29	138	80	58	김덕중, 위진호, 임영선					
30	156	73	83	정기영, 채지광					
31	164	112	52	강호석, 고종봉, 고형규, 공기명, 권태호, 김기중, 김기현, 김길수, 김명곤, 김용덕, 김용복, 김유인, 김재환, 김정석, 김종명, 김종출, 김진수, 김흥천, 남보우, 류전수, 박갑용, 박동진, 박병곤, 박봉수, 박양기, 박정규, 박창일, 반석태, 배상욱, 서상원, 성덕용, 송병근, 윤용인, 이남형, 이덕수, 이동규, 이동환, 이병곤, 이종근, 이종영, 이창희, 이현주, 임동훈, 임완재, 임헌구, 정승진, 조성욱, 조철수, 최대영, 최영준, 한동석					
32	166	83	83	권혁철					
33	174	45	129						
34	167	59	108	김학근, 박장수, 장명수					
35	249	25	224	이강래, 조철희					
36	263	15	248	이수성, 최혁준					
37	255	11	244	최윤곤					
38	237	14	223		39	223	15	208	
40	241	15	226		41	241	6	235	
42	277	27	250						
43	271	8	263	김상진, 김용재, 이종훈, 주성규					
44	218	11	212		45	220	19	201	
46	227	1	226		47	201	2	119	
48	192	105	87		49	200	1	199	
50	193	3	190		51	203	1	202	정진규
52	202	1	202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0	186	
56	155	1	154		57	157	0	157	
58	134	0	134		59	137	0	137	
60	148	1	147	이승우	61	156	0	156	
合	현재인원 : 8,523			납부인원 : 2,828			미납인원 : 5,695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 (7/27)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납부자 현황

(2012. 6. 30 이전)

기수	납 부 자 명 단
29	강동운, 강명흥, 구용우, 권오봉,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석종,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용환, 김융희, 김철생, 김회영, 김홍온, 나충렬, 남승우, 문병규, 박성기, 박장경, 박재복, 박춘기, 박충민, 변우경,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양철환,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재, 이경달, 이규복, 이남건, 이동우,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상번, 이수억,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재순, 조병호, 조평현, 진호영, 차영헌, 최상철, 최성옥, 최승철, 최용준, 최정근,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한충수,홍상기, 홍승조, 홍완표, 홍재욱
30	강구영, 강병희,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상기,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원규, 김용환, 김용훈, 김일형, 김정수, 김종석, 김종선, 김진완, 김철포, 김호식, 나시중, 박국서, 박상곤, 박성희,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서휘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안창경, 양승주, 염동선, 우정규, 윤기성, 이경훈, 이광수, 이성남, 이수성, 이연수, 이옥규, 이용곤, 이종돈, 이종식, 이지영, 이학주, 장기석, 장덕진, 장석현, 장조원, 장헌동, 정경두, 정규호, 정병수, 정 수, 정재수, 정중구,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최종묵, 채덕상, 채종목, 최성규, 한상덕, 한진국, 황성돈
31	강경한, 강윤성, 고석목, 고영대, 김남호, 김동철, 김수복, 김시완, 김인택,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김현주, 마권용, 문승주, 박병진, 박승필, 박우일, 박항윤, 박해구, 박해룡, 방은상, 배순근, 손상준, 손영철, 신기균, 신재현, 오재현, 위종성, 유병길, 유보형, 윤흥기, 이병묵,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왕근, 이제환, 이준희, 임봉수, 장덕봉, 장동현, 장영익, 장춘석, 전권천, 전병승, 정석환, 정재형, 조병수, 조승균, 조한구, 조현기, 조환기, 채관석, 최병섭, 최승준, 한상훈, 허기주, 현용희, 황명균, 황중서
32	김석운, 김성수, 김성재, 김성환, 김연환, 김영권, 김영기, 김영수, 김우근, 김장욱, 김정룡, 김재구, 김진식, 김진호, 김창석, 김창훈, 김충원, 김태승, 김현곤, 김형식, 남동우, 문정주, 문채봉, 박대홍, 박동성, 박동창, 박세권, 박승룡, 박지업, 박천신, 박호영, 부성철,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송재윤, 신영호, 신익현, 심부수, 심청용, 안상훈, 양용규, 원인철, 윤석준, 윤영배, 이건섭, 이건완, 이광준, 이동호, 이문수, 이성우, 이성형, 이일하, 이재웅, 이재환, 이정대, 이종선, 이준행, 이창훈, 이창희, 이한균, 이형걸, 임상섭, 장화용, 전종일, 전진문, 정광선, 정만해, 정영식, 조용호, 조준로, 천상필, 최원기, 최인영, 최재동, 최재영, 최환종, 탄명훈, 하성룡, 허창회, 황영하, 황인우
33	김대기, 김동수, 김수태, 김순길,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신용인, 심동섭, 오창규, 오흥재, 유준종, 윤병훈, 윤왕준,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흥, 임경수, 장경식A, 장경식B, 장병노, 정남진, 정영철, 정회주, 조광제, 조성호, 최근영, 최병호, 최용섭, 최현국, 한상균, 홍재기
34	감수봉, 강병철, 강우석, 고광준, 김승수, 김신욱, 김영림, 김용복, 김일웅, 김정열, 김종모, 김종명, 김종범, 김진우, 김학준, 김현수, 김형호, 김 훈, 노승환, 박기곤, 박상로, 박종용, 박흥식, 백윤형, 서종대,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종, 윤기철, 윤진철, 이권표, 이성렬, 이성용, 이성호, 이인영, 이재소, 이재한, 이해원, 임삼규, 임상수, 임수훈, 임 원, 장기주, 정병학, 정상길, 정찬기, 정찬영, 조현상, 차용재, 최상수, 편완주, 허남히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강효석, 강 훈,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온용섭, 유진협, 윤재룡, 이영배, 이치원, 임채현, 정수성, 최병오
36	김남돈,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윤성모, 이준모, 임이철
37	기노신, 김연규, 나은일, 박상균,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박종환,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

기수	납 부 자 명 단
39	강진구, 권성범, 김순태,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중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붕선
40	강정헌, 김문일,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만우, 이봉세, 이헌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박종운,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42	강문종,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섭,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조진호
44	김도현, 김상훈,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박정수, 이강희, 이수훈, 이재욱, 이한기, 전용성
45	강영운, 곽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긍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신범수,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언, 민병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종,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전찬삼,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종,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이수리
50	안성민, 양정환
52	박인철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6	이한준
	51, 54, 55, 57~61기 납부자 없음.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예산획득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지원

⊙ 기금모금 현황

구 분	금액(억)	비 고
기업 및 단체	35	사양화학(주) 등 62개 단체
동 문	22	학교동문 3,000명
학부모/후원자	4	학부모 등 409명
합 계	61	총 3,409명, 62개 단체

⊙ 기금사용 계획('13년)

구 분	금액(억)	비 고
생도 국외 견문확대	2.2	생도 1인 120만원 지원
생도 학술 · 문화 체육사업	0.3	생도 대외 학술대회 참가 및 대외 경기 출전
지정기부사업	0.3	풍석군사학기금 등 3개 사업
기타 사업	0.4	행패러대회 개최 등
합 계	3.2	'96~'12 사용 총액(27억)

※ 기금원금은 영구 보존되며, 이자수입(3.39~7.7%)만으로 운영

⊙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 (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 학교본부 및 박물관 기부자사진/명부유지, 고액출연자 감사패 증정 등

공사재단 발전기금 출연 현황

※ 기금총액 : 61억원

⊙ 1억원 이상(10명)

삼성테크윈㈜(10억1천)	삼양화학공업㈜(6억3천1백)	대우중공업㈜(5억)
㈜부영(3억)	이종학(공사3, 2억6천2백)	최동환(공사27, 1억5천)
보잉코리아(1억2천6백)	장지량(9대공참총장, 1억5백)	㈜메타바이오메드(1억 약정)
한국항공우주산업㈜(1억)		

⊙ 1천만원 이상(84명)

강민수(공사9)	곽헌성(공군가족)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대중(역대대통령)	김도영(공사1)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용찬(공사11)	김용철(공군가족)	김재식(공군가족)	김재환(란스튜디오)	김진호(공사27)
김홍래(공사10)	공사발전후원회	공사총동창회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다음카페 공.학.모	㈜바이텍정보통신	박영민(사후53)	박원석(사후2)	박진숙(공사5)
보라매법당	㈜블루니어	㈜서로윈	서정욱(사후37)	서진태(공사8)
소망교회	승진기술(주)	양창근(공군가족)	온성철(공사4)	원불교충북교구
㈜원일인터내쇼날	유상신(공사8)	윤대봉(공사8)	이광학(공사11)	이성재(공사25)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임용환(공군가족)	장덕수(공사13)	정제훈(공군가족)
최성열(공사15)	최용칠(공군가족)	故최진형(공사56)	하정효(전경련IMI GAMP회장)	㈜한국로스트왁스
한광희(공사9)	허차동(공사11)	홍재학(공사4)	해인사(대한불교조계종)	공사2기생회
공사3기생회	공사4기생회	공사5기생회	공사6기생회	공사7기생회
공사8기생회	공사9기생회	공사10기생회	공사11기생회	공사17기생회
공사18기생회	공사19기생회	공사20기생회	공사26기생회	공사30기생회
공사35기생회	공사36기생회	공사37기생회	공사40기생회	공사51기생회
공사52기생회	공사53기생회	공사54기생회	공사55기생회	공사56기생회
공사57기생회	공사58기생회	공사59기생회	공사60기생회	

⊙ 5백만원 이상(41명)

강홍조(초정노인병원이사장)	경주전장	공영화(공사7)	김규태(공군가족)	김남돈(공군가족)
김대욱(공사15)	김락은(공군가족)	김문숙(군무원)	김선곤(공군가족)	김인기(공사3)
박찬옥(공군가족)	안창명(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윤익수(사후37)	최춘홍(독지가)
공사1기생회	공사14기생회	공사15기생회	공사16기생회	공사21기생회
공사22기생회	공사23기생회	공사24기생회	공사25기생회	공사27기생회
공사29기생회	공사31기생회	공사32기생회	공사33기생회	공사34기생회
공사39기생회	공사41기생회	공사42기생회	공사43기생회	공사44기생회
공사45기생회	공사46기생회	공사47기생회	공사49기생회	공사50기생회
공사50기생회				

⊙ 1백만원 이상(303명)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수준(공사22)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2사관총동문회	공군발전협회	공군전우회청주지회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회(공사18)	군사과학원	권혁달(공사9)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경복(공사3)	김경중(공사12)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광은(군교수)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김덕실(공사19)
김도식(공사8)	김두만(사후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양수(공사13)	김연호(공사34)	김영본(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은기(공사22)	김을식(공군가족)	김이곤(사후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근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헌(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주식(공사15)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 현(공사14)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석(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남완수(공사39)	농협(청주물류센터지점)	㈜다우산업	도성한정식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루시컨설팅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한(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자(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성국(공사16)
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선(공사14)	박준범(공사49)	박지훈(공군가족)	박창권(공사27)
박춘택(공사12)	박흥식(공사34)	배기준(공사12)	배양일(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동기(공사16)	비씨카드	사후77기동기회	서동열(공사4)
서명교(공사46)	㈜새서울고속	㈜선우켐텍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설현주(공사41)	㈜세일하이텍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대성(공사17)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균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신표근(공사18)	심성용(공사46)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병철(공사13)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안택순(공사14)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양철환(공사29)

엄상영(공사24)	연양희(공사21)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윤희(공군가족)	오필환(공사23)	외환카드	유병구(공사19)
유병회(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흥(공사21)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상주(공사25)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자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현(공사13)	이기호(공사41)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식(공사43)	이문호(공사17)	이봉운(공사24)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오(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억수(공사14)
이영준(공사18)	이영하(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은(공군가족)	이정윤(공사45)
이정일(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식(공사11)	이태윤(공군가족)	이한호(공사17)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윈플로	일진중전기㈜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상훈(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임호순(공사24)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세현(공사33)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승혜(군교수)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귀균(공군가족)	정민우(공사47)	정성규(공사14)
정중구(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정희두(공사45)
조규식(공사17)	조미행(공군가족)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찬(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사후59)	조환기(공사31)	주창성(공사16)	주님의교회
차옥환(공사17)	차종권(공사20)	차홍준(공군가족)	채관석(공사31)	천기광(공사18)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범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인(공군가족)
최부용(공사35)	최상곤(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용환(공사15)	최정봉(참사랑병원이사장)	최현국(공사33)가족	최호준(공사22)
하만윤(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용(공사21)	학부모친목회	한봉철(공군가족)
(주)한드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원동(공사24)	212대대비행교수회	공사13기생회	공사28기생회
공사38기생회	공사44기순직자(5명)	공사48기생회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12.7.31	중장	윤학수	0002	25	'12.11.15	소령	김완희	1407F	51
	중장	김용홍	0002	26	'12.11.30	소장	김도호	0002	28
	준장	권오봉	0002	29		준장	정기영	0002	30
	준장	박장경	0002	29		중령	김태욱	6708	32
	준장	안준기	0002	29		중령	이호석	7008	32
	준장	진호영	0002	29	'12.12.14	대위	최진형	7007	56
	중령	정영철	1428F	33	'12.12.31	대령	김용득	1419F	28
	소령	정흥식	7507	39		대령	김회영	1419F	29
	대위	강필성	4007	50		대령	문병규	1709	29
	대위	신나단	7507	50		대령	박충민	4009	29
'12.8.31	대령	양신혁	1449W	29		대령	윤정용	7009	29
	대령	이철호	1409W전	29		대령	이경남	1439F	29
	중령	김태현	3008	40		대령	이경달	7009	29
	소령	우문기	7507	40		대령	이명길	4609	29
	중령	박상균	1418F	41		대령	이유인	1439F	29
	중령	이민우	1428F(J)	41		대령	이인섭	4009	29
	소령	양은승	1407F	45		대령	이 준	7509사	29
	소령	지병규	6707	48		대령	임영선	1439W	29
'12.9.27	소령	김영민	1707	39		대령	표상욱	4609	29
'12.9.30	소장	김홍온	0002	29		대령	한봉완	5509	29
	중령	김병선	1418F	39		대령	김종석	2509	30
	소령	김건환	1407F	45		대령	양승주	8109	30
	소령	김동곤	1437H	45		준장	이지영	0002	30
	소령	신 환	7207	48		준장	이학주	0002	30
'12.10.31	중령	박호영	1708	32		준장	조보근	0002	30
	대령	이재한	3008	34		준장	임동훈	0002	31
	소령	박민환	4007	38		준장	최승준	0002	31
	중령	정주호	3008(S)	39		대령	강태군	4609	32
	중령	박종원	5508	40		대령	권혁철	7509	32
	소령	이광일	1407H	48		대령	구자열	3009	32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중령	김강일	1438H	32	'12.12.31	대위	엄태훈	4607	55
	대령	류석오	4609	32		대위	이지호	4007	55
	대령	문정주	7209	32	'13.1.31	소장	정표수	0002	27
	대령	박재엽	1709	32		대령	윤기성	1429F	30
	대령	박종범	7509사	32		대령	강태원	3009	32
	대령	박종호	8109	32		대령	진용일	4509	35
	대령	송기표	7009	32		소령	문승진	1807	39
	대령	이광준	3009	32		소령	고동훈	6707	49
	대령	이용길	8009	32		소령	최현규	4507	49
	중령	이일하	7008	32	'13.2.28	중령	황지홍	8008(J)	32
	대령	이재환	1419C	32		대령	김현호	1809(J)	35
	대령	이정대	4009	32		중령	김창희	1708	36
	중령	이헌수	4608	32		소령	서정렬	7007	40
	중령	전건욱	1448W	32		소령	박창근	4507(J)	41
'12.12.31	대령	전진문	4009	32		중령	박창훈	4508	41
	중령	정병주	2508	32		소령	박설남	1437C	45
	중령	박길수	1428H	33		소령	송호석	1417F	45
	대령	오창규	1419F	33		소령	신건우	1417F	45
	대령	임상수	1439W	34		소령	권태진	1457F	46
	소령	김동욱	7507사	35		소령	고장호	1407F	46
	중령	오세철	1418C	36		소령	고진성	1407C	46
	중령	조준학	8008	36		소령	김동욱	1407F	46
	대령	권오창	1429C(J)	37		소령	김상래	1407F	46
	중령	김기준	1418F	38		소령	김성두	1407F	46
	중령	신광우	1428C(J)	38		소령	김성묵	1407F	46
	중령	이수만	1428F(J)	38		소령	김원진	1407F	46
	소령	김경록	7507	39		소령	김인경	1407F	46
	중령	오윤균	1708	39		소령	김종대	1407F	46
	중령	허근호	1708	38		소령	김진수	1407F	46
	소령	박승화	1407W			소령	김진현	1407C	46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소령	김철교	1407F	46		대위	권기호	7207	56
	소령	김환열	1407F	46		대위	김문수	1707항	56
	소령	박수용	1407F	46		대위	김상현	7007	56
	소령	서진원	1407F	46		대위	김성용	6707	56
	소령	성수현	1407F	46		대위	김현수	1407W	56
	소령	송기창	1407F	46		대위	백정은	4507	56
	소령	신병근	1407F	46		대위	신형민	4507	56
	소령	양동현	1407F	46		대위	유철희	6707	56
	소령	유영수	1407F	46		대위	이승언	4507	56
	소령	유정현	1407F	46	'13.2.28	대위	이정욱	4507	56
	소령	윤도연	1407F	46		대위	이희남	1607	56
	소령	윤희준	1407F	46		대위	임대열	1707항	56
	소령	이기상	1407F	46		대위	임도영	8007	56
	소령	이수연	1407F	46		대위	임성열	1407R	56
	소령	이순웅	1407F	46		대위	임희주	4507	56
'13.2.28	소령	이창익	1457F	46		대위	정성윤	1707항	56
	소령	이 혁	1407F	46		대위	정재욱	1407W	56
	소령	장경훈	1407F	46		대위	차승렬	4507	56
	소령	장정희	1407F	46		대위	최해연	6707	56
	소령	정우락	1407F	46		대령	이권우	3009	30
	소령	정현수	1407F	46		중령	김재권	2507	39
	소령	조남웅	1407F	46		중령	이주철	3008(J)	39
	소령	조승민	1407F	46		소령	채진우	1417F	44
	소령	조익진	1407F	46		소령	유태욱	1427F	45
	소령	조준범	1407F	46	'13.3.31	소령	김남교	1407F	46
	소령	조진기	1407F	46		소령	김양수	1407F	46
	소령	지만식	1407F	46		소령	김현성	1457F	46
	소령	최승식	1407F	46		소령	박부영	1407F	46
	소령	홍주현	1407F	46		소령	배현호	1407F	46
	대위	송인성	1407W	51		소령	윤홍주	1407F	46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13.3.31	소령	정동철	1407F	46	'13.6.30	대령	김창길	4508	32
	소령	정현동	1457F	46		대령	최재영	1419F	32
	소령	정현욱	1407F	46		중령	최증조	1708	32
	소령	조재찬	1407F	46		중령	차선암	4508	34
	대위	안현균	1807	56		중령	임성훈	1438W	35
'13.4.30	대령	이동우	1439F	29		중령	최희준	4508	37
	대령	정재순	3009	29		중령	김용운	1438F(J)	38
	대령	구 정	1449F(J)	30		중령	남이훈	1428C	38
	대령	김종선	1429F	30		중령	이경수	1418H(J)	38
	대령	이종희	1439W	31		중령	이창희	1418F	38
	소령	김장표	4507	35		소령	김지훈	7007	39
	소령	고종진	1407H	48		중령	길정우	1428F(J)	39
'13.5.31	대령	김영권	1609	32		중령	장상춘	1428F(J)	39
	대령	김형식	5509(J)	32		중령	안명식	1808(J)	40
	대령	강동욱	1429F	33		중령	이승훈	1438C	40
	대령	권재원	4509	33		대위	이원동	6707	51
	대령	김중희	1709	35		대위	김경문	7507	56
	소령	오세용	4507	49		대위	김태경	1407H	56
'13.6.30	대령	배순근	1429F	31		대위	채광현	1407T	56

주소 변경

('12년 7월~'13년 6월)

기수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최규순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1402호	156-712	02-533-2485
5	김상곤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차(아) 104-707	137-797	02-532-9173
5	양영직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우성2차(아) 15-905	135-828	010-7599-6356
5	윤춘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7 I-park city 407-705	441-390	031-262-0623
5	전윤수	서울 용산구 동부인촌동 302-64 장미(아) 7A호	140-030	010-6291-0743
5	최현찬	대구 수성구 용학로 336, 106-802 (범물1단지Apt.)	706-764	053-783-8755
7	김남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4 휴먼시아 709-203	446-757	031-693-5791
7	채인수	경기 구리시 수택3동 854 대림한숲(아) 102-1505	471-725	031-557-3298
9	김용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아) 1202-803	437-807	031-422-1097
9	이재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 224-305	463-773	031-715-6864
9	이준호	경기 평택시 독곡동 한일(아) 104-302	459-715	070-4157-8555
9	함종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51-5 광명주택 204호	464-925	010-7278-1523
10	강위훈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 푸르지오 301-2501	463-953	031-705-3609
10	김완수	서울 관악구 인헌동 180-515 (201호)	151-815	010-2029-1875
10	송중호	경기 의왕시 내손동 우미린(아) 203-202	437-080	010-2526-0780
11	최문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신동아(아) 403-403	156-090	02-534-2805
13	문기철	제주시 아라2동 당선문2차 빌리지 105-402	690-122	070-8243-1171
13	이강평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LG자이2차(아) 217-804	448-534	031-897-9339
13	이회관	경기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아) 121-1007	413-720	031-947-3076
13	이태규	경기 김포시 장기동 1866-1 청송마을 중흥S클래스 611-1801	415-060	031-944-2960
14	박진재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1 foal안3차 327-1107	156-732	02-2292-5729
14	박평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93 명하우스 402호	120-160	02-392-5574
15	전광문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 112-1003	446-831	031-275-2750
15	최광순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 507-201	448-120	070-88-703609
16	김정갑	경기 이천시 갈산동 781 힐스테이트(아) 103-701	467-070	010-433-7763
16	박영기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우성(아) 202-506	156-773	02-3477-5056

기수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6	이수웅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 105-110	137-948	010-2310-6073
17	김석우	경기 의왕시 내손순환로8 내손동 우미린(아) 201-1802	437-080	031-392-0228
18	김정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86 정사뜰 태영데시앙(아) 2차 206-1401	448-550	010-3017-4484
18	김태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7 신동아(아) 502-801	156-777	010-3215-8586
18	박재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270-2	446-909	031-287-5634
18	윤관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1 죽전자이2차(아) 101-1208	446-859	031-276-4594
19	김복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LG자이2차(아) 209-1204	448-534	010-9276-5986
19	안동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아) 53-1003	135-906	02-547-7516
20	문태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1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620-401	122-736	02-712-8057
20	이준근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1단지(아) 13-208	132-762	010-3588-4039
20	이철주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트리(아) 308-704	158-785	02-2065-9861
20	이치훈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2-6	476-813	031-774-6809
21	김영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17 신안(아) 802-206 (행신2동, 무원8단지)	412-725	031-972-2722
21	이상철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 97 문래금호어울림(아)102-901	150-863	02-2677-9136
22	오규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742-29	445-870	010-7584-4201
22	이영하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61 범의문 센트레빌(아) 209-303	120-050	02-379-7872
22	장현섭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아) 103-601	137-826	02-581-5042
24	유원봉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 현대홈타운 113-1002	446-912	070-4190-8061
24	이철순	인천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청라롯데캐슬 102-303	404-170	010-7417-1925
24	이윤상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엘스(아)150-1201	138-910	02-529-5107
24	정인성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삼진(아) 101-102	321-757	070-7787-8538
25	한영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24-9 현대홈타운 112-1302	446-562	031-282-4663
26	이요섭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705-203	339-727	010-4094-7495
27	박경규	대전 유성구 상대동 도안신도시 한라비발디(아) 301-503	305-313	010-8816-2728
27	손태용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04-202 (동백동 동원로얄듀크A)	446-707	010-5077-8665
27	신해철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87 금호어울림(아) 203-1201	156-090	031-567-5925
27	최종현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남원주두산위브(아) 105-1106	220-980	010-9990-6567
28	최정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92 금호타운 103-1404	361-752	070-8292-9603
29	김영철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삼익(아)2-702	137-754	02-2654-6411

각 기생회 임원 현황

('13년 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최규순		22기	민형기	정갑순	43기	김상진	이종훈
2기	고영근	명의창	23기	이정욱	장수환	44기	김범창	김호년
3기	최동호		24기	권영우	이남진	45기	이강훈	김도형
4기	김재윤		25기	김종수	임종호	46기	서정민	
5기	정재식	정봉수	26기	변정돈	정진기	47기	이영진	문성훈
6기	이윤우	손중서	27기	박경종	장경찬	48기	고종진	원기탁
7기	강영식	이강일	28기	김영민	김명현	49기	이정영	
8기	장정효	송재선	29기	김홍온	김용환	50기	정병식	손다혜
9기	강민수	천왕봉	30기	정경두	박성준	51기	김계한	이현석
10기	한정복	김한용	31기	조성욱	황명균	52기	윤민록	조효희
11기	최문강	한영석	32기	김연환	천상필	53기	최주영	우승지
12기	배양일	엄수남	33기	정영진	정영철	54기	조원기	권선영
13기	최종덕	김종식	34기	김형호	최상수	55기	이재환	강수정
14기	이우덕	임길순	35기	강규식	이봉우	56기	권혁준	정신기
15기	이호재	유성봉	36기	홍순천	김재영	57기	정인식	이준범
16기	권명남	양길수	37기	이용호	김동하	58기	박전규	최나라
17기	어수연	최복현	38기	임의수	이능교	59기	차규식	백승우
18기	이영준	강재필	39기	박해영	김택선	60기	이상우	구상협
19기	김영철	정선구	40기	김태욱	김종원	61기	이건혁	남용운
20기	장성문	최병철	41기	허강철	설선주			
21기	신문식	유근국	42기	이종서	이동현			

편 집 후 기

어느덧 초하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본지의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성의를 다해 주옥같은 원고를 기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새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고도의 군사위협으로 인한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과제에 대한 연구논제를 많이 기고하여 효과적인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었음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원기고는 현역, 예비역, 그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취미와 체험을 통해 삶의 활력이 되고 심신의 힐링(Healing)은 물론,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한 곳에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연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원고를 다 게재할 수 없었음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사총동창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편집에 수고하신 김호동 편집위원장 및 문태일, 김삼교, 김택기, 박동형 편집위원과 정성을 다해 발간해 주신 국군인쇄창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 집 인〉

기 고 안 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3호 성무지 원고는 2014. 3. 2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 행 일 : 2013. 7. 1.
발 행 인 : 이 기 동
편 집 인 : 이 영 희
발 행 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 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 화 : 02-823-1091
팩 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www.hobartgroundpower.com

TLD
TLD

LIG for Tomorrow

True Dream Partner

희망을 그리며 세계로 나아갑니다

국내최고의 방위산업 전문업체,
첨단미래산업의 무한영역을 개척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LIG넥스원이
첨단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내일의 희망을
그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 LIG Nex1

www.lignex1.com

LIG넥스원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감시정찰체계, 전자전체계, 항공전자 등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산화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희망을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기업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선물의 기술 – 필립스 센소터치 3D

날마다 다른 스타일을 완성하는 남자의 페이스 스타일리스트, 필립스 센소터치 3D.
매끈한 턱선을 살려주는 최첨단 3D 입체헤드의 탁월한 절삭력은 물론,
감각적인 트리밍으로 남자만의 멋을 연출해줍니다.
지금 사랑하거나, 혹은 아끼는 그 남자에게 필립스 센소터치 3D를 선물하세요.

www.philips.co.kr

PHILIPS
sense and simplicity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JAKARTA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진 자카르타로!

아시아나, 7월19일부터 자카르타 매일 운항

서울(인천) 17:15 출발 22:15 도착 자카르타
23:45 출발 08:55+1 도착

■ 예약 및 문의 • 1588-8000 • 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3

2013. 10. 29~11. 3 | KINTEX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공군

청주국제공항에어쇼

2013. 10. 25~27 | 청주국제공항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3

• 주최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적은 제일 두려워한다.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F-35
LIGHTNING II

견줄 수 없는 스텔스 성능과 전례 없던 상황인식 능력을 갖춘 **F-35 Lightning II**는
공중을 제압하며 한반도를 보호할 힘을 대한민국에게 제공합니다.
또, 내일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도전을 오늘 해결해 줍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LMF35.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HE F-35 LIGHTNING II TEAM
NORTHROP GRUMMAN
BAE SYSTEMS
PRATT & WHITNEY
LOCKHEED MARTIN

WWW.LMF35.COM

든든한 파트너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보잉은 한국치공구㈜ 박영욱 사장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치공구㈜는 보잉
항공기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보잉은
그 전문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BOEING